제12권 제2호

장애인복지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목 차

1.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의 현상학 분석을 중심으로 ……1
서원선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 19
김성중 · 심미승

3.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에 관한 연구 ……51
양혜정 · 강선경

4.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81
정종은 · 최보연

5.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의 범주화: 개념도 연구법을 중심으로 ……115
류청한

6.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 탐색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141
오준협 · 조재훈

7. 한국수어 사용 농인의 문화재 설명문 이해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175
백현아 · 김지용 · 김태욱 · 최원일

8.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on the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of Unemploy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3
Kim, Young Jun · Kim, Wha Soo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17.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의 현상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서원선**

【국문초록】

연구필요성 및 목적: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나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총 10명의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분석을 활용해 의사소통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91개의 명확한 의미로부터 9개의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3개의 중심 영역을 도출하였다. 중심 영역은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rights)의 몰이해', '미흡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인한 고충', '뇌병변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재활치료 및 언어치료 환경'이다. 연구제언: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의사소통 권리 강조, 개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 제공, 의사소통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장애, Giorgi 현상학적 분석, 의사소통 증진

* 본 연구는 2020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재분석 한 것임.

Ⅰ. 서 론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장애로서 총 인구는 25만 3,083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9.8%를 차지해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3번째로 많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뇌병변장애인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이며, 주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 42.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의 순으로 나타나 동반장애로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많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그러나 언어장애 동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은 말이 86.2%로 가장 높고 몸짓이 11.0%, 기타 2.3%, 필담(글쓰기) 0.5%의 순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 수반, 높은 만성질환 발병율 등으로 의사소통,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노수희, 2015; 임명순, 2018). 특히 언어장애와 관련해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8). 즉,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사회 환경과 접근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배제되며 개별 욕구와 특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올바른 사회참여가 불가능하다. 현재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주로 언어치료와 보조기기 지원이 대부분이며 지원되는 서비스조차도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21).

학문적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다수의 과거 연구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나 보조기기 프로그램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기의 공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개발 및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수요 파악(공진용, 김경양, 남세현, 안나연,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 서비스에 대한 요구 분석(임명순, 2018), 활동지원서비스 상황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중재 정도(조아라, 박은혜, 2016), 학교 환경에서 뇌병변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보완대체기기 및 의사소통 중재유형(조두년, 박선애, 김원경,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004), 뇌병변장애인의 일반적인 복지 욕구 파악(박희찬 외, 2015) 등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및 뇌병변장애인의 일반적인 복지 욕구 파악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활용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뇌병변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겪는 직접적인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과 관련해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러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의사소통의 의미와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사소통이란 최소 두 명 이상의 상대방(청자와 화자)이 자신의 의견, 감정, 정보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주변과의 단절 및 학대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 부족을 야기해 교육, 노동 등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서울시복지재단, 2018).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2021).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 및 청각장애는 독자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있으나(수화통역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분절적인 지원만 제공되고 있다(박희찬 외, 2015). 의사소통은 자립생활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를 포함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서비스,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조아라, 박은혜, 201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21; 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2021).

2.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선행연구

뇌병변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권리, 의사소통 증진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실시되지 못했다.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주로 AAC 이용과 AAC 방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조두년 외(2004)의 연구에서는 중도 뇌성마비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을 지도함에 있어 AAC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습득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언어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1명과 중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언어사용 능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문장 8개를 선별하였다. 연구결과, 중도 뇌성마비 학생들의 의사소통지도는 문장보다는 의사소통 판에 의한 언어중재가 우수하였고, 의사소통 판 보다는 동사 및 명사 카드에 의한 표현 양식에서 우수하였으며, 동사 및 명사카드 보다는 칩 톡에 의한 언어중재가 가장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임장현, 박은혜, 구정아(2014)의 연구에서는 AAC가 필요한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하고 AAC 중재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4개의 주요주제를 도출하였다. 4개의 주요주제는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경험', ‘AAC 중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소비자 중심의 AAC 중재 서비스의 형성', ‘AAC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이며, AAC를 다수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AC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흡으로 사용 접근성이 떨어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AAC 서비스 전달 체계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공진용 외(2017)는 한국형 AAC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AAC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뇌병변장애인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실시해 양적조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 대부분(90.2%)은 AAC의 활용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현재사용 중이거나 과거 사용한적 있는 AAC 사용자 대부분(60.6%)이 AAC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기존 AAC가 사용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특화하지 않았던 데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특성을 구분하여 기기 사용을 고려해야하며 기기 휴대방식의 편리성 및 음성출력 음량 조절 등에 대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희연, 홍기형(2015)의 연구에서는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AAC 글자판의 단어예측기능이 문장산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0명의 성인 뇌병변장애인이 한국형 하이테크 AAC 기기인 마이토키스마트의 글자판에 탑재된 단어예측기능을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기기 사용 후 단어예측기능의 필요성, 사용편의성 및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문장예측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문장생성속도가 낱글자입력방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빠르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임명순(2018)은 구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AAC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뇌병변 성인의 AAC 도구 사용 경험과 AAC 중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AAC 도구 사용 경험이 있는 10명의 뇌병변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실제 AAC 도구 사용형태를 관찰하여 기능적인 사용 측면의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AAC 중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개인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AAC 사용 이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가족 구성원과 활동지원사 등 가까운 지인과는 AAC 도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사자 중심 서비스가 되기 위해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AAC 교육과 장애 인식개선 요구 측면에서 당사자와 주변인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AAC 사용 매뉴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아라, 박은혜(2016)의 연구에서는 중도 뇌성마비 성인의 자기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AAC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해 AAC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 대화상대자인 활동지원사의 교육 필요성을 고려하여 뇌성마비 성인과 활동지원사에게 AAC 중재를 실시하고 이것이 뇌성마비 성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뇌성마비 성인과 활동지원사에게 AAC 중재를 제공하였고 각 참여자의 집에서 일주일에서 3~4회 중재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뇌성마비 성인과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한 AAC 중재는 뇌성마비 성인의 자기결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조아라, 안혜신, 박은혜(2021)는 중도 뇌병변장애인의 AAC 사용과 자기결정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AAC를 사용하는 중도 뇌병변장애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총 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서면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5개의 대주제 및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자기결정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AAC를 사용하는 중도 뇌병변장애인의 자기결정 향상을 위해서는 AAC 구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AAC 기기 이용, 언어치료적 중재 방법 등에 치중하고 있어 AAC 기기 및 언어치료의 기능적인 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의사소통경험을 파악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 의사소통 유지의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개요 및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일상생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변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의사소통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의사소통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전환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참여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Giorgi에 의해 제시된 현상학적 분석은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Giorgi, 2004).

연구참여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의사소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표집하였다. 뇌병변장애 관련 단체를 통해 총 10명을 모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 뇌병변장애를 주장애로 가지고 있고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자, 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기타 기기 등) 혹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자, 3)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활동(직업, 장애단체, 교육 등)을 지속하고 있는 자로 정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활동지원사 등의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알아듣지 못할 때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지원사가 답변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인터뷰는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윤리 승인번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K2020-04이다.

본 연구의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10명으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사회활동영역	주요의사소통방법
1	참여자1	여	41세	직업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2	참여자2	남	49세	직업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및 필담
3	참여자3	여	33세	직업활동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추가 부연 설명)
4	참여자4	여	39세	직업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5	참여자5	여	46세	장애단체활동	활동지원사(추가 부연 설명) 및 AAC(테블릿/앱 사용)
6	참여자6	남	42세	장애단체활동	활동지원사(추가 부연 설명)
7	참여자7	여	26세	장애단체활동	활동지원사(추가 부연 설명) 및 AAC(테블릿/앱 사용)
8	참여자8	남	49세	교육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및 활동지원사(추가 부연 설명)
9	참여자9	여	52세	교육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10	참여자10	남	29세	교육활동	AAC(테블릿/앱 사용) 및 활동지원사(추가 부연 설명)

2. 연구윤리 고지 및 타당화 검증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각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윤리에 대해 고지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화 검증방법은 Padgett(2004)의 동료집단(peer support group) 조언 및 지지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 중 논점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전이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질적조사 전공자 1인과 언어치료(의사소통) 전공자 1인을 선정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관점과 조언을 경청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동안 이미 인터뷰가 종료된 연구참여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의 진행상황을 고지하고, 타 인터뷰에서 발견된 사항에 관해 연구참여자와 토의하는 '연구참여자 재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Padgett, 2004).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의 구술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자의 언어로 핵심명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구조를 확인하고 서술적으로 표현한 뒤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단위를 확인한 후 의미를 유사한 내용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각각의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기술하였다(Giorgi, 2004). 연구참여자의 기술을 통해 91개의 명확한 의미로부터 9개의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3개의 중심 영역을 도출하였다.

1)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rights)의 몰이해

(1)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서도 의사소통 권리의 필요성,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성의 중요성, 의사소통 증진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미 CRPD에서는 의사소통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권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의사소통 권리가 새로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장애인 의사소통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참여자1)

> ‘의사소통 권(rights)이라고 하면 다들 생소해 합니다. 이동권, 접근권 등은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들 들어보았을 텐데 의사소통 권이라고하면 다들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인이고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사소통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참여자5)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를 의사소통 '객체'로 간주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이나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된 교육도 부족하여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이에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와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활동지원사 혹은 주위 보조인력과 의사소통을 하며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를 의사소통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주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활동지원사나 같이 동행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 말하는 속도가 느려 기다려주지 못하고 급하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혹은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참여자2)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식당,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간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 가족과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저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려다보니 그러는 것 같고...(중략)...저희들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다들 심적으로 바쁘다보니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편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10)

(3)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두려움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비장애인은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과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다들 뇌병변장애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 병원,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특히 고객이라 응대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응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중략)...그냥 표정을 보면 난처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애처롭기도 합니다.'(참여자4)

'그나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뇌병변장애인을 좀 만나보신 것 같기는 한데...(중략)...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면 더욱더 뇌병변장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기계를 사용해 의사소통

을 할 때도 좀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9)

2) 미흡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인한 고충

(1) 장애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보조기기 지원

현행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는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이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을 받고 선정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배부된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심도 있게 평가하기 보다는 공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손 기능 등에 적합한 주변기기(마우스, 휴대용 걸이 등)를 함께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뇌병변장애인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다.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주로 공급 중심이어서 뇌병변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신청서를 잘 작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참여자4)

'저 같은 경우에는 AAC 기능이 있는 태블릿을 사용하려면 특수 마우스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기기 지원은 마우스 같은 것은 같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사용하게 됩니다.Ⅳ(참여자8).

(2) 보조기기 사용방법 교육 필요

현행 보조기기 지원은 일방적으로 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기기의 사용법이나 관리 등에 대해 추가적인 지시나 교육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뇌병변장애인 중에는 실제로 고가의 보조기기를 지원받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단순히 기기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증진센터 등을 통해 사용방법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용법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거나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해당 보조기기를 100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참여자5)

'앱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앱 사용법을 처음에 조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교육을 병행한다면 기기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러면 의사소통도 더욱더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참여자7)

(3) 범용 스마트기기를 의사소통 보조기기로 인정

미국에서는 병원 퇴원 후 직업재활기관 혹은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본인에게 맞는 AAC 기기, 범용 스마트기기, 혹은 기타 의사소통 기기를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용 스마트기기는 의사소통 보조기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되지 않으며 결국 뇌병변장애인이 스마트기기 상에서 최신 의사소통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AAC 수단은 간단한 제스처부터 고가의 첨단기술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연령, 의사소통의 넓이와 깊이,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고가의 AAC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장애인에 따라 일반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참여자3)

'특히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필요도와 욕구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AAC 기기,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참여자9)

3) 뇌병변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재활치료 및 언어치료 환경

(1)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무시한 치료 서비스

뇌병변장애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재활치료 및 언어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활동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미성년 뇌병변장애인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교육활동, 직업활동 등 개별필요나 의사소통 환경에 따라 적절한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로 바우처를 통해 아동 혹은 학교에 다니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참여자3)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병원가고, 학교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방식 혹은 표현을 사용해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지원이 부

족해 각 환경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중략)...그리고 성인이 되면 재활치료도 받기가 어려워 딱히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언어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참여자6)

(2) 정부 및 지자체 간 서비스 불균형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각 서비스를 동시에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지자체 예산, 지자체 의지, 기타 지자체 현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부처 간 서비스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의사소통 증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의사소통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 중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괜찮은 곳에서는 재활치료가 제공되지만 인식이 부족한 곳에서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산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참여자5)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자체 의사소통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고요...(중략)...솔직히 같은 장애인인데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누구는 서비스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옆 동네로 이사 갈수도 없고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참여자10)

(3)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갈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사소통 증진 서비스(언어치료, 재활치료 등)는 대부분 기관 중심으로 뇌병변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기 보다는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에 본인의 욕구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해 뇌병변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저번에 뇌병변장애인 관련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NDIS라고하는 서비스 체계가 맘에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렇다면 저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참여자4)

'아직까지는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고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복지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증진센터 등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고른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것이고 그러다보면 의사소통 서비스도 저한테 맞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참여자7)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경험을 통해 그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기초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rights)의 몰이해, 미흡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인한 고충, 뇌병변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재활치료 및 언어치료 환경의 3개의 중심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서도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9). 모든 사람은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인권이 인종, 국가,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의사소통 권리 또한 그러하다. 사람은 구어(말)로만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며 말, 눈짓, 몸짓, 손, 표정, 글, 사진이나 그림, 독특한 형식이나 매체, 보조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수단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소통 권리가 무시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인지하여 의사소통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United Nations, 2009).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의사소통의 주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임을 발견하였다. 즉 의사소통을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혹은 주위 사람과 하고 있으며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야만 대화가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당사자를 배제하고 조력자 혹은 활동지원사와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 배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태도는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식개선교육의 문제로는 의사소통의 주체가 비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대면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의사소통 증진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항상 장애인에게 있고 그 해결을 위한 대상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식개선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장애인당사자, 조력자, 상호작용의 상대자가 인간의 기본권에 기반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등)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강조하고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소통 주체성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임명순, 2018).

둘째, 개별 뇌병변장애 특성, 사회활동 영역, 보조기기 특성 등을 고려해 의사소통 증진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대상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원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조기기 신청도 단기간(3주간)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사소통보조기기와 관련한 교육 또는 뇌병변장애인의 손 기능에 적합한 주변보조기기가 함께 지원되지 않아 지원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이 직업재활이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개별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가의 AAC, 의사소통 단말기 등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여러 종류의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Jobcentre Plus, 2021; Texas Workforce Commission, 2021).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증진 기기를 보조기기로 인정하여 개별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해야 한다(박희찬 외, 2015).

그리고 보조기기 지원 후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보조기기 지원 후 사용 교육의 부족, 기기 수리 불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의 부실은 보조기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공진용 외, 2017). 보조기기 지원 이후 기기의 미숙함은 결국 의사소통의 효과 ·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기 신청 및 의사소통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뇌병변장애 단체 및 의사소통증진센터 등에서 관련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 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셋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의사소통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는 만 24세 미만 뇌병변장애인에게 제공되어 연령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형태로써 지자체에서 투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본 서비스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직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AAC 활용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에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뇌병변장애 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사업과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 뇌병변장애인 및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여 뇌병변장애인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호주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예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2021; Texas Workforce Commission, 2021).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업재활서비스, 지역사회지원 서비스(언어재활, 가정돌봄,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NDIS, 2021).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별예산 및 제공자 선택 방식을 도입하여 뇌병변장애인이 본인의 욕구와 환경에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경험을 질적으로 조사하여 의사소통 증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의도적 표집을 통한 소수 연구대상자의 모집으로 인해 전체 뇌병변장애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공진용, 김경양, 남세현, 안나연 (2017). 뇌병변장애인의 한국형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활용 실태 조사.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5(2), 25-50.

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노수희 (2015).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및 지원 정책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시복지재단 (2018).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종합지원계획 수립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이희연, 홍기형 (201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글자판의 단어예측기능에 대한 뇌병변장애인 대상의 사용성 평가.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9(3), 209-214.

임명순 (2018). 보완대체의사소통(AAC)중재 서비스에 대한 뇌병변 성인의 요구 분석.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임장현, 박은혜, 구정아 (2014). 보완대체의사소통(AAC)중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분석. 재활복지. 18(1), 287-310.

조아라, 박은혜 (2016). 활동보조서비스 상황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가 뇌성마비 성인의 자기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4(1), 1-18.

조아라, 안혜신, 박은혜 (2021).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중도 뇌병변장애인의 AAC 사용 및 자기결정에 대한 경험 및 지원 요구.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9(1), 27-58.

조두년, 박선애, 김원경 (2004). 중도 뇌성마비 학생들이 선호하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중재유형에 관한 연구. 5(2), 149-174.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21). 의사소통지원 안내. 서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2021). Brain injury and communication. retrived from https://www.biausa.org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s Oak, CA: Sage.

Jobcentre Plus (2021). Services for brain injury. retrived from http;//www. jobcentreplus.uk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2021). About NDIS. retrived from www.ndis. gov.au

Padgett, D. (2004). The qualitative research experience. Pacific Grove, CA: Wadsworth.

Texas Workforce Commission (2021). Vocational rehabilitation manual. Austin, TX: Authors.

United Nations (200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uthors.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Focusing on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Seo, Won Sun
Research Development Team,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Purpose: People with brain damages often have communication disabilities; however, the primary communication sources is verbal language. People with brain damag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so research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for them.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y approache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by analyzing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having the communication disorders as well. Method: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a total of 10 participants with brain damages were participa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10 accurate themes were analyzed from 91 meanings and 3 primary domains were analyzed from the 9 themes. The 3 primary domains were 'mis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rights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difficulties from the unsufficient assistive devices', 'unsufficient environment of rehabilitative and linguistic services for people with brain damages.'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disability awareness on the communication of people with brain damages, the provision of individual assistive device,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s were proposed.

■ key words : People with Brain Damages, Communication Disorders,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논문투고일 : 2021. 10. 15.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16.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9-4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협동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김성중***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심미승****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인 산출분석의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급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결정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부족하였다. 재정은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원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법률과 지침 개정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해야하며, 이용자 제외대상 기준과 연령기준을 완화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원시간과 단가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간활동서비스의 총량을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Gilbert & Terrell 정책분석

* 제1저자
** 교신저자(msshim@jnu.ac.kr)

Ⅰ. 서 론

최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방향설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강혜규, 김보영, 엄태영, 김은지, 정세정, 2010; 김영춘, 정민숙, 2010).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김경호, 2003), 맞춤형 서비스 등이 강조되면서 이를 실현할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김미옥, 201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자기 통제와 자기결정을 강조한 소비자로서 발달장애인의 역할을 강조한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변용찬 외, 2015).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기존 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포용과 자립생활이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재용, 2009). 이러한 정책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 최근 발달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29조에서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도입 · 실행되고 있으나 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제한되어 서비스 이용률은 낮다(김미옥, 최복천, 김동기, 이복실, 박광옥, 2018).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신의 가정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30% 수준이며, 그나마 농어촌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는 40%, 40대는 12%, 50대는 10%만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취약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강혜규 외, 2012).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평일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TV보기가 26.7%, 근로 21.9%, 휴식하기(그냥 쉬기) 17.5%, 통학 10.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관의 돌봄,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7.5% 수준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외, 202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 활동, 단순 시설 이용이 아니라 일상 · 사회활동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김미옥 외, 2018)하기 위해 2016년 10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9년 3월부터 정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9년 도입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고용, 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의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등의 제반 서비스를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1; Rotheham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2013). 이러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는데 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하루의 충족 조건은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 일상적인 공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자신이 원하는 일 수행;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확장 및 소속감 고취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즉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비장애인, 비발달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은 사회적 관계의 확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김명숙, 고종욱, 2013).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듦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이은모, 황경령, 2012; Viemero & Krause, 1998).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분석 차원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약함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실증자료를 활용한 정책분

석은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심석순, 2017).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Gilbert & Terrell(2010)의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해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간활동서비스 특징과 기본원리

1) 특징

주간활동서비스가 추구하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a meaningful life)이란 개별적인 선택에 기반한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통합이다(Putten & Vlaskamp, 2011).

미국에서는 취약계층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3년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1997년에는 잔존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병원 및 시설을 폐쇄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도 2000년 이후 개호보험과 장애인자립지원법(2013년부터 장애인종합지원법)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정비를 통한 이용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선경, 2019). 이상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서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018년 「커뮤니티케어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지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서비스는 부족해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2015년 주간활동급여설계가 연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1차 시범사업의 배경이 되었다(김용득, 이복실, 이동석, 2015).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에 대한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에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참여하였고, 22개 기관에서 219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이 제한적이며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높지 않아 1차 시범사업의 결과분석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시범사업의 지역과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하자는 요청도 커졌다. 이처럼 본 사업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제공기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2017년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지자체와 발달장애인 수를 늘리고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수요자 중심의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통해 역동적인 낮 활동을 가능하도록 사업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과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한 원인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17개 지자체에서 39개 제공기관을 통해 781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발달장애인과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중시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취지에 부합했고, 2인 이상의 소그룹 형태로 참여하게 되므로 당사자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이복실, 박광옥, 2017).

2년 동안의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하여 2019년 3월에 전국적인 정식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소그룹 중심(2인, 3인, 4인)의 서비스 진행으로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도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일상생활에 자신감과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추가로 그룹 활동이 어려

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1인 지원서비스를 도입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 유형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중요한 기회를 확대하고,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꾸려간다는 점에서 모든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역동적인 활동이나 서비스는 낮 시간의 생활을 구조화시키며 관심을 끌거나 필요로 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수면, 생활리듬, 식욕 그리고 건강, 자신감 향상,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동화, 김미옥, 김동기, 2017; Bradshaw et al., 2004; Emerson et al., 2000; Jones et al., 2007)

2)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빈번하게 접촉하여 궁극적으로 대다수 성인의 일상과 유사하고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원칙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 특히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당사자 기반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용득 외, 2015).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선호 혹은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의미있는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리에 기초해야 한다(이복실, 박광옥, 2017). 첫째,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선택에 기반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수립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정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상의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해 구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보편적인 장소의 활용 및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알아가고,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욕구 및 참여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주체들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섯째, 주간활동서비스는 반드시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이 유지되는 낮 동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가 주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목적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배제되거나 특정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제공되는 것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주간활동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활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시설이나 공간적 여건 및 환경,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수적으로 충족되거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주간활동서비스란 많은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 빈번한 장소인 스포츠센터, 식당, 카페, 미술 공간, 운동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공간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낮 시간동안 특정 공간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유지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김용득 외, 2015)이 좋은 주간활동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2.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

사회복지 정책분석 모형은 정책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모형이 존재한다. 이 중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루는 폭넓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틀로서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김희, 심미승, 2021). Gilbert & Terrell(2010)은 사회복지정책이 할당

(allocation), 급여(provision), 전달(delivery), 재정(finance) 등의 4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차원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4가지 선택의 차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4가지 차원

차원	질 문	방 법		
할당	누가 급여를 받는가?	선택의 연속체	귀속욕구	공통된 욕구를 가진 집단성원
			보 상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집단 성원
			진단적 구분	개별사례의 특별한 재화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전문가에 의해 판단
			자산조사 욕구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부여
급여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선택의 확대	기 회	바람직한 목적달성을 위한 우대조치와 제재조치
			서 비 스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
			재 화	음식, 의료, 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
			바우처와 세금공제	구조화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
			현 금	구매력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급여
			권 력	재화와 자원의 통제에 영향력을 재분배
전달	어떻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 전략	조정과 시민참여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를 재구조화하려는 전략
			역할부가와 전문직 해약	과업의 할당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전략
			접근구조의 전문화와 의도적 중복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재정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원 출처	조세, 자발적인 기부금, 수수료와 이용료	

출처 : Gilbert & Terrell(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재구성

첫째, 할당(allocation)은'누가(who) 급여를 받는가?'의 문제로 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남찬섭, 조성은, 김기태, 민기채, 김수정, 202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별주의)와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의 문제이다. 둘째, 급여(provision)는 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급여 대상자에게 무엇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what)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급여 형태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분배되는 급여 형태에는 현금과 현물 외에도 증서(voucher), 권력(power), 기회(opportunity)와 같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이들은 현금과 현물의 두 가지 형태와는 달리 다양한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구현하고 있다(남찬섭 외, 2020). 셋째, 전달(delivery)은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는 대안적 전략들로 급여의 전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how)'에 대한 답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와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정된 급여를 수급자격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는가는 앞의 두 가지 선택 차원, 즉 할당과 급여의 선택 차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남찬섭 외, 2020). 마지막으로 재정(finance)은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공적재원을 사용할 것인가, 본인부담 등 민간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재원 모두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남태섭, 유태균, 2009; 이혜경, 2009; Gilbert & Terrell, 2010).

Ⅲ. 연구분석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Gilbert & Terrell(2010)의 정책분석모형과 주간활동서비스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현황,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서비스 연구자료, 발달장애인법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심석순(2017)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표 2〉 주간활동서비스 연구 분석틀

차원	질문	내용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급여	서비스 유형 서비스 통제의 영향력	개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가?
		서비스 유형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하면 언제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전달체계	서비스 결정권한과 통제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결정권한과 통제권한이 있는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있는가?
재정	재원의 출처와 적절성	정부의 급여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가?

첫째, 서비스 대상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급여 즉 서비스 차원에서는 서비스 유형과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유형의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셋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해 결정과 통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넷째, 재정 차원에서는 재원의 출처와 적절성을 근거로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의 충분성을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Ⅳ. 주간활동서비스 분석

1. 서비스 대상

만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는 모든 성인 발달장애인이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외대상이 있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⑥「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주 20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 이용)를 받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도 없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한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수급자격결정을 위해 신청 발달장애인의 가구특성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다.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기능상태 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도전적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수급자격 결정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조사를 통한 세부항목의 점수 합계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적격, 적격, 최중증 여부에 따른 구간 점수표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자 여부 구간 점수표

점수구간	2점~10점	11점~21점	22점~45점
이용대상자여부	부적격	적격	적격(최중증)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 3〉에서 언급한 최중증은 실제 복합적인 문제(도전적 행동, 신변처리 불가 등)로 지원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구환경, 서비스 욕구, 시급성에 해당하는 점수로 최중증으로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구는 181,969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제외대상을 제외하면 129,630명(보건복지부, 2021)으로 2021년 주간활동서비스의 목표 9,000명(6.9%)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2019년 2,500명이 전국적으로 할당되었으나 서비스를 신청한 발달장애인은 2,357명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

애인은 1,680명이었다. 2020년은 4,000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를 신청한 발달장애인은 3,692명이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0명으로 목표 대비 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21년은 9,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4,141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연령, 제외대상, 선정조사 등을 두는 이유는 스스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좀 더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낮 활동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급여 개시일부터 3년까지로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재신청하도록 하고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중지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첫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셋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번 확인해서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시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기본형 40시간, 확장형 72시간이 감액되고 있는데 제때 수급자격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명이 발달장애인 2~4명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구성된 그룹의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 경증, 중경증, 중증(최중증 포함)의 발달장애인 모두 그룹활동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룹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2020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인 지원(제공인력과 발달장애인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기능에 따른 배제는 최소한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부담스러워 초기상담부터 거절을 하거나 신청은 받고 제공인력을 늦게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용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2. 급여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주간활동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성을 확장시키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김미옥 외, 2018)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참여형 및 창의형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 구성을 금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참여형	창의형
건강증진활동 : 산책, 등산, 볼링, 탁구, 농구 등 직장 탐방, 캠프, 여행 등 교육 : 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 인권 및 안전교육 등 문화관람 :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이용 등	자조모임 : 기획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 악기연주,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감상 등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등 사진찍기 : 카메라 관리, 사진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 목공예, 비누공예 등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위의 내용을 근거로 Gilbert & Terrell의 급여 차원에서 분석하면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므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이 아닌 제공기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349

개의 제공기관에서 1,210명의 제공인력이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관은 1,40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기반 활동이므로 외부협력기관 이용이 필수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한 협력기관(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은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시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제공기관 1개소 당 평균 11.86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발달장애인이 평균 3개의 협력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지만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협력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활동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제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유형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유형의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결과 서비스 유형 개발 역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 심도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와 특정 전문가 소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심석순, 2017). 따라서 실제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를 희망하면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는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므로 09:00부터 18:00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에는 이마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기관의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룹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2~4명의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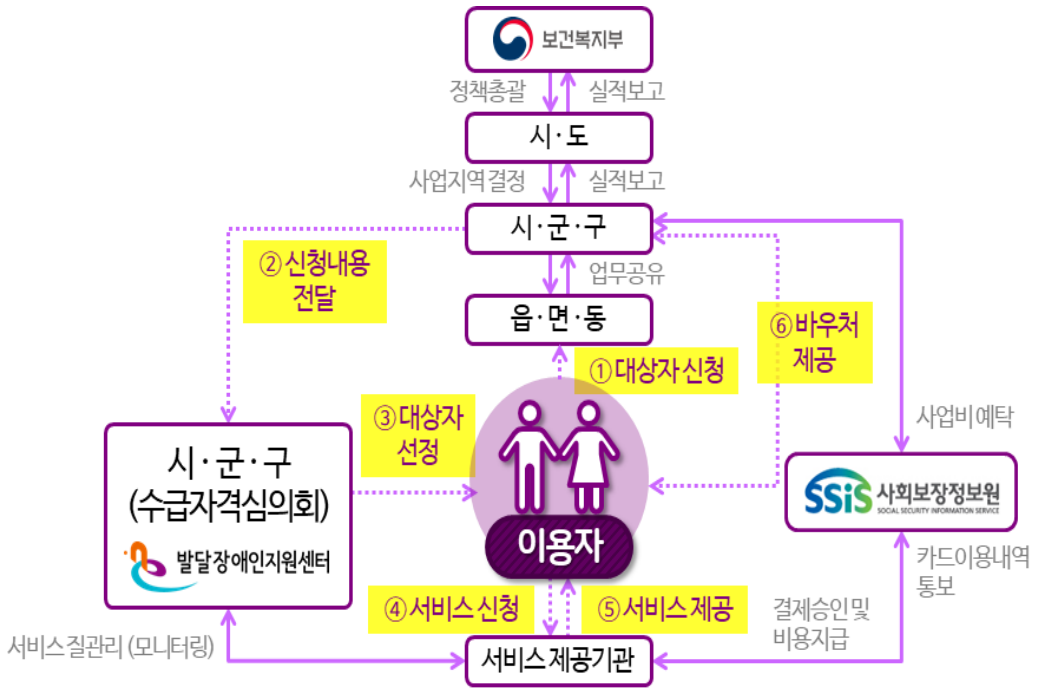
주간활동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 실제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별지원계획을 통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전문가가 계획을 대신할 뿐 이용자와 서비스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명확한 과정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복실, 박광옥, 2017).

3. 서비스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행 전달체계는 해당 역할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추진체계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첫째,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 관리 · 감독 및 사업 지원, 평가, 예산지원,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한다. 둘째, 광역지자체(시 · 도)는 기초지자체(시 · 군 · 구)에 대한 지원 · 지도 · 감독을 하고, 기초지자체(시 · 군 · 구)는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 감독 등을 담당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넷째, 제공기관은 기초지자체(시 · 군 · 구)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선정 받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지원,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관리, 바우처 비용 지급 및 정산 등을 담당한다.

(1) 결정권과 통제권

전달체계 가운데 이 제도의 목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부문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Gilbert & Terrell의 전달체계 차원에서 분석하면 서비스는 직접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 서비스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고 보장되는데 초점을 두고 권리의 주체자로서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제도적 근거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성명진, 2015).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되어(김용득 외, 2009; 김진우, 송남영, 2010; Cushing & Lewis, 2002),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경험의 기회 박탈과 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김용득, 박숙경, 2008; Robertson et al., 2001; Hatton et al., 2004).

자기결정 실천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실천방법 기준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 야기되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보호자와의 의견 충돌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유하얀, 김미옥, 2017).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에 대해 다양한 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슈들이 존재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완전한 인정은 가능한지, 자기결정을 위한 타인의 개입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Devi et al., 2020). 오히려 발달장애인이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할 때 발달장애인은 정보실패(information failure)를 경험하게 되고,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선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양난주, 2009). 이런 측면에서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선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바우처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인, 2010).

(2) 제공인력의 전문성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며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이나 권리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김연옥, 윤덕찬, 2009). 서비스 제공인력은 만60세 이하이면서 제공인력 양성교육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데 자격요건은 〈표 5〉와 같다. 다만 제공기관이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험축적으로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인지적 · 체력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 · 군 · 구 승인을 받아 만 65세 미만까지는 제공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1).

〈표 5〉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양성교육은 지식역량 9시간, 가치 및 태도역량 9시간, 실천기술역량 12시간, 현장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내용

지식역량(9시간)	가치 및 태도역량(9시간)	실천기술역량(12시간)	현장실습(24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실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지원생활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보호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의 안전 발달장애인의 건강	현장실습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다만 발달장애인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론교육 최대 9시간, 현장실습 최대 24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공인력의 양성교육 수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단계인데 아래 <표 7>과 같이 기본적인 양성교육을 제공인력이 이수하지 않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거나,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7〉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 현황

(단위: %)

이론교육 수료여부				현장실습교육 수료여부			
이수	유예	미이수	합계	이수	유예	미이수	합계
60.2	27.6	12.1	100	59.4	26.9	13.7	100

출처 : 주간활동 · 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참조

전문성이란 자신의 업무나 직업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총괄하는 것으로(변은경, 하준선, 윤숙자, 2008), 발달장애인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식, 기술, 가치를 가지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갖는 것이다(박병헌, 배화숙, 2003; Johnson & Yanka, 2004).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인력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중 대략 40%는 발달장애인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식, 기술 역량 등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체계도 없어 지속적인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공인력 양성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간활동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4. 재정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09:00~18:00)에 발달장애인과 협의하여 제공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단위: 시간)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일 기준)	56(2.5)	100(4.5)	132(6)
활동지원시간 차감	0	40	72

출처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제공시간의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하며, 기본형 대상자가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성을 고려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기본형과 확장형에서 각각 40시간, 72시간 차감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국고와 지방비는 도시 규모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서울은 50:50, 기타 지역은 70:3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타 바우처 서비스와 다르게 본인부담금은 없고, 소득기준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는 〈표 9〉와 같다.

〈표 9〉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국비	지방비
2019년	28,110,000	19,103,000	9,007,001
2020년	63,042,571	43,417,000	19,625,571
2021년	133,177,143	91,304,000	41,873,143

출처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2021.07.08.) 자료

확보된 예산은 2019년 281억원, 2020년 630억원, 2021년 1,331억원으로 각각 2,500명, 4,000명, 9,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4,141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예산에 비해 이용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4,141명의 발달장애인은 단축형 737명, 기본형 1,471명, 확장형 1,933명이며 그룹별 이용 현황은 1인 그룹 249명, 2인 그룹 1,626명, 3인 그룹 1,183명, 4인 그룹 1,083명이다.

〈표 10〉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천원)

유 형	총 계		1인		2인		3인		4인	
	이용 수	예산	이용 수	예산	이용 수	예산	이용 수	예산	이용 수	예산
총 계	4,141	65,497,784	249	5,279,195	1,626	29,780,498	1,183	16,868,269	1,083	13,569,819
단축형	737	6,170,633	57	651,934	295	2,779,324	214	1,612,087	171	1,127,286
기본형	1,471	21,204,120	84	1,715,616	475	7,991,400	453	6,093,756	459	5,403,348
확장형	1,933	38,123,030	108	2,911,645	856	19,009,774	516	9,162,426	453	7,039,185

출처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2021.07.08.) 자료

위 <표 10>을 기준으로 12개월 예산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655억원이 소요되므로 전체 예산 약 1,331억원의 49.2%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50.8%에 해당하는 예산이 주간활동서비스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내용을 근거로 Gilbert & Terrell의 재정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먼저 정부의 급여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가이다. 재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간활동서비스는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바우처 서비스와는 다르게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해 사업을 추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진할 때 전국적으로 우선 주간활동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2,500명이라고 분석하여 그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2,500명보다 적은 수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예산 투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2021년 5월 기준 4,141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목표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 수의 변화가 없다면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진되는 예산 폭은 더 늘어나겠지만 주간활동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한 전자바우처 카드를 통해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제공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공인력의 직접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기관 중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할당(allocation), 급여(provision), 전달체계(delivery), 재정(finance)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서는 만12세~만18세까지의 발달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똑같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이용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급여 차원에서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사전에 개발해 구성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통상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표준화된 조사표에 입각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에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제공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차원에서 결정되는 서비스 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와 관련해 서비스 결정권한은 표준화된 인정조사표에 의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판정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서비스를 결정하기 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결정권이 확보되기 힘들 수 있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일회성 양성교육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차원에서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없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식비, 송영비 등을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초생활수급권 가족 등 생계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지자체(시 · 군 ·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 발달장애인이 증가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신청 후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처럼 주간활동서비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실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쟁점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 차원에서 대상자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제외대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되어 보편적인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제공기관의 수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선택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 대상의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65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만65세 이상이 되면 이용할 수 없는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i.or.kr

65세 이상 된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은 모든 것을 서비스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데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참여형과 창의형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다양성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 시간은 현재 월요일~금요일에 제공되고 있는데 서비스 선택권의 폭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제외대상자(직업재활시설 이용자, 거주시설 이용자 등)에서 평일에 고정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점차 주간활동서비스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신규 이용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종래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서비스는 제공기관 중심에서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중심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선택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매하는 비용을 직접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system)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기반 활동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제공기관 등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경험 및 훈련을 통해 획득되고 숙달되는 능력으로 경험과 훈련을 강조한다(Frensch & Sternberg, 1989; Swanson, 1994).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시간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론교육에서 단순 주입식 교육을 폐지하고, 상담능력 향상, 행동관찰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추가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론교육 시간이 30시간에 그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수시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실습은 당초 24시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매년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초기 양성교육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들이 직무에 만족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하는데 있다(Herzberg et al., 1959).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불만족을 초래하는 보수, 근로시간 등의 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 수준의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 차원에서 2021년 총 예산에서 50%에 가깝게 불용이 예상되므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56시간, 100시간, 132시간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시간은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간활동서비스의 목표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현재 수준에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주간활동서비스 단가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지만 3인, 4인 그룹은 차등단가로 조정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유형에 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단가 확대가 필요하다. 3인은 기본단가 대비 80%, 4인은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명의 제공인력이 3명, 4명의 발달장애인을 매일 6시간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소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상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소진 예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시간이 40시간에서 72시간까지 연계되어 차감된다.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시간 차감으로 활동지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발달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이후 남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서비스의 총량(바우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즉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의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조정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집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유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달장애인이 단순히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개인의 일상과 삶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기능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정책에 대해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방향[1]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과정의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제공인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1) 본 연구 분석에서 부족한 부분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신 심사위원님의 유익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강혜규, 김보영, 엄태영, 김은지, 정세정 (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세경, 박수지, 이정은, 이선희, 장은지, 김용득, 석재은, 이병희, 정선영, 황덕순 (2012).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군 심층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호 (2003). 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 조직의 참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2), 43-64.

김동화, 김미옥, 김동기 (201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태조사**. 경북행복재단.

김미옥 (2012). 사회복지사의 지적장애인 서비스과정 참여에 관한 인식 연구: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IPA 분석. **사회복지연구, 43**(4), 369-394.

김미옥, 최복천, 김동기, 이복실, 박광옥 (2018).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김명숙, 고종욱 (2013).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60**, 35-54.

김인 (2010).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시장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2**(2), 397-426.

김연옥, 윤덕찬 (2009).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역량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285-312.

김영춘, 정민숙 (2010).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책적 대응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51-261.

김용득, 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김용득, 이복실, 강희설 (2009).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40**(4), 231-257.

김용득, 이복실, 이동석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 성공회대학교, 보건복지부.

김진우, 송남영 (2010).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증진에의 쟁점 이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2), 5-31.

김호진, 임예직, 박혜원, 조신영, 장수빈, 전영환, 김언아, 최종철, 이정주 (2020).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희, 심미승 (2021).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따른 아동수당의 방향성에 관한 소고. **한국웰니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학회지, 16(1), 93-101.

남태섭, 유태균 역 (2009).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4판)**. Gilbert, N., &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6th ed), Allyn & Bacon, 나눔의집.

남찬섭, 조성은, 김기태, 민기채, 김수정 역 (2020).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8판)**. Gilbert, N., & Terrell, P. (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8th ed), 지식공동체.

박병헌, 배화숙 (2003). 사회복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 **사회복지연구, 12**, 99-117.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변은경, 하준선, 윤숙자 (2008).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만족: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177-200.

변용찬, 최복천, 황주희, 강민희, 이송희, 이민경, 배혜원 (201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활동지원 제공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석순 (201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판적 고찰-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과 활동지원서비스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6**(3), 237-268.

성명진 (2015).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기결정 프로그램 고찰.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2), 47-70.

이복실, 박광옥 (201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간활동서비스 2차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성공회대학교, 보건복지부.

이은모, 황경령 (2012). 직업재활에 참여중인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만족 및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 55**(1), 93-106.

이재용 (2009). 그룹홈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인권복지연구, 5**(2), 125-154.

이혜경 (2009).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9**(9), 77-96.

양난주 (2009).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3), 77-101.

유하연, 김미옥 (2017).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 69-94.

최선경 (2019).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문화기술 융합, 5**(4), 105-11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가이드북**.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장애인개발원.

Bradshaw, J., McGill, P., Stretton, R., Kelly-Pike, J., Moore, J., & Macdonald, S. (2004).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ctive suppor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7(3)*, 139-148.

Cushing, P., & Lewis, T. 2002. Negotiating mutuality and agency in care-giving relationships with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ypatia*, 17(3), 173-193.

Devi, N., Prodigner, B., Pennycott, A., Sooben, R., & J. Bickenbach. (2020). Investigating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persons With Mild to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y Using Institutional Ethnography.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Disability, 17(2)*, 143-156.

Emerson, E., Robertson. J., Gregory, N., Kessissoglou, S., Hatton, C., A. Hallam., M. Knapp., K. Järbrink., A. Netten., & C. Linehan. (2000). The quality and costs of community-based residential supports and residential campuses for people with severe and complex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5(4)*, 263-279.

Frensch, P. A., & Sternberg, R. J. (1989). Expertise and Intelligent thinking When is it worse to know better?.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5, 157-188.*

Gilbert, N., & Terrell, P. (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7th ed). Allyn & Bacon.

Hatton, C., Eberson, E., Robertson, J., Gregory, N., Kessissoglou, S., & Walsh, P. N. 2004. The Resident Choice Scale: A measure to assess opportunities for self-determination in residential setting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2), 103-113.

Herzberg, F., Mausner, B., & Snyderman, B. B. (1959).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John Wiley.

Johnson, L. C., & S. J. Yanka. (2004).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Jones, M. C., Walley, R. M., Leech, A., Patterson, M., Common, S., & Mercalf, C. (2007). Behavioral and psycho-social outcomes of a 16-weeks rebound therapy-based exercise program for persons with profound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4(2)*, 111-119.

Putten, A., & Vlaskamp, C. (2011). Day Services for people with profound intellectual and multiple disabilities: an analysis of thermatically organized activiti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8(1)*, 10-17.

Robertson, J., Emerson, E., Gregory, N., H atton, C., Kessissoglou, S., Hallam, A., & Linehan, C., 2001.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settings. *Mental*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Retardation, 39(3), 201-214.

Rotheham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2013). Rotheham learning disability services – A service directory for people with a learning and their carers. *Rotheham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Swanson, R. A. (1994). Analysis for improving performance: Tools for diagnosing organizations and Documenting workplace expertise. *SanFrancisco. CA: Berrett-Koehler.*

Viemerö, V., & Krause, C. (1998).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7(6)*, 317-322.

A Study on Issues and Tasks of Day Activity Service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

Kim, Seong Joo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Shim, Mi Se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derive measures and guidelines to improve the system by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day activity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four dimensions of service target, salary, delivery system, and finance under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model, were appli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service target, there was a limitation in that all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ld not use the service. In terms of salary, it was difficult to receive the necessary service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the right to make service decisions was virtually not guaranteed, and the expertise of day activity service providers was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e, it was analyzed that the level of support given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universality of day activity services by revising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It is necessary to aim for an integrated life in the community by easing the criteria and age standards for user exclusion.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various services appropriate to them should be reflected in salary,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day activity services should be guaranteed. Third, in the delivery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personal budget system so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select and control day activity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xpertise of the service providers, training hours should be greatly expanded and reinforced with training contents that can be used in the actual field. Fourth, in fi-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nance, support time and unit-price increase must preced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ervices and vouchers that can be adjusted to suit the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Day Activities Services, Gilbert & Terrell ' s Policy Analysis Framework

논문투고일 : 2021. 10. 14.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51-79.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양혜정***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강선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 5명으로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81개의 중심의미에서 16개의 드러난 주제를 발견했고, '꿈의 상실', '환대 없는 일터', '주변화된 존재', '차별과의 공존', '직업적 정체성의 발견', '변화의 촉진자'의 6개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 장애인의 일, 사회복지시설, 장애 차별, Giorgi 현상학

* 제1저자.
** 교신저자.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일은 명시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로 간주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고용관련 차별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고용노동부, 2020) 전체 고용률 65.9%(통계청, 20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취업한 분야에 있어서도 전체 취업자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장애인의 단순노무자 비율은 취업자의 27.8%로 전체인구 취업자의 단순노무자 비율인 13.7%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용노동부, 2020).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장애인은 근무환경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20)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과의 임금 및 업무차별, 왕따, 직장 내 불편사항이 39.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근로자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4%, 임금체불 · 부당해고 · 과다노동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 예방과 구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김현경, 2021).

장애인의 일과 관련한 연구는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고, 실천 현장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0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통계연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이나 현재까지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한국사회복지협회, 2020).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도 있겠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고용된 장애인이 일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전문직 종사자로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Mackelprang, 2010; Kiesel et al, 2019 재인용). 또한, Kiesel et al(2019)는 장애인을 전문사회복지사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문헌은 제한적이고, 경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험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미국의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취업과 직업 유지 과정에서 '고용 차별에 대한 예상과 경험', '적응 혼란', '장애가 더 나은 사회복지사를 만듦', '사회복지 직업에 대한 실망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고용 문제를 의제화 하고, 고용 장벽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고용되고, 근무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특정한 집단을 연구하거나 연구 문제에 대해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위한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Creswell, 2013). 연구참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 5명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은 어떠한가?'

Ⅱ. 문헌고찰

일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성, 소속감,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사회적 결속을 위한 교류 및 상호작용의 장으로 기능한다(ILO, 2019). 마찬가지로 일은 장애인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일자리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경험하고 있고(Watson et al, 2012), 최근 수십 년 동안 주류사회에서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유급노동으로의 유입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Barnes, 2012). 그럼에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여기에는 낮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차별, 낙인, 부정적인 태도, 출근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는 일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UN, 2018). 따라서 장애인의 일

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근로환경의 문제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들 수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91년부터 시행되었고, 의무고용률과 의무고용대상 기준이 점차 확대되었다. 의무고용률은 시행 초기 1%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로 확대되었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의 기준은 시행 초기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었으나 2004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대상은 우리와는 달리 중증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는 5%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남용현, 2019).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민간과 공공부문 사업체이고, 의무고용률은 6%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크다(심진예 외, 2018).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의무고용률 상향 및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최성욱 외, 2007; 최종철 · 김선규, 2011; 심진예 외, 2018).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 시설이 드물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의무고용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용과 직업 유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고용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시하였고(김범규 · 남용현, 2014), 장애인을 고용했던 경험이 고용주의 채용의사와 장애인 고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탁 · 심진예, 2009). 일부 연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형렬, 2013; 김지영 · 신동면, 2014; 고귀염 · 김자옥 · 유태균, 2016; 이환복, 2018). 장애인의 직업 유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나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변용찬, 이정선(2005)은 장애인의 연령, 결혼상태, 임금수준, 상용근로자 여부가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함께 상용근로

www.kodp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자 등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예직과 문영민(2021)은 장애인의 노동안정성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수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취업 당시부터 고용의 질이 높은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이수용 · 서원선, 2018). 이러한 연구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고용조건, 고용주의 인식 수준, 기업의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연구는 장애인의 고용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이준우 외(2017)은 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생활 경험을 분석해 '욕구보다 현실과 조건에 맞춘 직업생활', '비장애인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태도 경험'을 드러냈다. 절단장애인의 직업 유지 및 단절 경험에 관한 백금기와 조원일(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아픔', '가정에서의 저하된 존재감', '일을 향한 도전과 좌절', '직업이 가져다준 새로운 삶',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의 다섯 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서원선과 서욱영(2018)은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심리 · 집단상담, 멘토링 서비스, 전문적인 구직상담 및 직업알선, 개별 시각장애인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있는 집단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경험에 근거하여 지원방안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오수경과 장숙(2019)은 분석한 60편의 논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7%에 불과하고, 50% 이상이 장애인의 부모, 직업재활전문가,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있는 집단의 고용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특정 집단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확대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을 탐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Giorgi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에서의 현상은 배움, 수치심, 상실감 등 인간이 의식으로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현상학은 이러한 현상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김인숙, 2016). Giorgi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후설의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 진술을 통해 연구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일반적 구조 진술을 통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전체의 경험 통합하여 현상학적 주제를 구성하는 의미 단위의 구성부터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남인, 2005; 2014).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통합하여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따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출방법을 적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 중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실무자에게 의뢰하여 소개를 받는 세평적 사례선택과 연구참여자로부터 소개를 받는 눈덩이 표집을 함께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사회복지사이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하였고,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2회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시간은 회당 60분 ~ 90분이었으며,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직장이나

www.kodp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거주지 인근으로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사회복지시설 근무 이력	사회복지 시설 근무기간	자격증	학력
참여자A	남	38	시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6년	사회복지사1급	석사
참여자B	남	46	지체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20년	사회복지사1급	석사
참여자C	남	40	시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12년	사회복지사1급	학사
참여자D	남	43	지체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10년	사회복지사1급	석사
참여자E	남	42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9년	사회복지사1급	학사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단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천천히 읽어나가며 다양한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또한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 별도의 표시를 하며, 새로운 의미 단위가 발견되는 지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는 의미 단위를 학문용어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동일한 의미 단위들은 하나의 의미단위로 바꾸어 나갔고,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일상적이고 암시적인 언어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은 이제까지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의미 단위를 종합하면서 일반적 구조기술로 통합하는 단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과 엄정성

본 연구는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SGUIRB-A-2005-18). 둘째, 본격적인 자료수집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횟수, 시간,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서면 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가 연구 동의를 철회할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없이 즉시 철회가 가능함을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넷째, 심층 면접을 녹음한 파일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전사한 녹취록, 연구 진행 문서 등의 모든 문서와 함께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한 곳에 별도 보관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였다. 다섯째,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연구와 관련된 기록에 한하여 연구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책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종료 즉시 즉각 파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풍부한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1인, 현상학적 연구 전문가 1인, 장애인복지 전문가 1인으로 동료 지지집단을 구성하였다.

Ⅳ. 연구결과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에 대해 81개의 중심의미를 구성했다. 중심의미에서 16개의 드러난 주제를 발견했고,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꿈의 상실', '환대 없는 일터', '주변화 된 존재', '차별과의 공존', '직업적 정체성의 발견', '변화의 촉진자'의 6개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꿈의 상실	좌초된 희망	• 장애를 이유로 지원했던 시설의 직장체험에서 떨어짐 • 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에 현실을 자각해 진로를 변경함 • 대학 졸업 후 지원한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면접에서 다 떨어짐 • 청소년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희망 업무에서 배제됨 • 기관에서 매년 하고 싶은 업무를 조사하지만 수용된 적이 없음
	제한된 선택지	•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장애인인권단체에서 일을 시작함 •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실패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함 • 채용시 공지되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계속 배정받아 이직을 선택함
환대 없는 일터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	•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장애로 인해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음 • 근무했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동료를 만난 적이 없음 • 함께 일했던 장애인 동료들은 모두 짧게 일하고 그만둠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 친밀감은 높지만 감수성은 높지 않다고 느낌 • 어떤 시설에서도 장애에 대해 배려 받은 적이 없음 • 시설에 경사로가 없어 대피 훈련을 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 장애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동료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동료로부터 상처 받음
	정당하지만 요구하지 못한 권리	• 장애로 발생한 질병에도 병가를 신청하지 못해 개인휴가를 사용함 • 장애로 인해 지원을 요청하면 장애가 부정적으로 거론될 것 같은 불안감에 참고 일함 • 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움
존재의 주변화	드러내지 못하는 장애	• 연간 행사인 바자회를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불편함 • 몇 년을 일해도 장애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불편하고 신경쓰임 • 기관의 어떤 구성원과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음
	구별 지어짐	• 동료들이 비장애인 동료에게와는 다른 태도로 대함 • 동료로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음 • 시간이 흘러도, 직위가 달라져도 동료들은 동료, 상사가 아닌 장애인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짐 • 소속 부서가 있어도 종종 혼자라고 느낌 • 직장에서 같은 직원이 아닌 장애인 직원으로 명명됨 • 동료가 아닌 서비스 대상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짐
	전제된 제한성	• 의사를 묻거나 동의 없이 행사나 외부 활동에서 제외됨 •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안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응을 함 • 물품을 나르거나 제설작업을 할 때 투명인간으로 취급됨
	장애 극복의 의무	• 비장애인들의 업무 속도에 맞추길 요구받음 • 한 손으로 250타를 치느라 디스크에 걸림 • 비장애인 동료와 같은 속도로 일을 하다 관절에 염증이 생김 • 시각장애인임에도 시각을 사용하는 업무에 배치되어 4년을 버텨냄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차별과의 공존	일상에 스며든 차별	•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차별에 점차 무뎌짐 • 의사와 상관없이 배제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 •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원이 인사 없이 소리 내지 않고 지나감 • 장애로 인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험담이 오고감 • 차별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함 • 반복되는 상황에 저항할 힘을 점점 잃어감 • 차별과 배제에 익숙해져 간혹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함
	강요된 침묵	•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함 •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입사한 것 아니냐는 무언의 압력을 느낌 •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서조차 소수자가 됨 • 상사의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침묵함 •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져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짐
직업적 정체성의 발견	공감적 상호작용	• 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곳에서의 직장체험이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함 • 동료와 공감하고 공유했던 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음 • 장애인 동료가 많은 시설로 이직 후 자존감이 높아짐
	일의 의미	• 사회복지 수혜자에서 공급자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에 의미를 둠 • 직장은 또 다른 사회적 장이 됨 • 직업적인 만족도는 아주 중요한 삶의 에너지임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취감	• 기관에서 장애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성취감이 쌓임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도덕적 만족감이 보상으로 주어짐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에 힘들어도 사회복지를 계속함 • 당사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면서 내가 진짜 사회복지사구나라고 느낌 • 마땅히 좋은 일 선한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심리적 보상이 있음 • 퇴사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안부를 주고받는 이용자들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을 만나며 일할 수 있어 즐거움 • 이용자에게 도움을 준 일들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음 •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용자한테 도움이 될 때 뿌듯함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희열을 느낌
	장애를 강점으로	• 장애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이후 일에 가치를 둠 • 장애인과 그 가족이 나를 편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짐 •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숨겨왔고, 아파했던 삶을 기꺼이 공유함 •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에게 동료의 입장에서의 책임감을 느껴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함 • 장애인으로부터 자녀의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정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감 • 유사한 사고로 장애가 생긴 이용자가 나와의 교류를 통해 상처를 회복함 • 장애라는 공통점이 묘한 동지 의식을 갖게 함 •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 할 수 있음 • 동일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의 욕구를 찾아 지원할 때 만족함 • 장애인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강점이 됨
변화의 촉진자	실천적 지혜 쌓기	• 직원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 나감 • 동료들과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동료들의 변화가 느껴짐

www.koodp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심의미
	변화를 위한 실천	•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함 •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권리 의식을 찾고, 발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함 • 장애인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와 시민을 만나고 있음 •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계획 중임

1. 상황적 구조 진술

1) 꿈의 상실

(1) 좌초된 희망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연구참여자 A와 E는 대학 재학 시설부터 장애인복지관을 목표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 자원봉사활동 등의 취업 준비를 해왔으나 직장체험과 취업 면접에서 계속 탈락해 장애인복지관으로의 취업을 포기했다. 연구참여자 E는 취업 후에 장애를 이유로 원하던 직무에 배치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여겼다.

> 직장체험이라는 걸 구하면서 큰 좌절이 있었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다르구나. 거짓말을 좀 보태면 면접을 100군데 본 것 같아요. 서류는 항상 통과해도 면접에서 항상 떨어져. 이유가 장애인이다. 눈이 안 좋다. 문서를 잘 못 본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식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아, 나는 현장에서 일하기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죠. (참여자 A)

>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그때 제일 속상했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장애청소년. 그걸 끝까지 막더라고요. 결국 못했죠. 이직한 복지관에서도 청소년 쪽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장애 때문에 반대를 했죠. 결국은..(참여자 E)

(2) 제한된 선택지

연구참여자 A는 대학교 졸업 후 복지관으로의 취업을 포기한 후 진로를 수정하여 장애인인권단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복지관에 취업하기 전 약 10년간 장애인인권단

체와 시민단체에서 인권활동가로 일했다. 연구참여자 E는 장애인복지관을 목표로 두고 여러 차례 도전하였으나 반복되는 실패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구참여자 A와 E는 이 경력들을 쌓은 후에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에 장벽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 당사자로써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좀 벗어나서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참여자 A)

> 장애인복지관에 가고 싶었어요. 면접도 많이 봤어요. 면접에서 탈락된 게 많았어요.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더.. 열 몇 군데 넣었는데 다 탈락되었어요. 계속 탈락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일단 취업을 해야 하니까. 일단을 경력도 쌓아야 하고. 그냥 직업재활센터 가자. ○○장애인협회 소속이기도 하니까 뭐. 거기 있었죠. (참여자 E)

2) 환대 없는 일터

(1)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

연구참여자가 사회복지를 선택한 경로는 다양했다. A와 E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이 전공으로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를 선택하는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B는 사회복지사인 지인으로부터, C는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복지관으로부터, D는 이용하던 복지관으로부터 사회복지를 권유받아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과 진입 경로는 다양하나 다른 직장보다는 장애가 잘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복지관에 취업한 이후에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는데, E는 근무했던 5개의 기관 중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배제를 경험했고, 모든 곳에서 장애가 있는 동료를 만난 적이 없었다. C는 복지관에서 직원이 아닌 장애인 직원으로 명명되며, 존재 지워짐을 느꼈고, B는 중증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음에도 근무했던 3곳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은 경험이 없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D는 복지관에 경사로가 없어 근무하는 동안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밖에서 바라보던 사회복지시설과 내부로 들어가 경험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경험했다.

> 감성 있는 배려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모든 기관에서 다. 그냥 뭐 하면 땡큐고 안하면 의식되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되게 좀..어 되게 찝찝해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요. 장애 당사자는 그게 되게 찝찝해요. (참여자 B)

행정적인 게 밀리다보니까 밖에 왔다갔다 하면, 늦고, 너 이거 왜 안했어? 하면 서운하거예요. 번히 일을 아는데, 타이핑도 비장애인보다 늦고 그러니까 맨날 늦는 거야, 뇌성마비이다 보니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아프고 디스크도 많이 오는데,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서운했습니다. (참여자 E)

(2) 정당하지만 요구하지 못한 권리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용기가 필요한 도전과제로 여겼고,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E는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규칙이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해 본 경험이 없다. 특히 B는 20년 동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소속 기관의 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부담감을 느껴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리적 환경도 내가 요구하기, 요청하기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간의 저의 20년의 경력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저의 장애 부위에 어떤 질환, 또는 어떤 통증, 또는 어떤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다 제 개인 휴가였어요. 병가지침이 있어도... (참여자 B)

만약에 제가 지원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네가 장애가 있으니까.. 생각 하겠구나 할 것 같아서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요구할 것 요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에이 장애인.. 뒤에서 말할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참여자 E)

3) 존재의 주변화

(1) 드러내지 못하는 장애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장애를 편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바자회와 같은 큰 행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암묵적인 압력에 의해 바자회를 할 때마다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장애 부위가 더 손상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지만 장애 부위를 드러내기도 어렵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다. 연구참여자 C는 동료들이 장애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드러내지는 못했다.

> 장애는 관리해서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건강상태는 항상 평온할 수 없잖아요. 그게 기복이 있죠. 사이클이 있겠죠. 특히 동절기나 하절기 때 그런 어떤 건강관리의 개인의 어떤 장애 상태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 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편하게 노출하기가 어려워요. 편하게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구요. 좀 건강하게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차별적인 거거든요. (참여자 B)

>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죠. 마인드가 인제 약간 사회복지사이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제 좀 그 잘 컨트롤을 해야 해요. 저의 마음을. 쟤는 원래 저런 아이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게... (참여자 C)

(2) 구별지어짐

연구참여자들은 간혹 동료들에게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꼈다. 기관에 머문 기간, 직위, 업무 능력, 기관에서의 역할과는 관계없이 연구참여자들을 규정짓는 조건은 장애였다. 남성 직원도 아니고, 여성 직원도 아닌 장애인 직원으로 규정된다는 생각은 동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A는 아무리 직위가 올라가도 본인이 장애인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한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중증의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마스코트화 되는 경험을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 직원들이 보기에는 제가 팀원이건 팀장이건 부장이건 관장이건 그냥 장애인이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런 정도의 힘듦, 복지관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들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동료로써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젤 힘들어요. (참여자 A)

> 주변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복지사를 하는 게 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내가 직업에 대한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좀 마스코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쨌든... (참여자 D)

(3) 전제된 제한성

연구참여자 A와 B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무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었다. 제외된 업무는 바자회나 이용자 캠프와 같은 큰 행사, 동절기 건물 입구의 제설작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업, 여행지 답사, 기부물품 정리 등으로 다양했고, 주로 특정 부서의 직원이 아닌 전체 직원들이 함께하는 업무였다. 연구참여자 A는 사전 논의 없이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자신이 제외되었다는 정보를 다른 직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알게 되는 일들을 종종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담당자로 지정된 업무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나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제적인 직무수행 능력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에 의해 능력의 제한이 전제됨으로써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 제가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복지관은 짐을 나른다거나 무거운 걸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서 배제되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죠. (참여자 A)

> 계획서에는 답사 가는 사람이 저하고 누구누구 써있었는데, 막상 답사를 간다고 하면 팀장한테 가서 '○○○는 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팀장님이 답사가 지방이라 이번에 멀리 가니까 저 직원만 가는 걸로 하자고. 그때는 '예 알았어요' 그랬지. 같이 얘기하면 이건 안되겠다, 못가겠다 하던 그러면 좋은데... (참여자 D)

(4) 장애 극복의 의무

연구참여자들은 업무 속도를 비장애인 직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받기도 하였다.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 B는 장애가 없는 한 손으로 비장애인 직원의 타이핑 속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디스크를 얻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기한 내 문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받아 동료들보다 장시간 근무를 해야 했다.

> 저는 인제 제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 극복으로 한 손으로 250타를 치거든요. 양손으로 250타 못 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처절한 거거든요. (참여자 B)

> 두 세배했죠. 타이핑이 늦고 시간은 두 배로 걸리고. 근데 거기서 제 업무니까 제가 끝내야 될 업무니까 그닥 뭐. 근데 고려되지 않는 건 맞아요. 시간적인 배려도 없었고. 야근도 많이 하고 일이 안 끝나는 거죠. 타이핑이 느리니까. (참여자 E)

4) 차별과의 공존

(1) 일상에 스며든 차별

연구참여자 A와 C는 직장 내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에 대해 장애가 언급된 험담과 평가가 동료들 간에 오고 가는 경험을 하였고,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장애 자체를 문제로 바라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차별에 익숙해지고, 무뎌져 갈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 C는 몇몇 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을 경험하였는데, 발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묻거나 따지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은 차별 당한다는 사실을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차별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 어.. 그게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으로써 알게 모르게 동료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받는 차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한방에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익숙해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면 내가 그 차별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진 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참여자 A)

> 복지관으로 오는 길에 지나가는 직원이 인사를 안 하기도 해요. 저는 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고 있는데도요. (연구참여자 C)

(2) 강요된 침묵

연구참여자 A는 복지관의 근무환경을 알고 취업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 속에서 일해왔다. 복지관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당연히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 존재했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장애로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몇 년간 같은 팀장과 근무해야 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침묵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강요된 침묵이었다.

> 이런 환경을 알고 당신은 근로하고 있잖아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 하겠네요 라는 분위기 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없음을 알고 근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에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참여자 B)

> 장애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라고 한 팀장이 있었어요. 문서에 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를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못하는 거 뻔하잖아요. 전맹인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데.. 그래서 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이후로 몇 년을 그 팀장 밑에서 일했죠.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참여자 C)

5) 직업적 정체성의 발견

(1) 공감적 상호작용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동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했던 일들을 중요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직장체험을 했던 기관에서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교류했던 경험을 통해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B는 그러한 경험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장애인 동료가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장애인 동료가 있는 기관으로 이직 후에는 동료와 동질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저와 후배들, 동료들과의 공감하고 공유했던 기억들. 지나서도 한 번씩 기억했을 때 흐뭇한 기억들이 있어요. (참여자 B)

장애인 직원이 ○○복지관에서는 저 혼자였거든요. 여기서는 여러 명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동질성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자존감도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참여자 D)

(2) 일의 의미

사회활동이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제약을 받았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통해 큰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로 이동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일에서 얻는 만족감을 삶의 중요한 에너지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선천적 중증장애로 인해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과 교류 경험이 제한적이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취업함으로써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던 수요자에서 지금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A)

직업적인 만족도, 분명히 있어요. 칭찬이나 보상은 아니지만 직업적인 만족도는 아주 중요

한 어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참여자 B)

선천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족 외에는 비장애인을 못 만났어요, 사회에서. 복지관이 저한테 또 다른 사회가 된 거죠. (참여자 D)

(3)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취감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로는 다양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교류하고, 서비스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용자로부터 좋은 피드백으로 받은 경험이 좋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이용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교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의 직업적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 E도 이용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업무가 가장 즐거웠다고 하였고, 퇴사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안부를 주고받는 이용자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와의 교류, 서비스 제공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좋은 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용자한테 도움이 될 때죠. 이용자들이 가족여행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가는 건 괜찮은데, 집에서 복지관에 오고 여행 갔다 와서 집에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송영까지 하는 사업을 했어요. 반응도 좋고 만족해 하셨죠. (참여자 C)

실제로 가정방문을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분을 삶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는 내가 진짜 사회복지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D)

재가복지쪽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때 만난 클라이언트가 가끔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좀 연세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10년 이상 이어온 거죠. (참여자 E)

(4) 장애를 강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장애로 인한 경험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스스로 유사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삶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신과 동일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부분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노력했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난 이용자들을 위해 자신의 장애를 강점으로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 저는 그들이 불편하고 숨기고 아파했던 그 삶을 저하고는 편하게 공유하고 나누죠. 거리낌 없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자 B)

> 제가 뭔가 시각장애인이 잘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시각장애인인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여자 C)

> 이용자들이 나한테 할 얘기도 더하고. 나는 언어장애가 심하니까는 비장애인 사회복지사는 건성으로 듣는 게 많고, 봤거든요. 답답하니까 자기도. 저는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다시 말해줘요 이야기하고. (참여자 E)

6) 변화의 촉진자

(1) 실천적 지혜 쌓기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채용되고,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장애 사회복지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경험을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장애에 대한 교육보다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동료 맞이하여 지혜를 쌓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늘어날수록 동료들의 변화를 느낀다고 하였다.

> 익숙해져야 해요. 내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져야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저 경험을 통해 현장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컨셉으로..장애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여자 B)

> 어떻게 보면 누가 그 사람들을 후천적으로 뭔가 교육을 받아서 그런거 보다는 부딪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원 동아리 활동을 하면 ○○○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변화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D)

(2) 변화를 위한 실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식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과 보수과정, 장애인인권 교육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재직 중인 복지관에서 장애가 있는 후배를 더 많이 채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동료로, 고객으로 인식한 이후 장애가 고려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장애인인권강사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인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 후배를 키우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로서는 후배가 장애가 있는 후배들이 사회복지기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 싶어요.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강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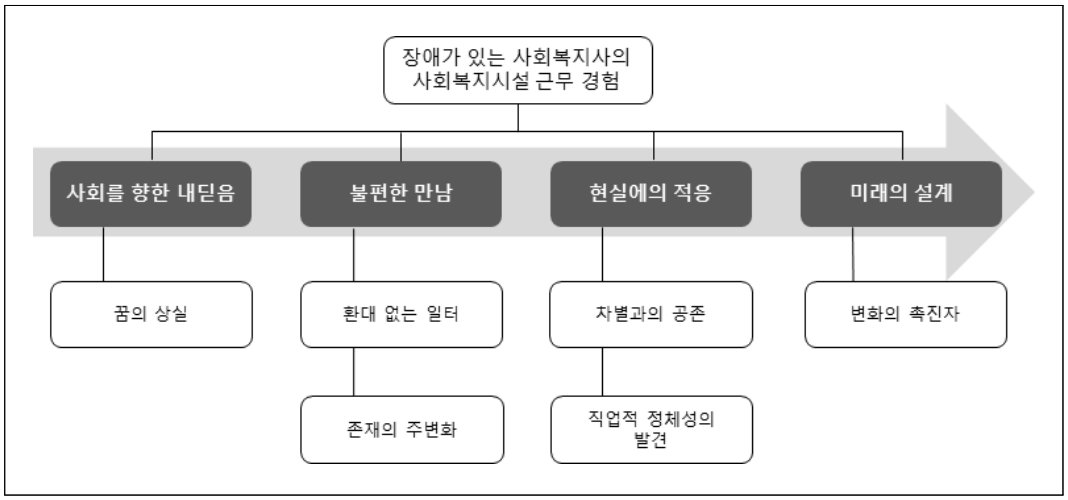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에 가서 그 반에서 장애아동이 도움만 받는 친구가 아닌 어떻게 하면 친구로 인정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한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업체에 많이 가서 손님이 왔을 때 장애인 손님이 아닌 손님 장애인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참여자 C)

> 지역팀이 갖고 있던 인식개선사업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어린이집도 갖고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면 인권 강사로 많이 생각을..지금 인권위 강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애 분야로 접수했어요. (참여자 D)

2. 일반적 구조 진술

일반적 구조 진술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의 본질 구조를 드러내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구조적 관계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시각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해준다(김영천 외, 201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림 1]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 구조

본 연구의 일반적 구조 진술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현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사회를 향한 내딛음'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취업 과정에서 장벽을 경험하였다. 자신들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를 하는데 유리하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복지관으로의 취업에 실패를 경험하였고, 원하는 업무에서도 배제되면서 희망을 버리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사회로 진입하였다.

'불편한 만남'은 사회복지시설로의 진입 이후의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렵게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했지만 환대받지 못하고,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주변화된 존재로 느꼈다. 눈에 드러나는 장애가 있어도 직장 동료들과 장애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상사와 동료, 물리적 환경, 배정된 업무로 인한 불편함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했다.

다음의 '현실에의 적응'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적응해 나갔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되는 차별 경험으로 차별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용자와의 만남, 특히 장애가 있는 이용자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자신들의 장애를 공감과 소통의 매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직업 안에서 성장해 나갔다.

‘미래의 설계’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나 동료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나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교육 내용에 녹여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변화의 촉진자가 되고자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근무한 경험은 ‘꿈의 상실’, ‘환대 없는 일터’, ‘주변화된 존재’, ‘차별과의 공존’, ‘직업적 정체성의 발견’, ‘변화의 촉진자’로 드러났고, 이는 사회를 향한 내딛음, 불편한 만남, 현실에의 적응, 미래의 설계라는 시간적 흐름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환영 받지 못하고, 주변화 된 존재가 되고, 차별받은 경험은 개인의 장애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편견, 낙인, 배제로 만들어진 ‘장애’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생계의 문제, 이직의 어려움과 두려움, 안정된 직업의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와 상사의 부정적인 반응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였다. 대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했고, 장애인 이용자로부터의 피드백과 성취감을 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었으며, 변화의 촉진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는 ‘장애’가 존재하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지역사회를 향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의 의미는 『차별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었다. 주목할 점은 연구참여자들을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이었고, 이 정체성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벽을 경험하였다.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평가는 지식, 기술, 능력 수준이 아닌 장애 자체가 기준이 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노동자와 구직자에게 태도, 행동 및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요인으로 조직의 문화를 들 수 있는데(Schur et al, 2005),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장애인은 다양한 인력 구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조직 문화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Samant et al, 2009).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조직 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고용은 매우 중요하다(WHO, 2011).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부족한 지원으로 장기간 직장에 머물지 못한다(Vornholt et al, 2017).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낙인으로 연결되어 그들을 불행한 역할에 가두어 어린아이나 무력한 사람의 역할을 갖게 한다. 이렇게 특정된 사회적 역할은 장애가 있는 직원들의 업무배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과도 맞지 않다(Mik-Meyer, 2016).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대상자로 여겨진다고 느꼈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장에서의 적응과 통합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성장하고 있다. 직장에서 차별이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이들은 차별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차별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장애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했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직원이 될 수 있다(Kulkarni & Kote, 2014). 더불어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도 장애인 포함한 다양한 인력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는 2015년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준과 지표' 개정을 통해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확장하여 장애를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추가하였다(Kiesel et al, 2018). 이 중 7번째로 다양한 인력 구성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직업 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조직의 채용, 입학 및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인구학적 구성은 사회복지사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학적 통계를 고객 인구에 맞추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NASW, 2015).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이들

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은 물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제기했듯이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해내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고용률, 시설 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임금, 근속기간, 직급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고용 환경과 편의시설 등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고용의 어려움과 차별의 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과 낮은 감수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물 없는 근로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근로환경을 경험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피난 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책상과 자리 배치,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를 고려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비장애 동료들만큼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가장 억압적인 측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Barnes, 2012).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소장이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보건복지부, 2021), 직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인권, 권익옹호,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유사 사업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상당 부분 존재하고, 운영 목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NASW(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귀염, 김자옥, 유태균(2016), 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No.32, pp.189-216.

국민권익위원회(2020),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김범규, 남용현(2014),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24(4), pp.190-221.

김영천, 정상원, 조재성(2019),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아카데미 프레스.

김용탁, 심진예(2009), 장애인 고용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과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Vol.19(3), pp.409-432.

김인숙(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김지영, 신동면(200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Vol.24(1), pp.51-81.

김현경(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와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Vol. 294, pp. 21-33.

남용현(2019),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Vol.8, pp. 94-104.

대한민국정부(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용찬, 이정선(2005),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Vol.15(1), pp.153-171.

서원선, 서욱영(2018),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2):85.

심진예, 남용현, 조임영(2018),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한국 :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70(3), pp.29-50.

오수경·장숙(2019),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질적연구 동향분석: 199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Vol.29(1), pp.21-39.

이남인(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현상학과 현대철학, Vol.25, pp.91-121.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한길사.

이수용, 서원선(2018), 장애인근로자 고용의 질 변화와 영향요인 연구 : 한 직장 유지 장애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28(1), pp.105-133.

임예직, 문영민(2021),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유형이 노동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3, pp.213-240.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이준우, 박종미, 백소영(2017), 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생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장애인 당사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Vol.39 pp.59-91.

이형렬(2013), 산업유형별 의무고용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23(1), pp.77-108.

이환복(2018), 장애인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인식이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고용만족도 매개효과와 의무고용달성여부의 조절효과, 장애와 고용, Vol.28(4), pp.5-36.

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2007),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23, pp.141-166.

최종철, 김선규(2011), 장애인고용법 시행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중복.건강장애연구, Vol.54(4), pp.21-45.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0),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Barnes, C.(2012), Re-thinking Disability, Work and Welfare, Sociology Compass, Vol.6(6), pp.472-484.

Creswell, J.W.(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흥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석 역). 서울:학지사. (원서출판 2013)

Giorgi, A.(2004).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Advanced Workshi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질적연구학회.

ILO(2019), Work for a brighter future.

Kulkarni, M., & Kote, J.(2014), Increasing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ole and Views of Disability Training and Placement Agencies, 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Journa, Vol.26, pp.177–193.

Kiesel, L R., DeZelar, S., & Lightfoot, E.(2018), Challenges, barriers, and opportunities: Social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experiences in field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54(4).

Kiesel, L R., DeZelar, S., & Lightfoot, E.(2019), Equity in social work employment: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social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Disability & Society, Vol.34(9-10).

Mik-Meyer, N.(2016), Disability and 'care': managers, employees and colleagues with impairments negotiating the social order of disabilit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Vol.30(6).

NASW(2015), Standardsand Indicators for Cultural Competence.

Samant, D., Soffer, M., Hernandez, B., Adya, M., Akinpelu, O.,Levy, J. M., Repoli, E., Kramer, M.,

Blanck, P.(2009), Corporate culture an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ole of social workers and service provider organizations, Work Disabil Rehabil, Vol.8(3-4), pp.171-188.

Schur, L., Kruse, D., & Blanck, P.(2005), Corporate culture 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Vol.23(1), pp.3-20.

UN(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UN(2018), Disability and Development Report.

WHO(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 2011. Geneva, Switzerland.

Vornholt, K., Villotti,m P., Muschalla, B., Bauer, J., Colella, A., Zijlstra, F., Ruitenbeek, G. V., Uitdewilligen, S., Corbière, M.(2017), Disability and employment – overview and highlight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27(1).

Watson, N., Roulstone, A., & Thomas, C.(2012), ROUTLEDGE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ROUTLEDGE:NY.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73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 Study on the Work Experience of Disabled Social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Yang, Hye Jeong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PhD student
Kang, Sun Kyung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that reveals the meaning and essence of disabled social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articipants were five disabled social workers who work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five or more yea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the four steps of Giorgi's technic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ixteen themes were found in 81 central beauty, and six essential themes were composed: 'loss of dreams', 'unwelcome workplace', 'mainly changed existence', 'coexistence with discrimination', 'discovery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moter of chan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social workers with disabilitie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conducted. Seco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was strengthened. Thir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established in an barrier-free environment. And finally, th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proposed.

■ key words : Social Workers with Disabilities,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Disability Discrimination, Giorgi Phenomenology

논문투고일 : 2021. 10. 15.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81-.113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최보연*****

【국문초록】

최근 문화정책에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장애예술 정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법정 계획이나 학계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상대적 무관심을 넘어서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장애예술의 고유한 활성화 정책 구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차대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예술정책을 주도해왔으며, '2012 런던올림픽' 이후로 장애예술 정책을 선도해 온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장애예술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 분명한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좌표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근 장애예술 진흥 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책 토양 위에서 성장하여 현재 영국을 대표하고 있는 16개 장애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주요 특징과 핵심적인 창작 및 운영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영국의 장애예술 정책 사례와 현장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영국 장애예술 정책,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 이 연구는 저자들이 함께 참여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22 발표예정) 수립 TF에서 공유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주윤정 외, 2018)의 관련 내용을 추가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제1저자(kultur18@sangji.ac.kr)
*** 교신저자(philoarts@sangji.ac.kr)

Ⅰ. 머리말

최근 문화정책에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되는 등 장애예술 정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흔히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위 법률의 제정은 장예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등을 포함한 제반 문화예술 활동이 국가 예술정책의 명확한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등 향후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흥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에서 장애인 관련 예술지원 정책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2018~2022〉(2017),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만드는 문화 2020~2024〉(2020),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2020) 등 최근의 주요 법정 계획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은 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나 무장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왔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가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몇 계획에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조현성 외, 2021).

‘장애예술인’이나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정부 정책에서만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 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간 ‘장애+예술’을 키워드로 담고 있는 논문들은 대개 장애인의 복지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2014)을 다루거나 장애인, 특히 장애학생(김경, 2017)이나 장애아동청소년(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2018)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삶에서 복지, 교육, 치료의 관점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사뭇 달라진 관점이 확인된다. 예컨대, 안채린(2020)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혁신적 포용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이란 더 큰 주제와 연결 지어 다루고 있으며, 전지영(2021)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 개념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연구소나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그간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도했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논의'(전병태, 2017; 주윤정 외, 2018; 박근화 외, 2019; 조현성 외, 2020; 조현성 외, 2021)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심진예 외, 2020)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부처 간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 고용직무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 등 특화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문화 · 예술 분야 등)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직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0년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일자리 신규직무로 개발하여, 2021년 공식적인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로 선정하였다. 그간 문화예술 활동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당당한 직무이자 근로로 인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정립된 동 직무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일자리 인원 중 5%는 문화예술 활동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의제에 더하여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및 일자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술정책' 차원에서 기존의 비장애예술인/단체 지원 정책을 넘어서는 장애예술인/단체에 특화된 지원 및 진흥 정책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라는 일반적 지원 방식이 여전한 가운데 문체부의 '함께 누리사업' 중에서 '장애예술단체'를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cf.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1]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차대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예술정책을

1) 국내 장애예술 정책이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년, 장애인 예술 관련 업무가 문체부 체육국에서 예술국으로 이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국에 소속되었을 때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은 특별히 추진되기 어려웠고, 주로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돕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013년 예술국으로의 업무 이관에 이어 2015년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된 것은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전담 기관의 설립과 함께 물리적 거점이 형성된 것으로, 이후 장애예술 정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도 다양화되고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예술정책으로서 장애예술 정책의 역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다양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과 장애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보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예술단체를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 또는 국내 장애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계획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주도해온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장애예술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 분명한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좌표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예술정책의 두 기둥을 거칠게 '창작 진흥'과 '향유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별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창작 진흥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 정책의 균형적 성장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은 특별히 혼자 작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교육 및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영국의 장애예술 지원 정책의 흐름과 지향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현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장애예술 지원 정책의 현황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장애예술단체들의 주요 활동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국내 장애예술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및 창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공공예술 지원사업을 대표하는 '국가포트폴리오기관(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2015-2018'으로 선정된 16개 장애예술 관련 단체를 전수로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간략한 제언을 담았다.

Ⅱ.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흐름과 현황

1.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흐름

서구사회에서 장애인 운동이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그 목표와 방법이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신사회운동은 기존 계급운동과 달리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복합성 증대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운동으로서, 프랑스의 68혁명이 잘 대변하듯이 각종 사회그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정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화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지역자치운동, 흑인운동 등이 꼽히는 데(조돈문, 1995; 이행봉, 1994), 소수자 운동의 하나로서 장애인 운동 역시 권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신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였다. 영국에서 장애예술 정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책의 본격적인 추진 역시 이러한 흐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1960년대 이후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흐름을 장애인 운동의 변천 과정과 연관하여 거칠게 세 단계, 즉 변화 모색기, 제도 확립기, 미적 도약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2)]

1) 변화 모색기: 신사회운동의 발흥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1960년대 후반부터 강력하게 대두된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운동은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자 하였을까? 많은 의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으로서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의료적 모델이란 장애를 개인의 '결핍'(deficits)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이나 보호, 그리고 의료적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델을 의미한다(Arts Access Victoria, 2015. p. 15). 신사회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하게 추진 및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운동(disability activism) 역시 장애를 신체나 정신 일부의 오작동(malfunction)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전통적, 주류 중심적 관점과 재현(representation)에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장애와 장애인을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의 전환을 추동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를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사회로부터 장애인의 배제 등은 개인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 및 '불평등한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Arts Access Victoria, 2015). Shakespeare & Watson(2001)은 영국의 장애인 운동을 검토하면서 장애인권운동이 사회적 모델로 진화하면서 '장벽 제거(barrier removal)'라는 정치적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들이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

2) 영국이 국제무대에서 예술정책의 본산과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된 데에는 1946년 케인즈의 주도로 설립된 대영예술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2년 국가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가 영국의 문화전담 부처로 창설된 이후, 대영예술위원회는 1994년부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로 사분되었다. 1997년 '창조산업 진흥'을 내걸고 설립된 문화매체체육부(DCMS)의 등장 이후에도 팔길이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위원회 중심의 예술지원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예술 정책과 관련한 영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1960년대 후반부터 영국 사회를 강타했던 신사회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 운동과 장애예술운동이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힘을 받으면서 주요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의식이 형성된 것이 장애예술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국가별 예술위원회의 특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정종은 (2014).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 **문화정책**, 1, 15-37.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1981년을 장애인의 해(IYPD: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로 선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N은 이를 계기로 가입 국가들에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재활 10년(Rehabilitation Decade)'으로 선포하고 1992년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뒤따른 여러 활동들을 통해 장애인 운동이 추구해온 새로운 접근과 모델의 국제적 승인과 확산이 이루어진다.

2) 제도 확립기: 1995년부터 2010년 평등법 제정까지 '사회적 모델'의 제도화

신사회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시민의 권리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영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0),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76)의 제정이 대표적인 사례였다(조임영, 2011, 2015).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보면, 영국에서 장애인 관련 법제도는 더디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추어보면, 제도화가 그리 늦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차별에 반대하는 운동들은 '사회적 모델', 즉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의 사회적인 장벽의 작동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철폐하고 주류적인 고용, 취업 및 교육시설'로의 통합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다(조임영, 2011).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정책적, 입법적 차원의 변화와 보장을 끈질기게 추진하였는바, 영국 사회에서 그 결실은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영국의 장애인 (예술)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유럽연합은 2003년을 장애인의 해(European Year of the Disabled)로 선언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럽연합 각국에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쳤다.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은 장애인을 '대상'(objects)이 아니라 '주체'(subjects)로 규정하면서,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자 자신의 자유롭고 인지된 동의에 기초하여 삶을 결정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하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료적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결별과 '사회적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비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은 2010년 4월, 각종 차별금지법들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하여 동해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제정된 장애차별금지법은 평등법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제도화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자 내적인 정합성을 확보한 차별금지법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홍성수, 2011).

이와 같이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부상한 사회적 모델의 제도화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거의 정착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영국 장애예술운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호주나 캐나다의 장애인 문화 관련 연구들은 '영국의 장애 예술 및 문화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장애인 주도 예술단체(Disability-led arts organizations) 및 옹호 그룹(advocacy groups)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파트너십, 관련 연구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Abbas, Church, Frazee, & Panitch, 2004; Arts Access Victoria, 2014).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장애예술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몇 가지 독특한 토양 또는 요인을 포착할 수 있다(Abbas et al., 2004). 첫째는 장애예술운동의 초기부터 장애예술인들 스스로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 또는 통제가 예술적 활동에 반영되고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나 미국의 장애예술단체와 달리, 영국의 1세대 장애연극단체인 그래이아이(Graeae)의 경우 비장애 설립자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장애 예술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장애경험'을 자신들의 작품에 반영하면서 장애예술 '운동'을 이끌어왔다(Vasey, 1991 참조). 둘째로, 여타의 예술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장애예술가(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가령 대영예술위원회 시절에 이미 예술과 장애 모니터링 위원회(Arts and Disability Monitoring Committee)를 설립하고 담당자(Arts and Disability Officer)를 운용한 바 있다. 2003년 유럽장애인의 해를 맞이해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장애예술인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펀딩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 역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3) 미적 도약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창조적 모델'의 부상

앞서 우리는 1995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장애인차별에 관한 법 · 제도의 도입 및 확립 단계에 장애예술 정책 역시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시기는 '창조산업' 정책을 만들어낸 노동당 정부(1997-2010)가 문화예술의 본유적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등하게 강조한 시기였음에 주목해야 한다(정종은, 2013). Hall & Thomson(2007)에 따르면, 특히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6년부터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개념이 위의 정책기조를 대변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고 사회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주변부와 비주변부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술적 촉진(facilitation)과 협업(collaboration)을 통한 창조적인 기회를 확산하겠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였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치운동에 대한 몰두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조성을 열린 혁신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창조 자본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용적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포용적 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바, 포용적 미학이란 "우리 인간 존재의 환상적인 스펙트럼을, 단순히 선택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Powell, 2010. p. 199). 1960년대 이후로 장애예술에 관심을 갖는 문헌들은 그 개념을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유형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혼용해왔다(Arts Access Victoria, 2014, pp.11-14). 그러나 어느 유형에 관심을 갖든지 간에, 영국에서는 2006년 이후로 사회적 포용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를 문제(problem)가 아니라 개인 및 사회공동체의 자산(asset)이나 자본(capital)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표 1〉 미묘한 차이를 갖는 '장애예술'의 세부 유형

명칭	Arts & Disability	Disability arts	Artists with a disability
내용	비장애 예술가와 장애 예술가 사이의 협업 활동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장애의 생생한 경험을 주제로 진행하는 창작 활동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창작활동
주요 활동	비장애 예술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인 장애예술운동	장애 예술인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창작 프로그램
키워드	콜라보(collaboration)	운동(movement)	행위자(agent)

이처럼 장애(인)을 소수자 개인은 물론 사회 스펙트럼 상에서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다양성 또는 '창조성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의료적 모델이나 장애를 사회환경이나 권력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모델과 구분되는 관점이다. 특히 장애를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정치적 아젠다로 사용하는 '사회적 모델'과 달리 창조적 모델은 장애인의 신체를 심미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모델은 양립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를 심미적 자산이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창작 활동의 경우 사회적 운동 아젠다와 결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국의 장애예술이 전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준 것은 기존의 정체성 정치나 인권운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영국 장애예술인들이 보여준 당당하고 수준 높은 미학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즉 '창조적 모델'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정종은, 2019).

2. 영국 장애예술 지원 정책의 현황

이처럼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모델의 제도화 및 창조적 모델의 부상과 함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은 장애예술 정책은 보수당 집권 이후 치러진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폐막식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모으면서 영국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높아진 주목도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표적인 영국 장애예술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비전계획(Arts Council England, 2013)에서는 5대 목표 중 하나로 '다양성과 스킬(diversity and skills)'을 제시하였는바, 이 목표는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십과 종사자들이 국가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예컨대 장애인 비율의 준수), 특히 예술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이러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성공지표로 삼고 있다.

둘째, 위의 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것은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creative case for diversity)' 프로그램이다. 평등(equality), 재인(recognition), 비전(vision)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3],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 프로그램은 예술위와 'Disability Arts Online'의 협업을 통해 다양성 관련 예술의 역사와 동향, 연구와 비평을 폭넓게 소개하는 포털 사이트

3)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2013)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상호간섭적인 진보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equality), 둘째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영국 예술의 중심에 재위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재인(recognition), 셋째는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또는 결핍으로 보는 모델과 결별하고, 도전적인 예술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는 의미의 새로운 비전(vision)이 바로 그것들이다.

(http://www.creativecase.org.uk)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위원회 및 예술위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다양성 관련 연차보고서(Diversity Report) 발간, 문화예술계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대한 정보(Diversity Data) 관리, 문화예술 기관을 위한 연례포럼 개최, 가이드 북 발간, 다양성 툴킷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영국 예술위원회는 장애예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언리미티드(Unlimited)(III)'라는 명칭의 펀딩(funding)/공모(commissioning) 프로그램을 최근까지 실행하였다.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언리미티드' 시즌 1과 시즌 2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동일 브랜드를 유지 및 확대하고자 시즌 3까지 추진한 것이다. 이 펀드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게 '예술적 야심을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문화예술의 생동적이고 흥미로운 구성요소로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진흥(promote)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들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참여의 기회에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4] 특정 조직(organization)만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모 사업(commissioning programme)으로서 Unlimited(1)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문화 올림피아드' 행사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Rodenhurst, 2013, p.10). 해를 거듭하며 성과를 내온 언리미티드 프로그램은 현재 다섯 개의 목표 아래 다음의 네 개의 사업을 축으로 추진 중에 있다: 메인 공모, R&D 어워즈, 신진예술인 지원, 국제 협력 R&D.

넷째, 평등법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수립하는 〈평등 및 다양성 계획(Equality and Diversity Plan)〉도 빼놓을 수 없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영국 정부를 대리하는 가장 유서 깊고 상징적이며 독보적인 예술진흥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예술진흥기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기관이다. 동 예술위원회는 매 3년마다 영국 문화부와 협약을 맺는데, 예술위원회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기관의 계획안을 입안할 때마다 평등법에 따라 〈평등 및 다양성 계획〉도 발표하고 있다. 예술위는 이 계획에 입각하여 매년 관련 정보를 수집, 공개하고 있으며, 예술위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들 역시 이 계획의 내용을 자신들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공식화, 제도화는 많은 예술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평등과 다양성 의제를 필수적인 전제로 삼게 함으로써 영국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장애예술 현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

4) Unlimited 홈페이지: https://weareunlimited.org.uk/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장애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쉐이프 아츠(Shape Arts)는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이자 국립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 NDACA)를 운영하고 있다. 약 백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NDACA는 영국 장애예술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약 3,500장의 이미지와 구술 인터뷰 영상, 각종 교육 자료와 애니메이션, 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운영하는 '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은 정기적으로 장애예술과 관련한 국내외 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5] 이 플랫폼의 목적은 "뛰어난 장애예술인, 장애예술 단체, 포용적 예술 기관"의 흥미로운 작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예술 기관들이 관객이자 방문객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은 2013년 영국문화원이 EU의 문화프로그램인 언리미티드 악세스(Unlimited Access)와 협력하여 구축한 것으로, 양 기관은 포르투갈,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현지에 맞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Ⅲ. 현장 사례: 영국 장애예술단체의 운영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언리미티드 등으로 대변되는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큰 틀에서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별 장애예술단체나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창작 및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공공 예술 지원을 대표하는 '국가포트폴리오기관(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2015-2018' 사업에 선정된 장애예술 관련 단체를 전수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Disability Arts Online'에 따르면, 이 시기 국가포트폴리오기관에 선정된 16개 대표 장애예술단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알파벳순).[6] 각 기관별로 설립년도와 설립자,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대표적인 운영 및 창

5) http://www.disabilityartsinternational.org
6) https://www.disabilityartsonline.org.uk/Arts-Council-NPOS-2015-2018

작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2〉 '국가포트폴리오기관(NPO) 2015-2018' 선정 단체 목록

캔두코(Candoco), 카루셀(Carousel), 다다페스트(DaDaFest), 데일리라이프(Daily Life Ltd), 대쉬(DASH), 데피니틀리 씨어터(Deafinitely Theatre), 드레이크 뮤직(Drake Music), 익스탄트(Extant), 그래이아이(Graeae), 하트앤소울(Heart n Soul), 로운모우어스(the Lawnmowers), 마인더갭(Mind the Gap), 오일리카트 컴퍼니(Oily Cart Company), 쉐이프(Shape), 스톱갭 댄스 컴퍼니(Stopgap Dance Company), 바이탈 엑스포져(Vital Xposure).

① 캔두코(Candoco)(1991)

캔두코는 1991년 셀레스트 단데커(Celeste Dandeker)와 아담 벤자민(Adam Benjamin)에 의해 북런던 지역에서 설립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댄서들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공연단체로, 7명의 세계정상급 안무가들이 국내외 투어를 이끌며 높은 수준의 춤을 개발하고 공연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런던 올림픽 전달식에서 공연했고, 2012년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에서 '콜드플레이'와 함께 무대에 서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7)]

캔두코는 매우 다채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Cando2 Youth Dance Company'를 운영하는데, 이는 13-25세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댄서들을 위한 것으로 캔두코의 예술가들과 초청안무가들과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캔두코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spire 등의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All Change Arts, Tate Britain, artsdepot, Dreenwich Dance, Platform Islington, 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 그리고 The Place 등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여름 강좌(summer school), 공연 프로젝트, 취향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8)]

② 카루셀(Carousel)(1982)

회전목마라는 뜻을 가진 카루셀은 오스카 브라이트(Oska Bright)에 의해 1982년 브라이튼에서 설립되었다. 카루셀은 학습 장애를 지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7) http://www.candoco.co.uk/about-us/background
8) http://www.candoco.co.uk/learning/projects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서, 초기에는 무용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음악, 라디오, 공연, 디지털 매체, 영화 등을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Junk TV와의 협업으로 2003년 시작된 Oska Bright Film Festival은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단편영화를 보여주는 최초이자 여전히 유일한 영화 페스티벌이다. 현재는 격년으로 진행되는데, 2015년 제7회, 2017년 제8회, 2019년 제9회 영화제에는 3000명 가량의 관객들이 참여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단편 영화와 비디오, 라이브 밴드, 디지털아트, 가상현실 관련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만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오스카 브라이트를 중심으로 카루셀은 수십 년 동안 장애 예술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 다음은 카루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9)]

- The Rock House: 브라이튼에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뮤직 나이트 이벤트로 장애예술인 공연 기회 제공
- Blue Camel Club: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뮤직 중심의 클럽 나이트 운영
- Carousel Radio: 브라이튼의 커뮤니티 라디오 채널인 Radio Reverb에서 매달 한 번씩 라디오 쇼 진행
- Curing Perfect: 인터액티브 온라인 그래픽 소설 앱으로써 대중들이 참여하여 장애의 '치유'에 관해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Carousel Chorus & Strawberry Jammers: 과거 Carousel Singers라고 불리던 합창단을 Jam Tarts Choir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더욱 확대하여 운영
- Creative minds: 학습장애인들이 이끄는 예술분야에서의 리더십, 포용, 협력에 관한 온라인, 오프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서 카루셀이 운영하고 있음
- Nothing About Me Without Me: 지역 초등학교와의 파트너십으로 장애 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다다페스트(DaDaFest)(1984/1990)

1984년 존 맥그라스(John McGrath)에 의해 리버풀에서 Arts Integrated Merseyside (AIM)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다다페스트(1990~)는 영국에서 장애예술의 태동을 이끈 초기 단체인 동시에,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최첨단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장애예술, 특히 청각장애 중심의 예술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다페스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2001년 시작된 '다다페스트 인터내셔널(DaDaFest International)'로서 현재 격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국제 페스티벌을 위해 다다페스트는 National Museums Liverpool, Liverpool Biennial, Liverpool Playhouse, Unity Theatre,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영 다다페스트(Young

9) http://www.carousel.org.uk/what-we-do/

DaDaFest)'를 통해 12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 장애예술인들에게 쇼케이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아직 주목받기 어려운 (예비)예술인들의 기회 확대 및 새로운 예술가 발굴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축제와 프로젝트들을 통해 다다페스트는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현안을 공식적인 이야기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10]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개의 페스티벌은 시간이 흐르면서 높은 수준(quality)을 인정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린 청각장애인들에게 미술, 공연, 글쓰기, 영화제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예술적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다페스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로, 이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11]

- DaDaFest Ensemble: 어린 뮤지션들을 위한 트레이닝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낸 뮤지션들에게는 Young DaDaFest에 참가하는 기회 제공
- Drama Session: 위의 앙상블이 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드라마 세션은 The Everyman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매주 드라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함
- Young DaDaFest: 30세 이하의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일년 간의 작업 결과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 축제는 리버풀의 대표적인 예술 공간에서 진행됨. 두 개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데, Young DaDaFest Music은 Liverpool Philharmonic에서, Young DaDaFest Perform은 Everyman Theatre에서 진행
- DaDaFest International: 높은 예술적 수준과 흥미로운 실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에 관한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 of disability)을 모토로 리버풀 도심 여러 곳에서 한 달여간 진행되는 국제적인 축제

④ 데일리라이프(Daily Life Ltd.)(1995)

데일리라이프는 예술 감독인 바비 베이커(Bobby Baker)에 의해 동런던 지역에 1995년 설립된 예술단체로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파워풀한 예술 창조'를 모토로 삼고 있다. 높은 수준의 참여예술 프로젝트를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공연과 시각예술의 창조, 디지털 작품의 생산과 글로벌 연계, 연구라는 세 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Live & Local(다양한 분야의 예술, 의료, 사회 공공시설에서 지역 이웃의 '전문가' 예술인들에 의한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 생산), Digital & Global(따끈따끈하고 흥미로운 디지털 작품들을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 전역과 세계 곳곳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게 함), Re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12] 데

10) https://www.dadafest.co.uk/what-we-do/
11) https://www.dadafest.co.uk/what-we-do/projects-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일리라이프를 전적으로 장애예술 단체라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장애인들이 주체 또는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주민대상 프로그램에 녹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기반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예술 활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유하는 것과 이를 통한 지역 활동 활성화와 디지털 공유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Artful Measure'라는 혁신적인 사례연구 플랫폼을 통해 관련 사진과 원본 작품, 비디오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13]

⑤ 대쉬(DASH)(1992)

앞서가는 장애인 시각 예술 단체인 대쉬는 1992년 잉글랜드 중서부의 스롭셔 장애컨소시엄의 일부로 출발하였다. 대쉬는 스롭셔(Shropshire) 지역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목받는 장애예술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시각예술 분야 다양한 장르들을 바탕으로 전시와 워크숍 등을 꾸준하게 전개해왔다. 본인들의 역사를 홈페이지 한 화면에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립 및 발전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개인 및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만들어낸 작품들의 목록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14]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의 산출과 축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영국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스롭셔 지역의회 등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대쉬의 주요한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15]

- Cultivate: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시각 예술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향하며, 영국 시각 예술계의 다양성 제고를 목표로 삼음
- Disability Art and Equality Training: 장애 예술인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 악세서블 마케팅 프로그램 등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함
- New Visual Arts Project for Young People: 16–25세의 지역거주 장애인을 대상 워크숍 및 전시 프로그램
- Tu Fewn: 웨일즈 예술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외 장애인 시각예술단체들의 높은 수준의 작품 창작을 위한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함

⑥ 데피니틀리 씨어터(Deafinitely Theatre)(2002)

그 자신이 청각장애인인 폴 가필드(Paul Garfield)에 의해 2002년 런던에서 설립

12) https://dailylifeltd.co.uk/our-work/
13) https://dailylifeltd.co.uk/artful-measures/
14) http://www.dasharts.org/about-us.html
15) http://www.dasharts.org/projects.html

된 영국의 대표적인 청각장애인 극단으로, 데피니틀리 씨어터는 영어와 수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비전은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장애인들의 두려움과 같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비장애인들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갖는 편견을 없애는 것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2002년 영국 Gate Theatre에서 〈Deaf History〉가 매진되는 데 이어 Southwark Playhouse, Soho Theatre, Tricycle Theatre, Unicorn Theatre 등에서 투어를 진행했다. 2012년 10주년 기념 공연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Globe Theatre에서 공연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살펴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연극 지망생이나 배우들을 위한 Deafinitely Youth Theatre를 조직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칭과 형식은 DYT Summer School, DYT Company 등으로 다양하다. 아웃리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또한 허브(the HUB) 프로그램에 파트너 단체로 참여하면서 멤버십을 구축하고 멤버들을 대상으로 Actors Course, Writers’ Group, Industry Insights 등 고급 수준의 워크숍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제공한다. 데피니틀리 씨어터는 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청취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사전공연 토론 그리고 청각장애 인식 훈련(Deaf Awareness Training)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16]

⑦ 드레이크 뮤직(DrakeMusic)(1988/1997)

1988년 아델 드레이크(Adele Drake)에 의해 설립된 드레이크 리서치 프로젝트(Drake Research Projec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Leonard Cheshir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1997년 독립적인 단체가 되었고, 현재 브리스톨, 맨체스터,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17]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음악, 장애, 테크놀로지”라는 세 개의 개념을 파고 들어왔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음악가들과 그렇지 않은 음악가들이 공존하면서 함께 모든 기회와 자극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잉글랜드를 넘어 ‘드레이크 뮤직 스코틀랜드’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곳에서도 역시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ad, Eyegaze, Brainfingers, Soundbeam, Skoog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기기들을 도입하여 사용

16) http://www.disabilityartsinternational.org/artists/profiles/deafinitely-theatre/
17) http://www.drakemusic.org/about-us/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하고 있다.[18]

지난 20여 년간 음악 테크놀로지(music technology)에 집중적으로 몰두해온 결과, 드레이크 뮤직은 상상력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운영해올 수 있었다. 예컨대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인 피규어노트(Figurenotes: 음계마다 특수한 색깔을 지정하여 스티커를 붙이고 연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를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관련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Learning & Participation: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평생교육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 Training & Consultancy: 음악학교나 예술단체 및 공간에 전문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 Research & Development: 예술가들과 기술자들 사이의 간극을 매우는 R&D
- Arts & Collaborations: 전문 예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⑧ 익스탄트(Extant)(1997)

익스탄트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영국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 예술감독(마리아 오쇼디)이 이끌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로 기록되어 있다. 사무실은 런던 남부의 Ovalhouse theatre에 있다.[19] 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주로 런던과 버밍엄, 맨체스터 지역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드라마, 창작, 시, 음악, 노래, 무용 등의 스킬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이 워크숍은 1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훈련과 네트워킹을 통한 시각 장애예술가와 지망생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개발 기회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훈련이며 다른 하나는 단원들이 관객에게 소통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말이나 글을 넘어서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연구, 개발, 작품 창작, 투어, 교육,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력 기관인 PunchDrunk, Feul, Science Museum, 왕립 청각 장애협회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로봇 실험 연구소 GrabLab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20]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공연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과 기술의 활용은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어 혁신적(ground-breaking)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협업적, 총체적, 독창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21]

---

18) https://drakemusicscotland.org/what-we-do/
19) https://en.wikipedia.org/wiki/Extant_Theatre_Company
20) http://www.disabilityartsinternational.org/artists/profiles/extant/
21) http://extant.org.uk/training

많은 주목을 받아온 'Train the Trainer course'는 시각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심화 트레이닝 코스로 3일간의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Venue Awareness Training programme'은 잉글랜드 미드랜드 지역의 공연장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⑨ 그래이아이(Graeae)(1979)

나빌 샤반과 리차드 톰린슨이 1979년 런던에서 설립한 그래이아이는 그 풍부한 역사는 물론 예술적 수월성과 사회적 포용성 모두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장애예술 극단이다. 공동 설립자인 배우 샤반에 따르면, 그래이아이는 애초에 "높은 수준의 예술적 수월성을 갖춘 전문 극단"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신화를 혁파하고 대중들의 잘못된 태도와 오해를 바꾸는" 것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수화, 자막 및 오디오 설명의 독창적인 통합, 장애인 및 비장애예술가의 협업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그래이아이의 작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청각 장애인 및 장애예술가가 이끄는 극단 중에서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래이아이는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세대 예술가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Peter Blake 경, Jenny Agutter, Richard Wilson OBE, Sadie Frost를 비롯한 많은 유명 아티스트, 감독 및 배우의 후원으로 영국 및 해외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22]

- 제작 연계 교육 프로그램: 그래이아이는 모든 작품 제작을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컨대 2018년에는 상이군인들에 대한 공연물인 〈This is Not For you〉와 연계한 프리 리허설을 개최하고, 특정 기간 동안 런던의 초중고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23]
- Dare You: 그래이아이의 예술감독인 Jenny Sealey가 운영하는 '포용적 리더십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예술단체를 위한 조직 개발 프로그램으로 열두명 이내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이틀간 집중적인 교육 진행
- Ensemble: 차세대 연극 제작자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배우들을 준비시키기, 워크숍 진행법, 고전 및 현대 텍스트 접근하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연극 만들기, 기술적인 역량 갖추기 등 다양한 내용을 전수함
- The Rollettes: 7세에서 16세의 Graeae's Young Artistic Advisors(어린이/청소년)가 이끄는 창의 워크숍이자 연극 제작 프로그램으로 1년에 두 차례 공연 진행
- Hackney Youth Partnership: 매년 2월에는 지역의 장애인들과 Huddleston Centre, Immediate Theatre와의 협업을 통해서 Hackney Youth Partnership Theatre를 운영하고 공연을 진행함
- Artistic Residencies 프로그램: 버밍엄에서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배우와 감독, 작가들에게 광범위한 숙박 레지던시 참여 기회 제공하고 있음

22) http://graeae.org/our-work/#
23) http://tinfy.org/education/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래이아이는 뛰어난 연극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평단의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This Is Not For You〉, 〈Our Country's Good〉, 〈The Iron Man - free walkabout〉, 〈#SugarWater〉 등이 있다.[24]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연극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⑩ 하트앤소울(Heart n Soul)(1987)

피노 프루미엔토와 마크 윌리엄스(예술감독)에 의해 1987년 런던에서 설립된 하트앤소울은 유서 깊은 장애예술단체로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힘과 재능을 믿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라이브 이벤트, 크리에이티브 세션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해 연간 3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수입의 약 3 분의 1 가량을 지원 받고 있으며, 티켓 판매 및 기타 근로 소득, 자선 기부금 등으로 남은 금액을 충당한다. 2016년 뮤직 티쳐 어워드(Music Teachers Awards Excellence for SoundLab)에서 수상하는 등 명성이 높은 단체이며, 그들의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토크쇼를 녹음한 내용은 London Metropolitan Archive에 영구 보존이 결정되었다.[25]

하트앤소울은 지난 30여 년간 런던에서 진행해온 여러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핵심적인 브랜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다. 아래는 주요 프로그램을 기술한 것이며,[26] 이외에도 하트앤소울 합창단 등 다수의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한다.[27]

- Allsorts: 18세 이상 학습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진행되는 창의적인 예술 세션
- Do Your Own Thing: 10–25세 사이 학습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창의적인 예술 세션 진행
- The Beautiful Octopus Club: 모두에게 열려있는 멀티미디어 클럽 나이트 행사
- The Squidz Clu: 10–25세 사이의 학습장애 가진 젊은이들과 그들의 친구, 가족을 위한 클럽 나이트 행사
- Heart n Soul's SoundLab: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음악 제작 프로젝트

⑪ 로운모우어스(the Lawnmowers)(1986/2001)

1986년 다섯 명의 학습장애인들이 처음 그룹을 결성한 후 2001년 독립 연극 단체로 재탄생하였다. 잉글랜드 동북부의 뉴캐슬 인근 게이츠헤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24) http://graeae.org/work-category/productions/
25) http://www.heartnsoul.co.uk/category/about/details/who_we_are
26) http://www.disabilityartsinternational.org/artists/profiles/heart-n-soul/
27) http://www.heartnsoul.co.uk/whats-on

학습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극 단체이다. 로운모우어스는 지난 29년 동안 '미래, 정의, 평등한 사회'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 국가, 국제적 활동을 펼쳐왔다. 학습장애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왔다. 학습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연구활동, 연극 투어 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디오, 책자, DVD, 여름 강좌를 만들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습생 제도 역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28]

로운모우어스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창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Daytime Groups, Evening Groups, Youth Theatre로 나누어 볼 수 있다.[29]

- Daytime Groups: Theatre for Change, Krocodile Krew, The Fool Ensemble, Outreach Team, Kulture Krew, Find Your Voice, Hip Hop Academy 등 연중 내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낮 시간 프로그램임
- Evening Groups: Monday Club, Focus Group, Moving Styles의 세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대에 진행됨
- Youth Groups: Youth Theatre와 Lawnmowers Hip Hop Skool이 11-17세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⑫ 마인더갭(Mind the Gap)(1988)

'대담한, 최첨단의, 세계 수준'(Bold, cutting edge, world class) 극단을 꿈꾸는 마인더갭은 1988년, 브래드포드에서 팀 휠러(Tim Wheeler)와 수잔 브라운(Susan Brown)에 의해 설립되었다. 마인더갭은 영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학습장애인들의 극단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동등하게 훈련받고 존중받고 고용되는 세계를 꿈꾸면서, 지역과 국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객들을 흥분시키고 놀라게 할뿐 아니라 도전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예술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여러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포괄하는 것이다.[30]

연구와 창작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유스 프로그램, 지역 유산 프로그램, 국제 협력 프로그램 등 마인더갭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작 및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31]

---

28) http://thelawnmowers.co.uk/content/about-us
29) http://thelawnmowers.co.uk/funding
30) http://www.mind-the-gap.org.uk/about/
31) http://www.mind-the-gap.org.uk/projects/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pi.or.kr

- Daughters of Fortune : 2015년 이래로 장애인 학습자와 부모를 탐구하는 흥미롭고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로서 발견된 결과물을 예술 작품 창작으로 연결시킴
- Youth Music: 95,115 파운드에 달하는 Music Foundation의 기금 덕분에 West Yorkshire 전역의 배움이 어려운 젊은 장애인들(11세 이상)의 음악적 역량을 개발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ONTAINED : 연극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큰 프로젝트로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 전시 등 각 구성요소별로 지역, 국가, 세계에서 관련 인력간의 지속적 관계를 쌓게 하는 공연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Crossing the Line : 스웨덴의 Moomsteatern, 프랑스의 Compagnie de L'Oiseau Mouche와 마인더갭이 협약을 맺어 진행한 2년간의 소규모 협업 프로젝트로서 EU의 Creative Europe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각자가 구축해온 학습장애 관련 예술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 Magna Carta on Trial : Magna Carta의 유산들을 창의적으로 연구해온 Bradford의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진행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로서 단편 영화 제작, 스쿨 워크숍 등으로 구성됨

⑬ 오일리카트 컴퍼니(Oily Cart Company)(1981)

1971년 글래스고 Citizen's Theatre에서 만난 팀 웹(Tim Webb)과 아만다 루이스(Amanda Lewis)는 1981년 런던에서 오일리카트 컴퍼니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영국 전역의 학교와 공연장에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공연을 해오고 있다. 오일리카트 컴퍼니는 영아와 어린 중증 다중 학습 장애자들, 자폐아, 시각 및 청각 장애아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는 독특한 공연단체이다. 중중 장애인과 자폐아동 같은 특수한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 치료 수영장, 트렘폴린, 비눗방울, 종이부채, 향수스프레이, 자외선 불빛 같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기술들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32]

독특한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중증 장애 아동과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연자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Arts Award Supporter의 런던 지부에서는 청년들이 오일리카트 컴퍼니의 연습이나 도구, 의상 제작에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을 방문할 때는 미리 멀티미디어 준비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미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도와주며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 활동을 스스로 전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오일리카트 컴퍼니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산하 런던위원회, Wandsworth 위원회 등 총 15개의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Apples and Snakes 등 9개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33]

---

32) http://www.oilycart.org.uk/about_us

33) http://www.oilycart.org.uk/about_us/funders_partners/#funders

⑭ 쉐이프(Shape)(1976)

1976년, Gulbenkian Foundation의 후원을 통해 지나 레벳(Gina Levete)에 의해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의 정치적 행동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장애예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단체이다.[34] 쉐이프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실천과 지식, 그리고 학습을 진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당한 숙련 인력으로서, 장애인들이 리더로, 예술가로, 관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이프는 국립장애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 NDACA)를 운영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언리미티드프로그램을 아츠어드민(Artsadmin)과 함께 공동 운영하였다.

쉐이프는 단순히 개별 단체라기보다는 영국의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아카이브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체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예술단체들을 위한 접근성 등과 관련한 감사(audi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예술가 네트워크 서비스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층위에서의 창작활성화 프로그램도 주목할 것들이 많다.[35]

- Shape Open: 장애를 테마로 하는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매년 최고의 전시관에서 개최하여 상호간의 관점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음
- 아담 레이놀즈 장학 재단: 조각가 아담 레이놀즈를 기념하는 장학재단으로 중견(mid-career) 장애미술가에게 지원금과 3개월간의 레지던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함
- Disability Equality Training: 영국 정부의 creative case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단체는 물론 모든 직업현장에서 장애인들을 예술가, 청중,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돕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⑮ 스톱갭 댄스 컴퍼니(Stopgap Dance Company)(1995)

잉글랜드 남동부 서레이(surrey)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예술감독 비키 발람(Vicki Balaam)에 의해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1997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문 무용단체로 발전하였다. 스톱갭 댄스 컴퍼니는 "협업을 통한 통합"(integr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영국에서 처음으로 학습장애인, 신체장애인,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 하는 작품을 만든 단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그처럼 다양한 무용수들이 테크닉

34) https://en.wikipedia.org/wiki/Shape_Arts
35) https://www.shapearts.org.uk/vision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과 안무를 높은 수준으로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6] 초기에는 초빙 안무가들의 도움으로 작품들을 구성했으나 루시 베넷(Lucy Bennett)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안무를 개발하면서 현재 최정상급 장애무용 단체로 자리를 잡았다.

스톱갭 댄스 컴퍼니는 전문가와 참여자를 위한 창의적인 학습프로그램과 출판을 통해 자신들이 축적한 전문지식을 다음세대의 인재들 및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래는 스톱갭 댄스 컴퍼니의 대표 운영 프로그램이다.

- SG2 Company: Stop Gap Company의 지망생을 견습시키는 곳으로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Youth Companies: Guildford Youth Dance Company, Farnham Youth Dance Company 등 매주 교육이 진행되는 유스 그룹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크리스마스에 모여 쇼케이스를 진행함
- Artists in Training: 한 달에 한 번 무용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Choreographic Lab: 영국 남부에서 해마다 봄이나 여름에 전 세계의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Stopgap의 포용적 문화와 독창성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
- Open class: 매주 수요일 오후 Christ's College Guildford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수업을 제공함[37]
- Publications: 〈Inclusive Dance Resource Pack - A guide to Stopgap's responsive teaching practice〉 등 장애인 무용 관련 출판물과 DVD 지속 발간

⑯ 바이탈 엑스포져(Vital Xposure)(2011)

바이탈 엑스포져는 장애인 아티스트 쥴리 맥나마라(Julie McNamara)가 2011년 런던에서 설립한 순회 연극 단체로서, "청각장애 및 장애인들의 숨겨진 목소리를 확산하고 주류 사회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과소재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38] 다른 단체들과 달리 아직 역사가 짧지만, 설립자인 맥나마라의 다양한 재능과 카리스마로 인해 그녀의 리더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젠더 및 장애 관련 운동가인 동시에 희곡작가, 연극 연출가, 제작자, 배우, 시인으로서 장애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이다.[39] 그녀의 리더십 아래 바이탈 엑스포져는 지역사회의 주변적이고 믿기 힘든 비화들을 수면위로 끄집어 올려서 다루는 데 능숙하며, 목소리 해설과 함께 강한 이미지의 시각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 공연 프로그램, 독창적인 연극, 멘토링 및 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바이

36) https://www.stopgapdance.com/about/history
37) https://www.stopgapdance.com/creative-learning
38) http://vitalxposure.co.uk/
39) https://en.wikipedia.org/wiki/Julie_McNamara

탈 엑스포져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40]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장애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경력 초기 단계의 연수생들에게 맞춤식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고, 창조산업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 된 유급 멘토와 연수생을 매칭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다.

Ⅳ. 사례연구 시사점

이상에서는 영국 장애예술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의 장애예술 진흥 정책의 핵심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영국을 대표하는 16개 장애예술 단체의 핵심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정책 흐름 및 현황에 주목해보자. 첫째로, 영국 장애예술 활동과 장애예술 정책이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일종의 긍정적인 공진화(co-evolution)를 일으켜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 두 가지 영역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Rodenhurst, 2013), 실제로 그 이후로 장애예술 정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7-2018 한영상호교류의 해' 프로그램에서 장애예술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인 교류에서도 장애예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기점이 되었다. 정책과 현장이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공유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사회적 성과와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영국에서 장애예술 활동과 장애예술 정책의 시너지는 신사회운동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모델'과 '창조적 모델'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사회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내에서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선진국 진입'을 계기로(외교부, 2021), 사회적 인식 공감 제고 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장애예술 활동과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40) http://www.disabilityartsinternational.org/artists/profiles/vital-xposure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둘째로, 영국의 장애예술 정책 현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은 영국문화부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속에 '다양성과 평등성'을 중요한 의제로 삼으면서, 전방위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장애인 예술'과 '장애인 권익'만을 강조한다면,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영국 사회에서는 2010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법제화를 근거로 소수자 그룹들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존중 및 진흥이 문화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었으며, 그 중 가장 가시성이 높은 영역으로 '장애예술'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운위되고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확실한 명분과 방향이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사례(Creative Case for Diversity)'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지원 받는 기관들의 다양성 관련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업 선정에 반영하게 되면서, 전국의 모든 문화 관련 단체와 기관들에 '인식 제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인력 채용이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직접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로, 2015-2018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국가포트폴리오기관(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 사업에 선정된 장애예술 단체들의 설립년도, 활동 지역, 주요 분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서 깊고, 다종다양한 장애예술 단체들이 '장애예술 생태계'를 튼실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장애예술 단체들이 미학적 수준에서 비장애예술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특히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적 · 국제적 차원에서 고퀄리티를 지향하고,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장애예술단체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 자신들을 "세계 수준(world class)"이라고 부르는 데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대표 예술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만 장애예술계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 영국 대표 장애예술단체들의 특화분야

단체명	설립년도	설립자	근거지역	특화 분야
캔두코	1991	셀레스트 단데커 & 아담 벤자민	런던	무용, 공연
카루셀	1982	오스카 브라이트	브라이튼	예술교육, 디지털 미디어 (학습장애)
다다페스트	1984/ 1990	존 맥그라스	리버풀	축제(비엔날레), 음악과 공연
데일리라이프	1995	바비 베이커	런던	참여예술, 생활예술
대쉬	1992	스롭셔 장애 컨소시엄	스롭셔	시각예술
데피니틀리 씨어터	2002	폴 가필드	런던	연극, 공연 (청각장애)
드레이크 뮤직	1988/ 1997	아델 드레이크	브리스톨, 맨체스터, 런던	음악, 테크놀로지
익스탄트	1997	마리아 오쇼디	런던	공연, 드라마, 문학 (시각장애)
그래이아이	1979	나빌 샤반 & 리차드 톰린슨	런던	연극, 공연
하트앤소울	1987	피노 프루미엔토 & 마크 윌리엄스	런던	디지털 음악, 클럽 음악(학습장애)
로운모우어스	1986/ 2001	5인의 학습장애인과 제랄딘 링(예술감독)	게이츠헤드	연극, 공연 (학습장애)
마인더갭	1988	팀 윌러 & 수잔 브라운	브래드포드	연극, 공연, 이벤트 (학습장애)
오일리카트 컴퍼니	1981	팀 웹 & 아만다 루이스	런던	공연, 예술교육 (장애아동)
쉐이프	1976	지나 레벳	런던	시각예술, 아카이브, 예술경영
스톱갭 댄스 컴퍼니	1995	비키 발람	서레이	무용, 공연
바이탈 엑스포져	2011	쥴리 맥나마라	런던	연극, 순회공연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층위에서 영국의 대표 장애예술단체들의 현장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역 예술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 사회 기관 등 비장애 단체와 '공간 제공', '자금 지원',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모양새로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및 운영 프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i.or.kr

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파트너십 확장 전략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예술 단체의 홍보나 활동 영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하트하트 재단이나 한빛예술단이 이와 같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확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군소 장애예술단체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영국 장애예술단체의 운영 프로그램 사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흔적 또는 성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위의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의 16개 단체들 중에서 7개 단체가 리버풀, 맨체스터, 브리스톨, 게이츠헤드 등 지방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장애예술단체의 활성화는 비단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활동성 있는 장애예술단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된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문화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최근 문화정책의 지역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령, 5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는 '문화도시' 사업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문화정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일으키면서, 지역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예술계에서도 지역거점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예술단체의 지원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별 대표 단체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연, 시각예술, 축제, 디지털 음악 등 여러 장르에서, 또한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장애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 이들의 대표 프로그램에는 공통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육성이 빠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Youth Company'라는 이름으로 미래 예술 인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과 숙련 기술을 갖춘 장애예술 후속 세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와 조응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단체들과 단체의 리더들이 일종의 '스타 마케팅'을 추진할 정도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계에 갇히는 대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페스티벌'의 개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하는 '클럽 나이트' 프로그램,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장애예술단체들이 이러한 사업들

을 통해 자신들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스타마케팅과 팬덤 경영을 꿈꿀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Ⅴ. 맺음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정책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삼게 된 것은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해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설립되면서 흩어져 있던 장애예술단체들의 구심점이 생기기도 했다. 2006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관을 구심점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장애인 지원사업이 국고 5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독립되는 일이 일어났다. 2009년에는 기존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 · 개편되면서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한편 2013년에는 장애예술인들의 거센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예술' 관련 업무가 체육국에서 예술국으로 이관되었으며, 2015년에는 대학로에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이음센터가 설립되고 장애예술 전담 기관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장애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위상은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향상되어왔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각 장르별로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축적해온 과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진흥 노력을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장애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통과는 지금까지 줄곧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던 체계적인 정책 기획 · 실행 · 환류 체계의 구축 및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예산의 배정 · 집행을 통해 장애예술계의 도약을 가져오리라 기대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예술의 '정책적 도약'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국제사회 문화정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현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본고는 우리나라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장애예술 정책 및 현장의 사례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살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책적 흐름에 대한 고찰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통과 이후 관련 정책의 지향이 '사회적 모델'과 '창조적 모델'의 시너지를 내는 데 정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책적 현황에 대한 고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관련 공공기관 및 예술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의 다양성 진흥을 위한 구속력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해주었다. 16개 대표 장애예술단체의 사례들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 지역거점 단체 육성의 필요성 등은 물론이고, 역량 있는 단체의 유스 컴퍼니 육성 지원, 공공 지원금을 넘어서 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이를 바탕으로 한 팬덤 형성과 스타 마케팅 추진 등의 구체적인 벤치마킹 지점들을 여럿 제시해주었다. 영국의 장애예술단체를 둘러싼 다층적인 문맥과 정책 및 현장의 주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 관련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국의 16개 주요 장애예술단체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단체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개별 단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영국 외에도 호주나 캐나다 등 장애예술 정책에 최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소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2018).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1), 81-100.

김경 (2017). 지적장애학생 대상 미술치료 동향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364-384

남영림 (2015). 한국 미술교육에서 장애 담론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 16(3), 1-18.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만드는 문화 2020~2022.** 문화체육관광부(미발표).

박근화, 한정임, 이충희, 윤지연, 안혜경 (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심진예, 박종빈, 김용탁, 장숙현 (2020).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채린 (2020). 혁신적 포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론(試論)적 논의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0, 89-127.

옥정달, 유장순 (201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159-178.

외교부 (2021).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외교부 보도자료** (21.07.04).

이행봉 (1994). 신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지역사회연구.** 2, 121-156.

전병태 (2017).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지영 (2021).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논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2, 195-215.

정연백, 이석원, 이재완 (2014). 문화예술복지정책에서의 장애인의 역할과 체감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91-116

정종은 (201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문화정책논총.** 27(1), 122-145.

정종은 (2014).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 **문화정책**, 1, 15-3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정종은 (2019). “협업은 피할 수 없고, 융합은 필수적이다” - 캐롤 맥파던 영국문화원 프로그램 매니저 인터뷰. **웹진 이음.** 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돈문 (1995).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 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경제와사회.** 28, 10-54.

조임영 (2011). 장애차별의 개념과 작동- 영국의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장애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37, 165-205.

조임영 (2015). 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동아법학.** 66, 557-593.

조현성, 최보연, 정병은, 전동일, 김윤경 (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김현경, 김규찬, 이정희, 고귀염, 정종은 (2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주윤정, 정병은, 백기영, 정종은, 최선영, 문영민, 김원영 (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홍성수 (2011). **영국의 차별금지법제 연구 – 2010년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Abbas, J., Church, K., Frazee, C., & Panitch, M. (2004). *Introducing disability arts and culture.* Toronto: Ryerson RBC Institute for Disability Studies Research and Education.

Arts Access Victoria. (2015). *Beyond access: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 Literature review.* South Melbourne: Arts Access Victoria.

Arts Council England. (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London: ACE.

Hall, C., & Thomson, P. (2007). 'Creative partnerships? Cultural policy and inclusive arts practice in one primary school'.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3),* 315-329.

Powell, M. (2010). The inclusive aesthetic: inclusion is not just good for our health, it is good for our art. *Local-Global: Identity, Security, Community, 7,* 198-208.

Rodenhurst, K (2013). Appendix 2 | Case studies: Arts and disability. *London 2012 Cultural Olympiad evaluation*, Liverpool: Institute of Cultural Capital.

Shakespeare, T., & Watson, N. (2001). Making the Difference: Disability, Politics, and Recognition. Albrecht, G/, Seelman, K., & Bury, M. (Eds.).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Thousand Oaks, CA: Sage.

Vasey, S. (1991). *Disability and Culture: An Introduction to Key Issues and Questions.* Paper presented at the Disability Arts and Culture Seminar. Willesden Green library Centre (26. November).

Exploring the Activation Policy for Disability Arts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British Cases of the Policy and Field

Chung, Jong-Eun
Dept. of Culture & Contents, Sangji University, Assistant Prof.
Choe, Boyun
Dept. of Culture & Contents, Sangji University, Assistant Prof.

【Abstract】

Along with the increased interest in Disability arts in the international field of cultural policy, the importance of disability arts policy in Korean cultural policy has recently been emerging conspicuously. The direct evidence i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Artist with a Disability> in 2020. As a result, one may see a dramatic shift from relatively small interest to active engagement in both 'artist with a disability' and 'disability arts organization.' This shift is more visible in the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governmental plans than any other areas. However, there is not enough data or cases with which Korean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can refer to in order to make suitable and feasible policies for the artists or arts organizations with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s and ways of the activation policy for Korean disability arts organizatio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British cases that has led global trends in terms of not only arts policy but also disability arts policy. In doing so,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ritish disability arts policy and then analyz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its current version. The researchers also explored the cases of 16 disability arts organizations that were chosen and funded by Arts Council England as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2015-2018.'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ading organizations in British disability arts ecology, their key features and major programmes were scrutinized. By synthesizing the findings from case studies on both the policies and fields of British Disability arts, the researchers sought to suggest how to build up the activation policy for Korean disability arts organizations.

■ key words : Act on Supporting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Artist with a Disability,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Artist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rts Organization, British Policy of Disability Arts, Arts Council England

논문투고일 : 2021. 10. 15.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15-139.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의 범주화: 개념도 연구법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류청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천되고 있는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상담가 27명이 선정되어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개념도 연구법이다.

먼저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에 대한 진술문을 생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면접하고, 축약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최종진술문을 연구참여자들이 분류하고 중요성에 대해 평정하였다. 분류 및 평정자료에 대해 다차원척도분석, 위계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념도 프로그램인 '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의 개념을 구성하는 83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구성요소는 구조와 과정이라는 2개의 차원과 12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자립생활 현장에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동료상담 개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장애인, 동료상담, 자립생활센터, 개념도 연구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P01-201612-22-003).

Ⅰ. 서 론

한국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은 1998년 정립회관이 장애인 동료상담을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함께 집중강좌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장애인 동료상담은 2001년 정립동료상담학교와 전국순회 세미나를 통해 자립생활 이념을 구현하는 대표적 당사자 활동으로 확산되었다(황백남, 2011).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재평가상담을 기본으로 한 동료상담을 받아들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전수된 동료상담을 통해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임파워먼트 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의 정치적 성과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도화(2007),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2007),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08) 등이었다. 이뿐 아니라 2001년 1개였던 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현재 202개[1]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국내 장애인 동료상담은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의 이념과 방법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집합적 역량강화의 동력으로 평가받는다(이성미, 2013; 정지훈, 2013).

국내 장애인 동료상담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동료상담 평가에서 '서비스의 질관리'가 요구되었고, '자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동료상담사협회가 시작되었다(에이블뉴스, 2015).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 동료상담의 법제화는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들 사이에 다양한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동료상담가들 사이에서 무엇을 동료상담이라고 볼 것이며, 어떻게 동료상담가를 양성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더군다나 동료상담이라는 용어는 관련실무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도 동료상담, 또래상담, 동료지원, 동료멘토(mentor) 등으로 다양하다(강근모 · 이준기, 2015; 이창대 · 박지혁, 2015). 동료상담은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Vriend(1969)의 동료상담 연구를 통해 상담학에서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1960년대 미국 상담학의 준전문가 운동을 배경으로 학교상담 장면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동료학생들을 조력하기 위해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제시하였다(Nenortas, 1987). 이후 1970년대 초부터 과거의 의학적·치료적 상담모형을 대신하여 '성장 및 예방 모형

1) 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라는 두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두 연합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립생활센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growth and prevention model)'과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등의 개념이 새롭게 상담학계에 도입되면서 동료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양미진 외, 2009; Kehayan, 1987). 동료상담은 이러한 실제적인 요구에 따라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지금은 상담, 교육, 종교, 의료, 군사, 기업, 인권 및 장애영역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윤가현 · 김은주, 2010; 윤재영 외, 2013; Drabble et al., 2016).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천되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상담학적 관점으로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동료상담이 상담학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운동적, 사회서비스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담학적 차원은 장애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와 동료 사이의 상담적 접근을 통해 심리정서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고, 사회운동적 차원은 장애의 문제가 사회환경의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자각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환경의 변화를 위해 임파워먼트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서비스적 차원은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라는 자립생활 목표를 위해 구성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동료상담의 정의와 용어들이 합의되기 어려운 이유는 실천되는 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위상이 점차 자원봉사를 하는 준전문가에서 사회서비스제공자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동료상담이 발전하면서 법제화과정을 거치는 경우 장애인 동료상담이 자격화 논쟁에 빠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의 개념적 혼란이 발생된다. 자조집단 내의 코카운셀링의 전통은 대등성이라는 자립생활의 주요 원칙을 대표한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조직화되면서 장애인 동료상담은 조직목적을 위한 서비스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료상담가는 대등성을 전제로 한 이용자와의 관계가 요구되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경계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둘째, 장애인 동료상담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사회참여라는 자립생활 목표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을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본다. 이 관점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을 실천할 경우 권익옹호가 강조되며, 장애인 동료상담가는 집합적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해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고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조력한다(쯔쯔미 아이코, 2014; Redford and Whitaker-Lee, 1999;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2011).

반면, 장애인 동료상담을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동료상담은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심리 · 정서적 수단이며 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는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나 개인상담 등이 강조되고, 장애인 동료상담가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된다(Repper et al., 2013). 즉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변혁인 반면, 장애인 자립생활의 서비스차원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중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대립적 입장[2]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발달과정에서 필연적이지만,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의 특징을 대표한다.

셋째, 장애인 동료상담은 실천되는 자립생활센터의 조직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집단 장애인 동료상담과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방문상담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고(Shreve, 1991), 권익옹호 중심의 장애인 동료상담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Brown, 1999). 또한,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자조 네트워킹을 위한 `FRIENDS' 프로그램 등도 진행되었다(Wilson et al., 1999). 최근 미국에서는 신체장애인들의 참여적 실행연구를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10주 전후의 집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Ravesloot et al., 2007). 또한, 직업재활 영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Ipsen et al., 2012). 이와 같이 장애인 동료상담은 상담적 방법을 활용하지만 인권, 건강, 직업재활 등의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교육, 멘토링, 코칭 등의 방법들과 융합되면서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들과 경계의 모호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료상담의 개념은 동료상담가의 위상, 동료상담에 대한 관점,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 동료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동료상담의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성숙진, 2002). 최근까지 국내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연구는 동료상담가의 역할(윤재영 외, 2013), 공감기술(이성미, 2013), 동료상담가와 내담자의 상담경험(한채민 · 김영근, 2018) 연구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들의 의의는 문헌으로만 소개되었던 동료상

2) 자립생활 현장의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는 자립생활을 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로 볼 것인가 혹은 이 둘을 어떻게 균형지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있다. 국내 자립생활센터협의체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활동의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차이라 할 수 있다(윤재영, 201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담의 개념을 동료상담가들의 현장경험에 기반하여 나타내었고, 동료상담가의 역할과 기술 등 특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기반으로 한 동료상담의 개념체계를 전체적 관점에서 살피지 못했고, 개념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여 동료상담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 동료상담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이 실천적이고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동료상담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천되고 있는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개념도 연구법

개념도 연구법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상담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동료상담의 개념을 탐색하고 구조화하는데 적절하다. 이 연구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분야에서 탐색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하며, 그 과정에서 이론이나 연구자의 시각이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구대상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개념도 연구법이란 일련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집단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구조화된 개념들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법은 참여자 집단의 논의를 구조화하고 촉진하는 질적인 과정과 논의된 주제에 대한 개념구성을 통계분석 등을 통해 개념지도로 보여주는 양적인 과정을 혼합한 통합연구방법이다. 이 연구법의 장점은 개념화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요구와 인식을 고려하도록 도와주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적 합의과정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는 것이다(Kane and Trochim, 2007).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의 6단계의 연구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는 준비단계로,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여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의 개념이 드러날 수 있는 초점질문과 평정질문이 선정된다. 2단계는 최종진술문 도출단계로, 생성된 초점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진술문 단위로 수집하고,

수집된 진술문들을 편집, 정리한 후 자문을 받아 최종진술문을 확정한다. 3단계는 진술문 구조화단계로, 참여자들이 확정된 최종진술문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 후, 적절한 범주명을 정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평정질문에 따라 진술문을 평정한다. 4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로, 분류된 각각의 진술문들을 개념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차원척도분석과 범주분석을 실시한 후, 개념지도를 그린다. 개념지도를 바탕으로 범주의 수를 결정한 후 범주의 이름을 정한다. 5단계는 범주의 수와 이름을 결정한 후 분류 참여자들의 검토를 받는다. 마지막 6단계는 구조 해석 단계이다. 연구자는 개념지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범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동료상담 개념의 범주화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절차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동료상담 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장애인 동료상담의 개념에 대한 진술문 생성, 분류 및 평정을 위해 동료상담가들을 비확률 목적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동료상담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대상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는 전국에서 27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다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과정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동료상담가들이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3]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제2조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7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	44.4
	여		15	55.6
연령	30대		5	18.5
	40대		18	66.7
	50대		4	1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14.8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17	63
	대학원 이상		6	22.2
동료상담가 활동기간	5년 미만		2	7.4
	5년 이상–10년 미만		14	51.9
	10년 이상–20년 미만		11	40.7
장애유형과 등급	뇌병변장애	1급	7	25.9
		2급	1	3.7
	지체장애	1급	15	55.6
		2급	2	7.4
	시각장애	1급	2	7.4
직책	직원		13	48.1
	운영자(소장)		14	51.9
근무형태	시간제		2	7.4
	전임제		25	92.6

2) 진술문 생성

장애인 동료상담의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선정된 동료상담가 27명과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개별면접은 2017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개별면접 전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50분에서 100분가량이었다. 면접에 사용된 초점질문은 “동료상담가로서 당신은 장애인 동료상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핵심어추출법을 통

해 축약 및 편집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에 의해 제안된 핵심어추출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아이디어 카드와 축어록에 나타난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을 밑줄로 표시해가면서 읽은 후, 이를 한글문서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이 언급한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각 진술문을 코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상담가가 ○○하는 것'의 코딩체계를 만들었다. 이것은 각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을 ○○안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차적으로 이러한 코딩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각 진술문에 대한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핵심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그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박사 1인과 박사과정 수료 2인이 참가하였고, 각 아이디어는 147개로 그룹화 되었다.

셋째, 147개로 그룹화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슷한 아이디어끼리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때 사회복지 박사 1인과 박사과정 수료 2인이 참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89개의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넷째, 연구자는 89개의 핵심개념에 대한 진술문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교수 1인의 피드백을 받아서 진술문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다섯째, 참여자의 생각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7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축약, 편집, 종합된 총 83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3) 진술문 구조화

진술문의 구조화를 위해 분류 및 평정작업은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 27명 전원이 참여하였다. 83개의 진술문을 유사한 진술문끼리 묶는 분류작업과 진술문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평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분류 및 평정은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류작업은 진술문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여자들이 분류를 마친 후에는 분류한 범주에 대한 명명을 하도록 요청하고 83개의 최종진술문이 모두 범주화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분류 및 명명 작업에는 개인당 평균 120분-15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27명 전원이 평정에 참여하였으며, 평정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각 진술문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척도 형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때 중요성은 동료상담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4) 개념도 분석

분류와 평정작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념도 프로그램인 `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연구결과와 해석과정에 사용되는 진술문 목록, 포인트지도, 범주지도, 범주평정지도 등과 같은 결과를 산출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과정과 절차에 따라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에 대한 목록화, 포인트지도, 범주지도, 범주평정지도 등을 분석하여 결과에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주의 수와 범주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교수 1인, 사회복지 박사 2인, 사회복지 박사과정 수료 3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범주명에 대해 연구참여자 27명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개념도의 주요 결과는 포인트지도(point map), 범주지도(cluster map), 범주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로 나타날 수 있다. 지도의 생성은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집단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명확하게 한다(Rosas and Kane, 2012).

1. 범주지도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지각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에 관한 진술문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인트지도를 바탕으로 한 범주지도를 만들어 시각화하였다. 먼저, 포인트지도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문을 분류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 진술문들을 X-Y축에 이변량 분포시켜 점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평정과정에서 입력된 자료를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분류한 것이다. 각각

의 포인트 간의 거리는 진술문간의 유사성이 높을 경우 서로 가깝게 위치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멀리 위치한다. 지도상의 위치가 가까운 포인트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이들 진술문 간의 관계를 유사하게 인식하며, 진술문들이 범주로 모여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ane and Trochi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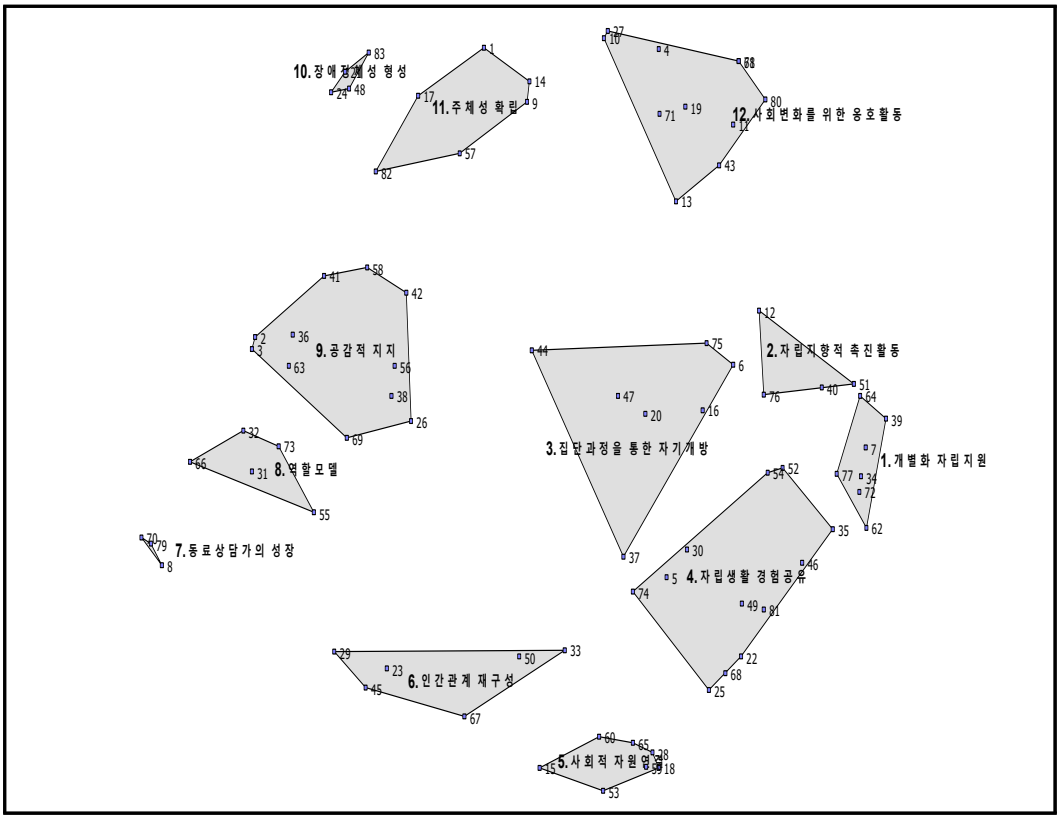
이후 범주지도는 포인트지도 상의 진술문들을 범주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위계적 범주분석(hieratchical cluster analysis)은 포인트지도 상에 나타난 진술문들 간의 관계를 트리구조에 근거해 분화시키면서 진술문들을 범주화하는 것이다(Rosas and Kane, 2012). 본 연구에서는 범주의 수를 대략 20개에서부터 1개씩 줄여나가며 범주가 구성되는 내용을 살펴본 후 각 범주간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범주의 형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범주지도의 경우에는 참여자나 동료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범주의 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범주의 모양을 설정한다.

또한, 다차원척도법에 따른 문항들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stress) 값[4]이 유효한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는 0.206 ~ 0.365 사이에 스트레스 값이 존재할 때 연구결과가 적합하다고 본다(Rosas and Kane, 2012).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법에서는 문항의 수와 분류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개념이 비교적 단순하고 분류자들의 합의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재영 외, 2013).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값은 0.301로 나타나 개념도 연구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스트레스 값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각화된 범주지도는 〈그림 1〉과 같다.

4) 다차원척도분석에서는 핵심 통계진단을 '스트레스 값'이라고 부른다. 스트레스 값은 다차원 공간에 나타나는 진술문 간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보는 것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는 방법과 유사하다(왕은자, 200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림 1〉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의 범주지도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범주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범주는 연구자가 구조화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범주명을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범주를 구조화시킨 결과, 1. 개별화 자립지원, 2. 자립지향적 촉진활동, 3.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 4. 자립생활 경험공유, 5. 사회적 자원연결, 6. 인간관계 재구성, 7. 동료상담가의 성장, 8. 역할모델, 9. 공감적 지지, 10. 장애정체성 형성, 11. 주체성 확립, 12.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활동으로 나눌 수 있었다. 범주에 부여되는 번호는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며 범주의 순위와는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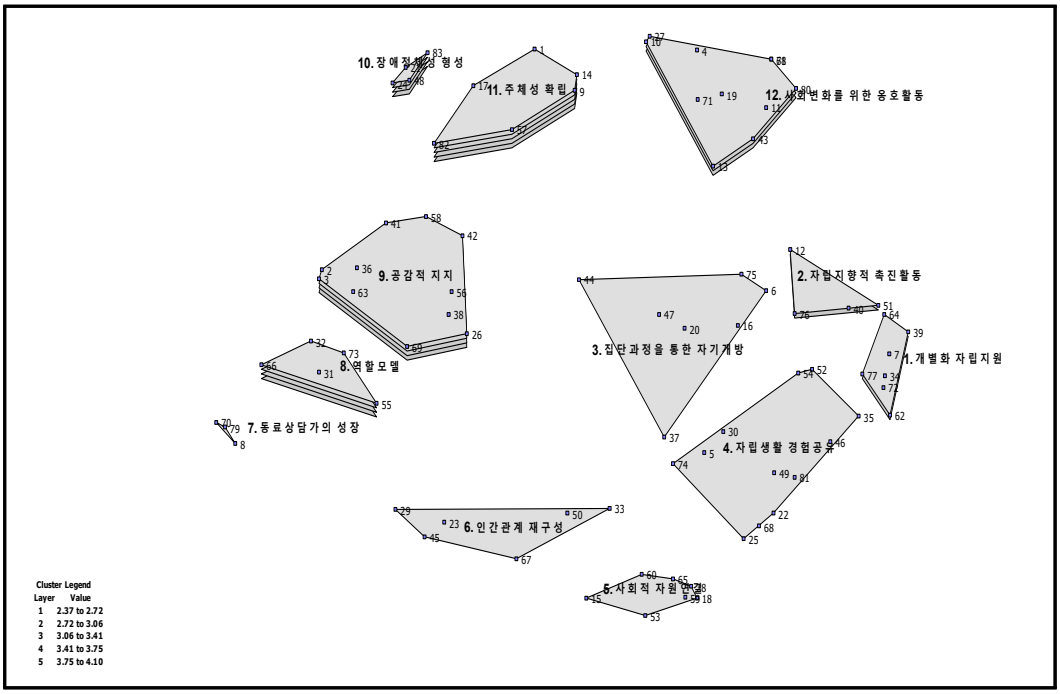
2. 범주평정지도

범주평정지도는 각 개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각 범주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범주의 상대적 평정층을 달리하는 도식화를 통해 중요성을 보여준다. 각 개념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도출된 동료상담 개념 중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을 알아보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요성을 평정질문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동료상담의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각 진술문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범주평정지도에서는 범주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평정층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중요성의 평균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Rosas and Kane, 2012).

범주의 중요성에 따른 평정값은 '범주11: 주체성 확립(4.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주10: 장애정체성 형성(3.65)' 〉 '범주8: 역할모델(3.64)' 〉 '범주9: 공감적 지지(3.61)' 〉 '범주12: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활동(3.12)' 〉 '범주1: 개별화 자립지원(2.78)' 〉 '범주2: 자립지향적 촉진활동(2.77)' 〉 '범주3: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2.71)' 〉 '범주6: 인간관계 재구성(2.69)' 〉 '범주4: 자립생활 경험공유(2.53)' 〉 '범주5: 사회적 자원연결(2.44)' 〉 '범주7: 동료상담가의 성장(2.3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주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지도를 구성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범주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범주화한 각 범주의 명칭과 그에 포함된 진술문의 내용 및 평정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 동료상담 구성요소의 세부 범주평정

번호	범주명과 진술문 내용	중요성 평균
범주1	개별화 자립지원 (n=7)	2.78
7	동료상담가가 개별상담에서 이용자의 생애주기적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	3.44
34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성별, 장애유형, 장애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	3.33
39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자의 배경(가족, 경제적 상황, 과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	2.81
6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거주공간(집, 자립생활 주택, 체험홈, 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자립의 정도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	2.56
64	동료상담가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담하는 것	1.81
72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현실성 있는 자립생활의 장단기적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	3.33
77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과정을 정기적으로 함께 평가하는 것	2.19
범주2	자립지향적 촉진활동 (n=4)	2.77
1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 자신의 강점(장점, 자원, 가능성 등)을 목표 성취에 활용하도록 돕는 것	2.85
40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열린 질문을 활용하는 것	3.00
5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장애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구(미술, 감정카드 등)를 활용하는 것	2.44
76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	2.78
범주3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 (n=7)	2.71
6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기초 · 심화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	3.56
16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기초 · 심화과정)에서 상호상담(co-counseling: 참여자들끼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교대로 바꾸어가는 상담)방법을 활용하는 것	2.00
20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에서 이용자에게 자기 상황을 다양한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활용하는 것	2.56
37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기초 · 심화과정)을 활용하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소개하는 것	2.63

번호	범주명과 진술문 내용	중요성 평균
44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억압된 감정 표출을 돕는 것	3.96
47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기초 · 심화과정)에서 다른 참여자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1.93
75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5]	2.33
범주4	자립생활 경험공유 (n=12)	2.53
5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	2.89
2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거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2.04
25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적합한 일을 찾도록 돕는 것	1.96
30	동료상담가가 자신의 자립생활 경험(know-how)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자립을 돕는 것	3.48
35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거주공간(집, 자립생활 주택, 체험홈,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	1.89
46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6]	2.00
49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자기관리(건강, 금전, 시간, 외모 등)를 지원하는 것	2.70
5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탈시설, 또는 탈재가를 지원하는 것	3.37
54	동료상담가가 일상생활에서 이용자와 함께 구체적이고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가는 것	3.15
68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의 중심에서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1.74
74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	2.52
81	자립생활센터와 동료상담가들이 이용자의 자립을 위해 팀접근을 활용하는 것	2.59
범주5	사회적 자원연결 (n=7)	2.44
15	동료상담가가 이용자를 적절한 자조모임에 연결하는 것	2.48
18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결해주는 것	2.37
28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립생활정보(각종 사회서비스, 보조기 및 보조공학 도구, 지역사회 및 자립생활센터 소식 등)를 제공하는 것	2.89
5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이용자를 자립생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결해주는 것	2.48
59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사회서비스(활동보조,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연금 등)를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것	2.15
60	동료상담가가 자립생활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을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것	2.78
65	동료상담가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1.93
범주6	인간관계 재구성 (n=6)	2.6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번호	범주명과 진술문 내용	중요성 평균
23	동료상담가가 집단상담(기초 · 심화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장애인으로서의 연대감이 생기도록 돕는 것	3.04
29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촉진되도록 돕는 것	2.81
3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가족들이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2.70
45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인간관계(가족, 활동보조사, 이성, 서비스관계자 등)와 관련된 갈등을 다루는 것	2.30
50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자립을 위해 이용자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2.30
67	동료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이용자의 인간관계가 확장되도록 돕는 것	3.00
범주7	동료상담가의 성장 (n=3)	2.37
8	동료상담가가 다양한 동료상담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상담방법들을 습득하면서 성장하는 것	2.67
70	동료상담가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과정	2.37
79	자립생활 활동가로서 동료상담가가 자신의 자립생활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	2.07
범주8	역할모델 (n=5)	3.64
3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와 대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	4.37
3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	3.07
55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멘토가 되는 것	3.26
66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역할모델(Role model)이 되는 것	3.70
73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	3.78
범주9	공감적 지지 (n=11)	3.61
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3.85
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자립을 믿고 기다리는 것	3.67
26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조언이나 충고하지 않는 것	3.56
36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3.52
38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	4.67
4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실패와 좌절을 위로하는 것	2.85
42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심리 · 정서적 안녕(만족감, 편안함 등)을 돕는 과정	3.04
56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4.37
58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다양한 도전을 격려하는 것	3.04
63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으로서 겪었을 이용자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는 것	4.04
69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비장애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3.11

번호	범주명과 진술문 내용	중요성 평균
범주10	장애정체성 형성 (n=4)	3.65
2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장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3.26
24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	3.63
48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장애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3.56
8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장애는 내 삶의 여러 특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4.15
범주11	주체성 확립 (n=6)	4.10
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의식이 생기도록 돕는 것	4.70
9	이용자가 사람들 앞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해지도록 돕는 것	4.11
14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 것	3.96
17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촉진되도록 돕는 것	4.41
57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것	4.00
82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동료상담가를 보면서, 이용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것	3.41
범주12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활동 (n=11)	3.12
4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장애의 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인식(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 생기도록 돕는 것	4.00
10	동료상담가가 이용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 교육권 등)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	3.81
11	동료상담가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타인들에게 요구하도록 돕는 것	3.78
1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2.89
19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의 억울함이나 불이익에 대해 옹호하는 것	3.74
27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에게 차별과 배제당했던 자신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3.26
43	동료상담가가 이용자를 자립생활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2.81
61	동료상담가가 장애인들의 필요와 요구를 집단적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	2.33
71	이용자가 가족과 서비스제공자(활동보조사, 거주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돕는 것	3.07
78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지역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현실(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	2.59
80	이용자와 동료상담가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가는 것	2.0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동료상담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동료상담가들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법을 사용하여 국내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결과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체는 1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개념도에 나타난 12개의 구성요소는 X축과 Y축의 2차원 방향으로 해석된다.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체를 X축 방향에서 볼 때 동료상담의 과정차원으로 해석된다. X축의 정적방향은 동료상담의 전문적 기술과 관련이 있고, 부적방향은 대등성을 기반으로 한 동료상담가의 태도와 관련된다. 또한, 개념도의 Y축 방향에서 볼 때 동료상담의 구조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Y축의 정적방향은 임파워먼트를 향한 인식변화를 나타내고 부적방향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7]을 향한 관계변화와 관련된다.

구조와 과정이라는 2차원적 분석을 통해 12개의 구성요소는 4분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1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로 집락화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범주는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활동(범주12"이다. 2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자기 세워주기'로 집락화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범주는 '역할모델(범주8)', '공감적 지지(범주9', '장애정체성 형성(범주10)', '주체성 확립(범주11)'이다. 3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로 집락화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주는 '사회적 자원연결(범주5)', '인간관계 재구성(범주6)', '동료상담가의 성장(범주7)'이다. 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자립생활과 연결하기'로 집락화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주는 '개별화 자립지원(범주1)', '자립지향적 촉진활동(범주2)',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범주3)', '자립생활 경험공유(범주4)'가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동료상담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도 해석을 정리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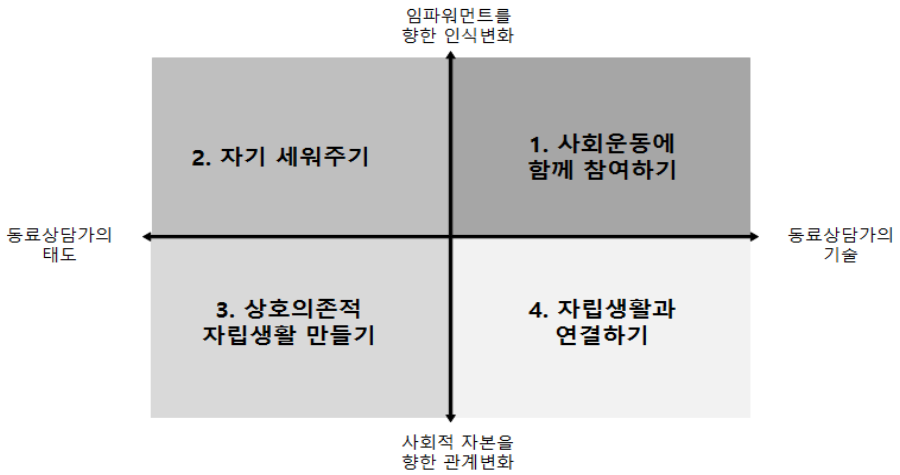
〈그림 3〉 장애인 동료상담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도 해석

---

5) 진술문 75번은 집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료상담 상황을 설명하는 것임.

6)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동료상담가들이 지속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자신의 자립생활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7)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Hanifan에 의하여 1916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Jacobs, Loury, Bourdieu 등에 의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Coleman, Putnam에 의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투자로 정의된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창출하고, 그 외부성은 규범, 호혜성 등의 공유의 가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공유의 가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인 형태의 조직을 통해 기능한다(문필동, 2017).



본 연구를 동료상담가의 역할(윤재영 외, 2013)과 공감기술(이성미, 2013)을 개념화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구조와 과정이라는 2가지 차원과 동료상담가의 기술, 동료상담가의 태도, 사회적 자본을 향한 관계변화, 임파워먼트를 향한 인식변화라는 4가지 속성이 본 연구에서 확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Mead와 MacNeil(2006)이 제시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의 중요요소와 비교하면, 구조와 과정이라는 분류틀이 형태적으로는 일치하였다. 하지만 Mead와 MacNeil(2006)의 결과는 동료상담의 과정에 임파워먼트, 권익옹호, 자기인식, 관계변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동료상담의 구조차원으로 해석되었고 구조차원에서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동료상담은 복합적 속성을 지닌 개념체계로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서비스를 포괄하는 동료상담가의 지원활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집락화 된 세부 범주들의 공통된 개념적 특징을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중요성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세워주기' 영역에 속하는 범주들은 동료상담가와의 대등한 관계를 통해 자립생활 이념이 이용자에게 의식화되어 임파워먼트되는 것과 관련되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범주11: 주체성 확립(4.10)'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고, '범주10: 장애정체성 형성(3.65)', '범주8: 역할모델(3.64)', '범주9: 공감적 지지(3.61)'의 순서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범주11: 주체성 확립(4.10)'은 이용자가 자신의 삶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료상담가들은 이용자에게 자기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결정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도록 돕는 것이 동료상담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용자에게 자기결정에 대한 도전을 격려할 때 긍정적 변화가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자기결정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윤재영, 2010). 자기결정이 가능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임파워먼트, 권익옹호, 사회통합, 자립실현,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윤재영, 2010; 이복실, 2012). 정신장애인 동료서비스와 지원활동에서도 자발성을 포함한 자기결정이 중요 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Holter et al., 2004; Mead and MacNeil,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주권, 자조, 정치경제적 권리(DeJong, 1979)라는 자립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동료상담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서 전수된 동료상담의 목표인 자기신뢰의 회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기결정의 기반이 되는 자신감이 자기신뢰의 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정지훈, 2013).

한편 '공감적 지지(범주9)'는 '자기 세워주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낮지만, 자립생활 이념을 의식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추론된다. 이는 동료상담가의 역할에서 공감을 가장 중요한 범주로 개념화한 윤재영 외(2013)와 이용자의 인지를 재구조화할 때 동료상담가들이 활용하는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 공감이라고 한 이성미(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 세워주기' 영역 다음으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유일한 범주는 '범주12: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활동(3.12)'이다. 이 영역은 동료상담을 통한 개인적 옹호와 체계적 옹호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동료상담을 권익옹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Brown(1999)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영역의 중요성이 '자립생활과 연결하기'와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변혁이라는 일본에서 전수된 동료상담의 목표를 바탕으로 의식화된 동료상담가들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들 중 경력 10년 이상이 40.7%, 자립생활센터 소장의 비율이 51.9%로 이들은 1세대 동료상담 리더로서 자립생활 운동을 전개해나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투쟁을 통한 정책적 변화과정의 경험(김봉선, 2010; 고관철, 2012)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자립생활과 연결하기' 영역은 동료상담가가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용자가 자립생활을 하도록 돕는 실천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자립생활과 연결하기'는 '자기 세워주기'와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영역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으며, 영역 내에서는 '범주1: 개별화 자립지원(2.78)', '범주2: 자립지향적 촉진활동(2.77)', '범주3: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2.71)', '범주4: 자립생활 경험공유(2.53)' 순서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었다. 이 중에서 '개별화 자립지원(범주1)'과 '자립지향적 촉진활동(범주2)'이 '집단과정을 통한 자기개방(범주3)'과 '자립생활 경험공유(범주4)'보다 높은 중요성을 보이는 것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례관리자로서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강조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의 중요요소를 연구한 Mead와 Macneil(2006)에서는 동료상담의 중요 실천기술로 상호성에 초점을 둔 상호책임, 회복운동에 머무르기 등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휴먼서비스의 개별적인 실천기술의 요소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들은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재활서비스의 준전문가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의 전문가로 개념화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 영역은 동료상담가가 이용자가 속한 사회체계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동료상담가 자신도 성장하는 내용이 개념화된 것이다. White 외(2010)는 사회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자립은 고립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용자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사회체계 안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생활 서비스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상호의존적 자립생활(interdependence living)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 영역의 중요성은 네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자립생활이 국외에 비해 초기단계인 국내 여건에서, 지속적인 사회통합보다는 시설이나 가족으로부터의 형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적 자립생활에 대한 동료상담가들의 관심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 영역의 하나로 집락화된 '범주7: 동료상담가의 성장(2.37)'은 12개의 범주 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낮게 인식된 범주이다. 이 범주가 다른 범주들에 비해 중요성이 낮게 평정된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성장한 자립생활 리더'이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들은 대부분 자립생활센터에서 급여를 받는 전임제 직원(92.6%)이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집단동료상담(기초 및 심화과정)에서 강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Barker 외(1987)는 동료상담가들이 급여를 받을 때 자원봉사 동료상담가들에 비해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나 책임감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동료상담가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i.or.kr

들은 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의 성장보다는 이용자의 자립을 돕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가지 영역은 임파워먼트 기능, 권익옹호 기능,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의 기능, 공식 또는 비공식 체계와 이용자 사이의 상호연결의 기능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중요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대등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의 실천으로써 임파워먼트의 방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동료상담의 개념을 현장 실무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립되지 않고 모호했던 국내 동료상담 개념의 구성요소가 밝혀졌다.

국내 자립생활센터 서비스는 미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현장의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익섭 외, 2007; 윤재영, 2010). 이것은 국내 자립생활센터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하향식(top-down)으로 설계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립생활센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천현장의 맥락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설계와 전달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료상담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범주들이 집락화된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자립생활과 연결하기', '상호의존적 자립생활 만들기', '자기 세워주기',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하기'와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때 해당하는 세부범주들을 동료상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로 개발하고 단계적 양성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비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동료상담 개념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본 연구결과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근모·이준기, 2015,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87-110.

고관철, 20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국적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혜, 2004,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봉선, 2010,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375-397.

문필동, 2017,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숙진, 2002, "미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운동 개념과 발달과정", 『재활복지』, 6(2): 24-54.

양미진·송미경·신효정, 2009,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8-31.

에이블뉴스, 2015, “한국동료상담사협회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2015년 9월 8일.

왕은자, 2009, “기업상담 효과에 대한 세 관련 주체(내담자, 관리자, 상담자)의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가현·김은주, 2010,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동료상담의 효과”, 『한국 노년학연구』, 19: 115-131.

윤재영, 2010,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재영·박찬오·박정현, 2013, “장애인 동료상담가 역할의 범주화”, 『재활복지』, 17(2): 15-39.

이복실, 2012, “거주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요인 연구 : 기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미, 2013, “장애인 동료상담의 공감 기술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김경미·윤재영, 2007,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9(2): 197-222.

이창대·박지혁, 2015, “동료멘토(peer mentor)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신경재활치료과학』, 4(2): 84-91.

정지훈, 2013, “동료상담서비스와 가족관계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쯔쯔미 아이코, 2014, “동료상담 중요성과 양성체계 및 정부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제시”, 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편, 『한미일 장애인 동료상담 국제세미나 자료집』, 31-60.

한채민·김영근. 2018. "장애동료상담을 경험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재활심리학회 25(1).

황백남, 2011, “한·일 동료상담 비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편, 『전국장애인활동가를 위한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사업 보고대회 및 한·일 동료상담 비교토론회 자료집』, 56-63.

Barker, L. T., Altman, M. and Youngdahl, A. 1987,「Dimension in Peer Counseling: Observations from the National Evaluation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ILRU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Independent Living at TIRR. http://www.ilru.org, 2016년 5월 5일.

Brown, S. 1999, “Peer counseling: Advocacy-oriented peer support part one”, http://www.ilru.org/html/publications/readings_in_IL/peer1.html, 2016년 12월 3일.

DeJong, G. 1979, “Independent living: From social movement to analytic paradig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0(10): 435-446.

Drabble, L. A., Haun, L. L., Kushins, H. and Cohen, E. 2016, “Measuring client Satisfaction and engagement: The role of a Mentor Parent Program in family drug treatment court”,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67(1): 19-32.

Holter, M. C., Mowbray, C. T., Bellamy, C. D., MacFarlane, P. and Dukarski, J. 2004, “Critical Ingredients of consumer fun services: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1): 47-50.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ILRU), 2011, “Building an effective peer support program”, http://www.ilru.org, 2016년 3월 3일.

Ipsen, C., Ravesloot, C., Arnold, N. and Seekins, T. 2012, “Working well with a disability: Health promotion as a means to employ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57(3): 187–195.

Kane, M. and Trochim, W. M. 2007,「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Kehayan, V. A. 1987, “Fort Lee's Comprehensive Peer Outreach Program”, The Annual National Peer Helpers Association Conference.

Mead, S. and MacNeil, C. 2006, “Peer support: What makes it u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0(2): 29-37.

Nenortas, G. V. 1987, "A drop out prevention program utilizing peer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alternative students", Nova University.

Ravesloot, C., Seekins, T., Cahill, T., Lindgren, S., Nary, D. E. and White, G. 2007, “Health promo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Living Well with a Disability Program”, Health Education Research, 22(4): 522-531.

Redford, D. and Whitaker-Lee, P. 1999, 「Peer Mentor Volunteers: Empowering People for a Change」, ILRU: Houston Texas. http://www.ilru.org, 2016년 3월 3일.

Repper, J., Aldridge, B., Gilfoyle, S., Gillard, S., Perkins, R. and Rennison, J. 2013, 「Peer Support Workers: Theory and Practice」, London, UK: Centre for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Network, NHS Confederation.

Rosas, S. R. and Kane, M. 2012, “Quality and rigor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 pooled study analysi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5(2): 236-245.

Shreve, M. 1991, “Peer counseling in independent living centers: A study of service delivery variations”, ILRU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Independent Living at TIRR, http://www.ilru.org, 2016년 3월 3일.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9): 897-904.

Wilson, M. E., Flanagan, S. and Rynders, C. 1999, “The FRIENDS program: A peer support group model for individuals with a psychiatric disabil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2(3): 239-247.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Categorization of Peer Counseling Concep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ncept Mapping Approach

Ryu, Chung Han
The Seoul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mponents of peer counseling concepts which is practiced in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CIL). Concept Mapping methodology was conducted and 27 peer counselors participated in all the process.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to gather statements on the concepts of peer counseling and the final list of statements was derived after the editing process.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sort the final statements by similarity and rate the importance.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Concept System Software Core(v.4.0).

The results derived 83 statements which construct concepts of peer counseling in CILs. In addition, the components of peer counseling were consist of two levels, structure and process, categorized as 12 clusters:

This study settled the standards of the peer counseling concept is highly applicable to the practical field of independent living since it was based on lived experiences of hands-on peer counselors.

■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Peer Counseling,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Concept Mapping

논문투고일 : 2021. 10. 12.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41-174.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 탐색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오준협****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조재훈*****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활성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프로그램의 내실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심층 면담은 체육지도자, 행정가 등 15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도구는 반 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 중 귀납적 범주분석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체육 서비스의 장애 요소, 체육지도자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 체육 서비스 시설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체육 서비스 활성 요인으로 초기접근 향상, 장애인체육 서비스 지도자 역할 향상,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 서비스 지원 조직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건강 권법, 장애인체육, 재활 체육

* 이 논문은 제1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jxcho@kornu.ac.kr

Ⅰ. 서 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신체활동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우울증 등이 높아 장애인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신체적 활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산업정보연구소, 2018).

장애인체육 서비스 활동은 장애인에게 정신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며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이다. 위축되기 쉬운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자신감을 키운다. 장애인 당사자 처지에서는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 후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체육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유관 서비스 연계가 쉬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2017년 시행된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공표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 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오화영, 2016).

장애인체육 서비스 활동 주무 부처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장애인체육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속한 장애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는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관련 업무이나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장애인체육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서해정, 조재훈, 김재근, 20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 · 훈련에 관한 역할이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여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강동헌, 박지영, 호승희, 은선덕, 이금주, 임승진, 2020).

독일, 일본 등 장애인체육 선진국들은 재활 체육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체육활동이 필요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체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체육 서비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서해정, 등 201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장애인 생활체육 3대 요소 중 하나인 장소의 문제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체육 활동 시 선호하는 장소 중 거리가 가까운 근처 공원 61.5%, 집안 31.8%, 장애인복지관 및 전용 체육관이 14.9%, 공공체육시설이 9.6%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모색하게 한다.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수는 2020년 12월 말 56만9726명으로 장애인전용체육관은 고양시에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과 고양시스포츠재활센터, 광명시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에는 명휘체육센터가 있지만 시설과 가까운 것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경기일보, 2021.8.4.).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69개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있지만,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이 931개, 생활체육교실이 1,432개인 것을 감안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현실로 장애인 체육센터가 있어도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체육 장소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오지만, 전국 247개(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1. 12. 6. 기준)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장애인체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주요 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로 전환 사명을 띠고 만들어졌다(조성훈, 2002). 특히,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체육시설 부족 등의 환경을 발전시키는 구실을 하며, 장애인체육 제도, 특수교육제도, 장애인고용제도 등을 크게 확대하는 데 이바지를 하였다. 장애인체육 서비스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과 복지관에서 위탁받은 장애인체육관에서 생활체육과 재활 운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관 체육활동은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손인석, 이인경, 박병도, 2008; 오준협, 2019).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이 함께 복지관에서 체육활동에 참가하게 되면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 유지와 체력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할 상실감, 경제 상실감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배성우, 최귀정, 이현수, 2019). 이는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2020)가 제기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즉,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당 3~5개만 운영되는 등 지역적 편차와 절대적 공급량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틀에 박힌 사업 수행과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변화하는 장애인 패러다임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과 기능 재정립의 문제를 제기하였으

며, 장애인 대표신문인 에이블뉴스(2018. 11. 2) 에서도 미션 · 비전의 재정립 및 조직개편을 주장하며, 이용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권일, 유지곤, 한태룡, 최승권, 조재훈, 채재성, 용필성, 유홍율, 서은철(2011)은 장애인종합복지관 82.6%에서 재활 체육이 이루어지지만 재활 체육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35.6%, 일반체육 전공이 28.7%, 특수체육 전공이 20.7%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아는 특수체육 전공자들이 재활 체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전문인력 부족, 예산 부족, 프로그램 부족, 재활 체육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전국 31개 장애인전용 체육 시설도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의 보조금 부족, 이용률 감소, 장애인체육 지원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전문체육, 생활체육 영역 구분이 모호하며 지자체의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재훈(2014)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재활 체육은 복지정신으로 인한 운영방식에 지도자들이 혼란을 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식 지도 부재와 생활체육에서의 종목 중심의 체육활동, 그리고 경증장애인에게 맞춰진 체육활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실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행정가와 실무자들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인체육의 문제와 활성 요인 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체육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체육의 문제와 활성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활성 요인을 탐색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내실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행정가와 현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는 현장 행정가 및 현장 지도자가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체육활동 및 실태에 대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여 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확률표집 방법 가운데 하나인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대상을 의도적 표집으로 조사하는 목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김영천, 2012).

연구 참여자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체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행정가(관장) 등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재활체육, 생활체육의 경험자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으며, 장애인체육 관련 석·박사,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관에서 건강·운동 관련 업무를 한 지 3년이 지난 행정가 및 현장 지도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장애인 관련 체육 분야, 복지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대표하는 장애인복지관 근무경력이 있거나 재활 체육 및 생활체육 실무자로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개념은 장애인 건강권 법으로 정립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못 잡는 시기에 독일에서 재활 체육을 배우고 직접 참여해본 장애인 활동가의 의견은 귀중한 사례가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충남, 제주, 대전지역만 근무하고 있고 근무하는 복지관의 크기, 주 서비스 대상이 달라 모든 장애인복지관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15명 중 4명의 장애 당사자를 연구에 포함하였지만 모든 장애인들을 포함하였다기에는 이 연구에 한계가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이름	학력	자격/특성	경력
A	특수체육 석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11년
B	특수체육 학사	특수체육 중등 교원자격증, 생활체육 지도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4년
C	특수교육 학사, 사회복지 석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교원자격증 **(장애 당사자)**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체육행정 21년
D	특수체육 학사, 특수체육 석사	특수교육 교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4년 6월
E	특수체육 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4년
F	특수체육 석사, 특수체육 박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심리 운동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6년
G	특수체육 석사, 특수체육 박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 지도사 등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12년
H	특수체육 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 지도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3년
I	특수체육 박사	경기지도자 자격,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복지관 수영 센터장 27년

이름	학력	자격/특성	경력
J	사회복지 석사	사회복지사 **(장애 당사자)**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체육 행정 22년
K	사회복지 학사	사회복지사 **(장애 당사자)**	장애인복지 및 체육 행정 5년
L	독일 직업재활 석사	독일 Dipl.–Paed. 재활 체육 전문가 **(장애 당사자)**	장애인체육 및 복지 행정 26년
M	사회복지 학사	생활체육 지도사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및 행정 10년 4월
N	특수체육 석사, 특수체육 박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체육관 지도 및 행정 12년
O	특수체육 학사, 특수체육 석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심리 운동사	장애인복지관 체육 지도 및 행정 5년

2. 면담 질문지

본 연구의 면담 질문지 구성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체육, 장애인 건강 권법,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선행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 후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와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첫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 둘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제약요인(장애 요소) 및 초기접근을 향상하게 시키는 방안에 질문을 하여 체육의 3대 요소인 지도자, 프로그램, 장소외의 장애 요소와 활성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표 2〉 면담 질문지 문항 구성

질문내용
체육 서비스의 제약요인(장애 요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 서비스 활동의 초기접근을 향상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도자 활용의 문제점과 활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활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체육 서비스 지원 조직(센터 또는 팀) 구성의 문제점과 활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체육 서비스 활동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문제점과 활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3.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관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실무자 심층 면담을 2019년 8월~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 일정은 연구 참여자의 시간에 맞추어 일정을 조정하여 연구 참여자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1회~2회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1회당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충분한 면담자료 수집을 위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면담 조사는 질적연구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 구조화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질문지는 상황에 따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면담 조사 시행 전 연구목적과 취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동의 및 녹취 동의서를 작성 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음성기록 장치와 휴대전화기로 동시에 녹음하였으며, 중요사항은 메모하였다. 작성된 인터뷰는 정리 및 확인 후 수정과 보완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전사본을 만들고 텍스트화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 이후 단계에서 자료 작성 이전까지 과정을 이야기한다. 질적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 분석, 해석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질적연구의 전통에 의해 진행되었다(민솔희, 2016; 조용환, 2009).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텍스트 된 자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작업을 거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타당성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Creswell(2009)과, 민솔희(2016)가 제시한 8가지 전략 중 이 연구에 적용 가능한 방법 4가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삼각 검증법으로 관련 기관의 체육활동 실태를 분석하였고, 연구물, 서적 등 각종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수집과 미디어 노출 사례를 통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전문가를 통한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자료를 전사 후 요약된 내용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내용 오류의 최소화 및 부족한 내용 추가를 통해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술, 분석, 해석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관련 학문의 협의 과정인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 과정의 오류를 감소화하였다. 넷째, 풍부한 심층적 기술로 독자들이 연구 독자들이 연구 주제와 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작성 시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의 타당도를 위해 특수체육 교수 3인의 안면 타당도 검사를 통해 귀납적 범주 분석한 자료가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지원조직의 문제, 시설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체육 3요소인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외의 제약요인으로 접근성의 문제, 이용 시간의 문제, 인식 · 심리적 문제, 비용 문제, 장애 특성 배려 문제가 추가로 나타났다.

1) 체육 서비스의 제약요인(장애 요소)

장애인체육 서비스의 제약요인(장애 요소)으로는 장애인체육시설 부족 및 노후화, 전문지도자 양성 문제,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 이용 시간의 문제, 인식 · 심리적 문제, 비용 문제, 장애 특성 배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지도자 수의 부족, 개인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의 문제, 자가 이동 시 문제, 이용자 시간문제, 기간과 지도자의 시간문제, 개인의 인식 및 심리적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 타인과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 개인적 비용 문제, 종목 및 장비 비용 문제 장애 특성 배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체육 시설 부족,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양한 종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목들에 대한 체육 시설 시간 배분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F)

장애 이해가 부족한 일반체육 전공자들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면담자 E)

장애인 재활시설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활시설 자체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기 힘든 상황이므로 교통이 어려우며, 장애인들의 경우 기존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면담자 G)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의 욕구는 강하나 근무일이 아닌 관계로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담자 M)

복지관에서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예산 어느 한쪽으로만 받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은 현실이며, 장애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담자 A)

〈표 3〉 체육 서비스의 제약요인 (장애 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시설 부족 및 노후화	• 장애인전용 체육 시설 부족하여 운동할 공간이 없음 • 지역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음 • 시설의 노후화 및 모서리 벽면 보호대 설치 부족으로 활용에 제약
전문지도자 양성 문제	전문성 부족	• 종목별 전문지도자가 부족하여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함 • 특수체육 전공자 부족으로 특수체육 수업 진행의 어려움 • 장애인체육을 전공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부족
	지도자 수의 부족	• 장애인체육 수요보다 지도자가 부족 • 장애가 있는 지도자 수가 부족하여 장애 특성 이해의 한계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개인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부족	•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족 • 이용자의 욕구와 프로그램이 부합하지 않을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종목별,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선택의 폭 부족
	목적 및 목표 부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제공할지에 대한 목적 공유 부족 • 운동을 통해 유연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제시 부족
접근성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 비장애인 시설에 비해 원거리에 설치된 경우가 많음 •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함 • 재활시설이 혐오시설로 판단되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가 이동 시 문제	• 자가 차량이 아닌 경우 이동에 제약 • 중증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이나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서 불편함 • 교통약자 지원센터 이용 시 때에 따라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함
이용 시간의 문제	이용자 시간문제	•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 후 체육활동과 치료프로그램과 겹침 • 장애 학생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선호
	기관과 지도자 시간의 문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도자 시간이 이용자 시간과 괴리 • 이용 시간대가 수익 창출을 위해 비장애인에 맞춰짐 • 다양한 종목에 대한 체육 시간 배분이 어려움
인식 · 심리적 문제	개인의 인식 및 심리적 문제	•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 부족 • 장애인들은 기존 생활방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외부인과 접촉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음
	타인과의 심리적 문제	• 체육활동 참여자 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여 심리 갈등 발생 • 소극적 태도로 인해 코치진과의 유대 형성이 쉽지 않음 • 장애인은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잘못 인식
	사회적 인식 문제	• 어릴 때부터 체육 경험이 부족하면 참여에 제약이 생김 • 비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한 여건이 안 됨
비용 문제	개인 비용 문제	• 저소득 장애인의 비용 지출 부담으로 인한 위축 • 운동 후 사적 모임 비용 참여에 따른 지출 부담
	종목 및 장비 비용 문제	•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 선택의 다양성 부족 • 개인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부담감을 느끼게 됨
장애 특성 배려 부족	장애 특성 배려 부족	• 장애인 체육활동 자체의 목표를 비장애인과 비슷한 목표 혹은 비장애인과 화합을 목표로 하는 것 • 장애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배려가 낮아지게 되어 부상의 위험 혹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충분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

2) 체육 서비스 지도자의 문제

체육 서비스 지도자의 문제는 시설에서 지도자 대우의 문제, 지도자 자질의 문제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대우 문제는 다시 직무상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문제, 인력수급의 문제로 나타났고, 지도자 자질의 문제는 전문성 부재,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면 시설에서 직무상 문제, 열악한 환경문제, 인력수급의 문제, 지도자의 전문성 부재,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가 있었다.

>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복지사가 상급자일 경우 직접 투입해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견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비한 처우 및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때문에 지속해서 담당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이용인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들은 새로운 담당자에게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담자 D)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용 시 특수체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 채용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H)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체육 전공자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있지만, 장애에 대한 과목이 1과목일 뿐이고 단순히 앉아서 1~2개월 공부만으로 필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E)

장애인의 전문체육지도자가 부족하고, 이들을 육성하거나 배출하는 전문기관도 부족합니다. (면담자 K)

〈표 4〉 체육 서비스 지도자의 문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설에서 대우 문제	직무상 문제	•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복지사가 상급자일 경우 직접 투입하는 체육지도자의 고충 모름 • 사회복지사나 체육지도자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한 충돌 발생 • 체육 지도 외에 잡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힘들어함
	열악한 근무 환경문제	• 외부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 미비한 처우 및 계약직 때문에 담당자가 많이 바뀜 • 담당자가 바뀌면 이용자들도 담당자에게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바뀐 담당자가 기존 지도 방법과 다른 방법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킴
	인력수급의 문제	•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수급이 어려움 •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출 전문기관 미흡 • 장애 및 재활 전문지도자 부족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지도자 자질의 문제	전문성 부재	• 특수체육이나 재활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유 지도자 채용의 어려움 • 다양한 능력과 기능을 보유한 지도자의 부재 • 종목별 지도자 배치 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을 지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 생활체육회 지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 체육회 지도자가 장애를 잘 모르는 일반체육 전공자가 많음 • 장애인스포츠 지도사라도 장애에 대한 과목 1과목(특수체육)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짐

3)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기반(infra) 구축 문제, 업무 과중 문제 및 장애 이해 부족 문제,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종목 중심의 체육활동, 이용자 욕구 파악 부족, 장비 개발 및 구매 문제, 체육 시설에 대한 홍보 및 공간 부족 문제, 지도자의 업무 과중 문제, 지도자의 장애 이해 부족 문제, 특성에 맞는 지도자 부족,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되지 않고,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났다.

> 과거 종목 중심의 체육활동에서 레저스포츠나 극한(Extreme)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킨스쿠버 참여를 위한 정형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담자 N)

>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운동기구 구매 등이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의 개설이 어렵습니다. (면담자 A)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더 많은 실적을 쌓기 위해 많은 인원을 프로그램에 투입하길 원하지만 한정된 1인 체육 교사가 소화하기엔 어렵습니다. 또한, 특수체육 및 스포츠 종목 프로그램, 대회 참여, 체육지원 사업 등을 모두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 처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자 D)

〈표 5〉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종목 중심의 체육활동	• 이용자 중심보다 종목 중심의 생활체육 활동 •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주도로 운영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개설 어려움
	이용자 욕구 파악 부족	• 이용자들의 운동욕구 파악이 안 됨 / 종목의 한계,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 스킨스쿠버 참여를 위한 정형화된 프로그램 부족 •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오후 3시~6시 사이 많은 인원이 모여 있어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함
기반(infra) 구축 문제	장비 개발 및 구매 문제	•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휠체어 장치 미개발 •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운동기구 구매 등이 어려움
	홍보 및 시설 문제	•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 • 체육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 과중 및 장애 이해 부족 문제	업무 과중 문제	• 지도자 혼자 체육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업무 과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도자의 장애 이해 부족	•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체육 전공자들이 많음 • 비장애인 프로그램을 장애인에 대입시키며 시행착오 겪음 • 일하면서도 장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음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특성에 맞는 지도자 부족	•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도자의 배치가 어렵다는 점 • 프로그램 이용자보다 지도자 수가 부족한 현상 발생 •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장애 프로그램 구성 문제	•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각 장애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모두 준비하기가 어려움
	장애 특성 고려 문제	• 프로그램 활동 지원 서비스 자격 여부가 신체적 장애 위주임 •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문턱도 밟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음

4)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로는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의 문제,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의 문제로는 팀 내 이해 부족의 문제, 예산, 시설, 장비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의 문제로는 체육지도자가 없는 문제, 체육지도자와 사회복지사 간 의사소통 문제, 업무 과중 문제로 나타났다.

> 체육 관련 팀이 있는 경우 구성원 3명 중 1명만 체육지도자로 구성되어 대외사업 등에 응모 및 참여를 하고 싶어도 1명의 인적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며, 주중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사업, 대회 참석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면담자 M)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예도 있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팀 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담자 N)

>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체육회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어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면담자 C)

> 체육조직이 없는 경우…… 1인 체육 교사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며 기능향상팀 또는 가족문화 팀에 구성되어 현장에 직접 투입됨에 따라 상급자와의 보직이 달라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면담자 D)

재활시설 복지관의 경우 체육지도자 TO가 적어 1명이 모든 체육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과다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면담자 F)

체육지원 조직 구성의 문제점으로는 …… 체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행정업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면담자 H)

〈표 5〉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의 문제	팀 내 이해 부족의 문제	• 체육팀이 있어도 체육지도자 1명의 사회복지사가 같은 팀이라서 체육 지도하고 타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예산, 시설, 장비 문제	• 대다수 복지관엔 체육조직이 존재 안 함, 중요성이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체육지도자 1~2명만 배치 • 직원 구조상 팀 구성 및 시설이나 장비의 보유 문제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의 문제	체육지도자가 없는 문제	• 사회복지사가 계획하고 체육회 지도자가 프로그램 진행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계가 발생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음
	체육지도자와 사회복지사 간 의사소통 문제	• 장애인체육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지도자만 뽑는 시설이 있음 • 체육지도자 1인 경우 상급자와 보직이 달라 의견 대립이 있음 • 다소 수직적 구성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 발생
	업무 과중 문제	• 체육지도자 업무 과다로 이직률이 높음 • 체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행정업무 진행 어려움 발생

5)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문제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문제로는 장소 문제 및 공간 부족, 시설 이용 및 노후화 문제, 비장애인과 충돌, 장비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및 노후화 문제는 다시 편의시설 이용의 문제, 시설 노후화의 문제로 나타났다.

파크골프, 사격, 스케이팅 등 큰 부지가 필요하거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소가 부족한 경우 장소와 이동의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보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담자 N)

한정된 장소 대비 요일 및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 체육관이 없어 다목적 강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자 D)

시설의 문제로는 현재 장비의 구성이 전부 비장애인에 맞춰 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담자 H)

장비 같은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소모품이 필요하며 이는 이용료 상승과 직결되는 것 같고 장비가 고정된 경우가 많아 다양한 각도 및 높이의 활용이 매우 낮습니다. (면담자 G)

〈표 6〉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문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장애인과 충돌	비장애인과 충돌	• 상황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의 반대와 선점으로 문제발행 • 시설이 비장애인 용도에 맞춰 제작되어 장애인이 불편해함
장비의 문제	장비의 문제	• 장비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소모품 필요– 이는 이용료와 직결 • 장비가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 및 높이의 활용률이 낮음 • 대부분 시설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장비들이 많이 존재
시설 이용 및 노후화 문제	편의시설 이용의 문제	• 휠체어 장애인 이용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 • 많은 공공 체육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 • 협소한 공간에 따른 안전사고 확률이 증가함
	시설 노후화의 문제	• 시설의 노후화 · 관리 소홀 • 시설의 노후화가 많으나 재원 부족으로 보수가 늦어짐 • 시설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비 구매의 어려움

2.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 주요 활성 요인은 다음 다섯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체육 서비스의 초기접근 향상 요인

체육 서비스 활동 초기접근 향상 요인에는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 활성, 재활 및 체육 정보제공, 시설 보강 및 접근성 향상, 부담감 감소를 위한 대책, 장애인체육의 인식변화, 예산지원 및 협력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세분화하면, 체육 서비스의 초기접근 향상을 위해 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체육활동 후 변화될 삶의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재활시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자의 운동욕구를 파악할 필요하고 체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고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시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에 접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 코치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고 가상 스포츠 등 정보기기와 조합된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도자 및 주변 장애인과 관계 형성이 되도록 지원하고, 가벼운 움직임과 재미를 통해 부담감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장애인체육의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의 어울림 대회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에서 체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제시하였다.

>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수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참석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면담자 J)

> 체육활동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수행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담자 H)

> 체육활동 이후의 변화될 삶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면담자 E)

> 장애인체육 활동 개선 전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자들의 운동욕구 파악을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면담자 B)

> 장애인콜택시 등 물리적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게 차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L)

〈표 7〉 체육 서비스의 초기접근 향상 요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활 및 체육 정보제공	체육 관련 정보제공	• 체육활동의 효과성 홍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 체육활동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정보제공 • 대상자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수행 절차 등 정보제공
	정보제공 시스템화	• 정보 습득할 수 있는 루트 개발이 중요 • 체육활동 후 변화될 삶의 기대감 상승 시스템 구축
	정보일원화 및 네트워크	• 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자의 운동욕구 파악 • 체육 프로그램 정보를 하나의 정보 습득 창고로 활용
프로그램 진행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방안	• 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 • 기존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에 접근 •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 보조 코치를 둠
시설 보강 및	이동 편의성 향상	•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pi.or.kr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접근성 향상		• 장애인콜택시 및 물리적 접근성 문제 해결 • 셔틀버스, 특장차 등을 활용한 이동권 보장 필요
	시설과 장비의 보강	•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보강 • 가상 스포츠 등 정보기기와 조합된 장비보강 필요
부담감 감소를 위한 대책	심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 형성	• 서먹서먹할 수 있는 지도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 체육활동 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는 심리적 재활 • 체육활동 참여에 주변의 꾸준한 긍정적인 관심도 중요
	놀이 및 흥미의 조화	•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제시 • 가벼운 움직임, 재미있는 놀이와 체육활동의 조화
장애인체육의 인식변화	체육행사 기회 제공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 대회 등 기회 보장 • 체육 관련 대회 행사 등으로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장애인체육 인식의 변화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절실 • 장애인 생활에서 체육의 긍정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문턱이 낮음
예산지원 및 협력	정부 · 민간 상호노력	• 예산체계가 정확하게 구축 • 정부 부처 · 지역 · 현장 전문가들 노력해야 함 • 중앙 · 지방정부 연구단체가 장애인체육 연구 필요
	선수 육성 및 제도 개선	• 성장 기능성 높은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중점 지원 • 지도자에 의한 훈련 및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도모 • 체육 보조로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2) 체육 서비스 지도자의 역할 향상

체육 서비스의 지도자 역할 향상 방안으로는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 연계, 전문가 확보방안 마련, 지도자 처우개선 및 확보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체육 전공자를 적극 활용 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강화,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 체육 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도자 처우개선 및 확보를 위해 지도자의 조건이나 경력에 맞는 급여제공이 필요하고, 임금인상, 상여금, 복지혜택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종목별 지도자 채용을 통한 전문지도자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의 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을 지도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기존 지도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면담자 M)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는 전문영역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경우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몸 건강까지 키울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어야 한다. 헬스장에 가서 배우지 못하면 홈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C)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한 법률적 신분 인정 제도와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공공 체육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의무적 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J)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임금인상, 상여금, 복지혜택 등)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D)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수의 지도자로 프로그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예산 투입 증가로 지도자 수급 향상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A)

〈표 8〉 체육 서비스 지도자의 역할 향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가 확보 방안 마련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특수체육 전공 출신 적극 활용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체육(교육)학과 전국적으로 개설 필요 •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법적 지원과 의무배치	• 장애인복지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관심과 자원이 있어야 함 •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한 법률적 신분 인정 및 자격 신설 • 공공 체육 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의무적 배치
지도자 처우개선 및 확보방안 마련	지도자 처우 및 복지 향상	•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지도자 잡무에 대한 비중을 낮춰야 함 • 지도자의 경력이나 조건에 맞는 급여제공 필요 • 처우개선 (임금인상, 상여금, 복지혜택 등) 필요함 • 처우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전문화된 고급인력 양성 가능
	지도자 확보 방안 마련	• 한 시설에 소속된 지도자보다 한 지도자를 여러 시설에서 공유 • 시설에서 지도자를 구한다는 홍보 필요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목별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 많은 지도자 채용 및 장애인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필요

3)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활성화로는 효율적 공간배치 및 전문지도자 확충,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제공,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인식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공작의 효율적 설비 및 배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이 필요하고,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수급이 필요, 지역단위 공동 프로그램 계획수립을 통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계획수립 시부터 이용자의 욕구 반영이 필요하고 체육 소외계층 및 내부 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몸의 상태를 점검하여 부상 방지를 위한 노력과 재활 운동 및 체육의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이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수요층의 그룹화를 이루고 시간,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담자 F)

체육 교사 확충을 통해 영역별 사업을 분배시키고, 체육관이나 공간 설비가 필요합니다. (면담자 D)

지역단위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I)

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B)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과 장애 아동들에게 환경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J)

A 장복이 재활 체육을 가져가기 위한 체적의 조건이다. 법인단체와 협력하여서 장애인 몸에 맞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립해야 한다. 또한, 단순 프로그램만 진행하면 재미가 없어지기에 복지관도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C)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레저 활동이 아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정부 부처,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지역 비장애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면담자 N)

〈표 9〉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효율적 공간배치 및 전문지도자 확충	시 · 공간의 효율적 설비 및 배분	• 체육관이나 공간의 효율적 설비가 필요함 • 시 ·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많은 인원 참여 가능
	전문성 강화 및 인력수급	• 체육 교사 확충을 통해 영역별로 사업을 분배시킴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모색 • 많은 지도자 채용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함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제공	지역단위 공동 프로그램 계획수립	•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 지역단위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필요 • 프로그램 활성화와 아이디어 창출 및 홍보마케팅
	이용자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필요 • 이용자 욕구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 필요
	체육 소외계층 기회 제공	•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환경 프로그램 기회 제공 • 내부 장애인 특성이 고려된 활동 지원 조사표 개선
체계적인 관리 및 인식개선 필요	체계적인 관리 및 시스템화	• 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부상 방지를 위한 정리운동 및 준비운동 필요 • 재활 운동 및 체육 시스템화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필요	• 순수한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미를 두는 것 필요 •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모든 종사자의 인식개선 • 일반 체육지도자들에게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설하여 장애인 지도

4)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 활성화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센터&팀)의 활성화로는 체육회지도자 파견, 시설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특성에 따른 관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체육회 지도자를 재활시설에 파견하여, 이용자 관련 정보를 공유가 필요하며, 체육 전담 조직이 별도로 구성돼야 하며, 체육지도자의 TO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세분화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체육 관련 팀은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체력 측정 및 운동에 관한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활에서 체육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문화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이 접목되면 장애인 재활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내 체육 조직(팀) 개설 의무화 등의 방법 이 필요할 거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같습니다. 체육조직이 있는 경우 체육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생애 주기별,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담자 A)

스포츠 관련 팀의 경우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 재활 및 스포츠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면담자 M)

A 장애인복지관 재활 운동실이 활성화되려면 체육관과 수중 재활 운동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하고 재활 체육 프로그램 만들고 생활체육까지 연결되는 시스템 필요 체육 프로그램이 좋겠습니다. B 발달지원센터는 전 교사의 체육 선생 화, 그 팀에 공통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팀은 스포츠 여가를 공부할 수 있는 팀, 그 팀 자체가 스포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토론도 하고, 피드백도 해야 하는 기반 구성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C)

수평적 관계의 변화보단 소통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램 진행과 행정업무의 시간 분배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면담자 G)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면담자 B)

〈표 10〉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 활성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육회 지도자 파견	체육회 지도자 파견	• 체육회 지도자들 재활시설에 파견, 이용자 관련 정보 공유
시설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전담 조직 및 지원 필요	• 체육 전담 조직 별도 구성 필요 • 장애인체육 조직 의무화 필요 과감한 지원 필요 • 장애인체육 전담하는 조직 필요
	지도자 및 조직 전문성 강화	• 재활 및 스포츠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5명 이상 구성 필요 • 체육지도자를 위한 TO를 높여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관련 사업을 세분화하여 생애 주기별 · 전문 · 생활, 등으로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음
	조직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B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 교사의 체육 선생 화로 공통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 • 스포츠 관련 팀은 스포츠를 공부하는 팀 • 전문성과 소속감 향상을 위하여 팀을 구성
	조직 운영방안	• 적절한 프로그램 시간 배치와 행정업무 시간 배치가 필요 • 체계적 전문적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 진행 필요 • 체력 측정 및 운동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 변화보다 소통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 진행과 행정업무의 시간 분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도 및 자원 연계 계획수립	•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활용한 바우처 사업도 필요 • 지역자원 연계는 지역사회통합 돌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성에 따른 관리	생애 주기별 지원방안	• 생애 주기별에 맞는 프로그램 · 인력창고를 갖춰야! •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관련 지역 정보제공도 필요
	특성에 따른 세부조직화 및 유기적인 관리	• 재활 팀과 체육팀을 구성하여 각 팀 이용자들이 재활에서 체육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재활 운동실, 체육관, 헬스장이 있는 곳은 유기적인 관리체계 필요 • 장애 영역별 또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구분하는 등 세분된 조직 필요

5)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 활성화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활성화로는 지원체계 마련 및 재원확보, 견문 확대 제고, 전문성 장비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예산지원 및 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이용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통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교구 구매 및 장애인체육회 협력을 통해 장비보강이 필요하다. 장비는 다각과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를 구성하고, 체력 측정을 위한 기본 장비 등을 구매한다. 많은 유형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장애인시설 유휴공간이나 지역의 유휴공간을 체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 편의 제공과 지도자들의 견문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의 헬스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 소속된 단체를 통해 장애인체육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과 연계하여도 좋을 것 같고 각 시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활시설의 확충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사는 거주지 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면담자 M)

> 외부 기관 제안서(Proposal)를 통한 사업지원,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세미나, 박람회 참가를 통한 견문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을 노력해야 합니다. (면담자 B)

>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용훈련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의 수많은 공공 체육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각 체육 공간에 전담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더 원활한 체육활동 및 진행을 돕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고 기존의 시설에 이동 동선에 구조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J)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경우 셔틀버스 등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면담자 E)

다각과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및 안정성의 문제가 없는 장비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면담자 G)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 기금마련이나 기부금 등 관련 펀드를 조성해서라고 계속된 보급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담자 N)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D)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활발하게 사회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있듯이 장애인체육 관련 연구를 해주면 좋을 듯 의회에 체육 전문 박사가 들어가 있긴 있으나 장애인체육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주연구원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자 C)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각 종목 전문체육지도자에 의한 합동훈련 및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도모에 따른 선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면담자 K)

〈표 11〉 체육 서비스 시설(편의시설 또는 장비)의 역할 및 방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체계 마련 및 재원확보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 시간 조정 등 원만한 합의 필요 • 장애인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장비보강 •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보급 활동 필요
	재원 마련	• 재원 마련을 통해 장비 교체 및 시설보수를 해야! • 체육활동에 필요한 교구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 · 증액
전문성 장비보강	전문 장비의 구비	• 다각과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구성 •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비 • 체력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장비 구매 필요
	이용자의 욕구 반영한 장비 구비	•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비 위주로 구비 • 많은 유형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장비 필요 • 장애인체육 활동 흐름에 필요한 교구 구매 필요
체육활동 시설 편의성 제고	체육활동 장소 계획수립	• 프로그램 실 확충, 강당 또는 체육관 필요 • 장애인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편의시설 설치	• 기존의 시설에서 장애인 이동 동선에 맞는 구조변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필요 •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셔틀버스 이동 편의 제공
예산지원 및 협력	정확한 예산체계 및 연구 필요	• 정부 소속된 연구단체가 장애인체육 연구 필요 • 예산체계가 정확하게 구축
	정부, 민간 같이 노력	• 정부 부처 · 지역 · 현장 전문가들 노력 필요 • 중앙 · 지방정부에 소속된 연구단체가 장애인체육 연구
	선수 육성	•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중점 지원 • 각 전문지도자에 의한 훈련 및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
견문 확대 및 유기적인 시스템화	견문 확대 및 유기적인 시스템화	• 제안서, 세미나, 박람회 참가를 통한 견문 확대 • 장애인체육관과 헬스시설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 • 경기장의 도우미 배치하여 장애인들이 경기 진행 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 장애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 건립 필요 • 지역 유휴공간 활용으로 재활시설의 공간 확보 • 재활시설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시설 공간 마련
	교통체계 활성 및 장비구입	•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활성화 • 첨단 장비 보급 및 교육활동 • 장비 대여 또는 50% 보조를 해주는 방법

Ⅵ. 논의

1.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

첫째, 체육 서비스 장애 요소로는 시설 부족 및 노후화, 지도자의 수부족 및 전문성 부족, 개인 특성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 이용 시간 배치의 문제, 인식 · 심리적 문제, 장비구입 및 비용에 문제, 장애 특성에 따른 배려 부족으로 나타났다. 체육 서비스와 신체활동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지도자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김권일, 박병도, 이철환, 2014)는 연구와 일치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휴관은 그나마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신체활동을 할 수 있었던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어려워 집에서 주로 생활하게 하였고 비대면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체육활동 프로그램 접근에도 문제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줌(ZOOM)으로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집안 환경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화면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pi.or.kr

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체육지도자들이 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세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 대안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문제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문제, 인력수급의 문제, 지도자의 전문성 부재, 지도할 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체육지도자들은 타 직무보다 급여가 낮으며, 승진이 어렵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다한 업무 등의 문제로 직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업 안정성이나 직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아 이용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위협받는 실정이다(조재훈, 2006)는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다. 체육지도자는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 또한 같은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관리를 주로 하지만 체육지도자는 직접적인 지도를 강요받는다. 또한 일반체육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종목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나, 장애인의 특성을 몰라, 장애인 지도 시 괴리감이 발생하여 장애인체육 참가자들과 마찰이 발생하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들은 장애 특성은 이해하나, 종목별 특성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반체육 지도자들은 장애 특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종목에 대한 지도 경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종목 중심의 체육활동,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족, 장비나 시설 등 기반 부족, 체육지도자에 대한 업무 과중 화로 인해 프로그램 질 하락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며(조재훈 2003), 체육 프로그램이 경기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 장애인들이 여가선용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지태, 2016)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특히 당사자주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 욕구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종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고, 비용이 덜 드는 종목인 탁구, 슐런(Sjoelen)[1], 당구 같은 종목을 선호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다른 종목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하고, 체육관 시간 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소속이 되어 체육과 취업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한 장소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해야 해서 체육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재활 운동실 등에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앉아 있는 예도 있

1) 슐런(Sjoelen)은 나무보드 위에서 퍽을 홀에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이다. –위키백과

다. 이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부담이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로는 팀 내 이해 부족의 문제, 예산 · 시설 · 장비의 문제, 체육지도자가 없는 경우로 인한 문제, 체육지도자와 사회복지사 간 소통의 문제, 업무 과중 문제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전담 부서가 대부분 없는 곳이 많아 장애인체육 담당자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사이에 업무 협조 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임찬규, 박병도, 김대현, 2011)는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았다. 체육 서비스 관련 조직이 없는 복지관이 많고, 있어도 체육지도자가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가 체육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사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어야 한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소속 선수들을 직업재활 조직에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체육 관련 조직에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상담 관련 조직에서 지원해야 할지 애매한 때도 있어 복지관에 있는 팀 간 소통을 통해 역할 구분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육 서비스 시설의 문제로는 장소 및 공간 부족의 문제, 공간 효율성의 문제, 편의시설 이용 및 노후화와 문제, 비장애인과 충돌 문제, 장비 부족의 문제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체육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열악하다(조재훈, 이재환, 2015)는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았다. 체육 시설의 부족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문체육인들이 아니면 운동 할 수 있는 공간 사용이 제약되고 있고 장비는 고가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쉽게 사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도 모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재활시설에서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기구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에서 지원받지 못해 사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C 장애인체육센터는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장비를 설치하여 보이지 않아 소리에 민감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었으며 체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들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비싸지 않고 안전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체육 장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된다.

2.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활성 요인

첫째, 장애인체육의 초기접근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진행 방안, 체육 관련 정보제공, 재활 및 체육 정보제공, 시설 보강 및 접근성 향상, 놀이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및 흥미의 조화, 체육행사 기회 제공, 장애인체육 인식의 변화, 예산지원을 위한 정부 · 민간 상호노력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장애인전용 체육 시설 우선 설립이 필요하다(박봉순, 2013). 용필 성(2013)은 중 · 장기적 발전 계획수립 및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창은(2008)은 장비 가격 절감, 장비 대여제도, 장비구입 비용 지원을 이야기하여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장애인체육은 병원의 재활 운동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과 병원의 체육 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명확히 하여, 원활하게 생활체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장애인복지관에 신규로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오는 경우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체육에 대해 아는 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장애인체육 전반의 정보와 생활체육 클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체육 지도자 역할 향상 요인으로는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체육회 지도자를 자원 연계를 통해 활용하며,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장애인체육 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2013) 연구에서 각 지자체 급여체계의 단일화와 공무원 수준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2017) 연구도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공무원 보수 수준의 기준선 준수 등 급여 인상과 복지포인트 도입, 연차 보상비 지급 및 대체휴일제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의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시간 조정,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한 업무 과다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박종욱, 2017)는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았다. 따라서 장애인체육 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처우개선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 연계를 통해 체육지도자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의 대두는 체육지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체육지도자만의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것보다 같은 직업군과 협력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전 직원을 체육 교사 화하려는 B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큼 아니더라도 체육 업무 담당자와 관심 있는 직원들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정립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체육 업무를 진행하는 사

회복지사 중에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직접 지도해 보게 하여 체육지도자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 생각되는 만큼 사회복지사를 동료로 인식하고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복지수당을 지급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타 영역의 종사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게끔 하는 사례는 좋은 사례로 생각되며, 최근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고충 처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전문지도자 확보,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제공, 체계적인 관리 및 인식개선 필요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위험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그리고 유년 시설부터 장애인 ·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김지태, 2016)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복지관의 예산만으로는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사업 공모와 한국 장애인 체육진흥회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 관련 팀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팀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팀에서 건강이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도 있는 만큼 복지관 내부적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체육 지원조직 활성화 요인으로는 체육회 지도자를 재활시설에 파견하여야 하며, 이용자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내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세부조직화 및 유기적인 관리로 나타났다. 체육회 지도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조재훈 등, 2015)는 연구 결과와는 상관되며. 장애인체육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김권일, 성문정, 임찬규, 강유석, 2010)는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 조직이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이 제일 좋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의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협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들도 체육 서비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체육 관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 간 토론문화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체육 관련 교수들을 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의 질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육 서비스 시설 활성화 요인으로는 지원체계 마련 및 재원확보, 체육활동 시설의 편의성 제고, 장애인 전문체육 장비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예산지원 및 협력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법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 확보 및 주차 공간 확보, 셔틀버스 운행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조재훈, 2003) 체육활동을 위해 우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구조변경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조재훈 등, 2015).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재활단계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활서비스를 집중해야 하며, 생활체육으로 전환은 체육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16)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해 시설을 보강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최근 사회복지 기준선에 관한 연구 지역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계와 연계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어야 하며, 장애인체육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 요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활성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던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체육지도자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체육 서비스 지원조직의 문제, 체육 서비스 시설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애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휴관 등은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축소하고 있어 찾아가는 체육 서비스 및 비대면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고령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비대면 줌(ZOOM) 교육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몰라 낯설어하는 만큼 그 개별 특성에 맞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체육 서비스 활성 요인으로 초기접근 향상, 장애인체육 서비스 지도자 역할 향상,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 서비스 지원 조직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병원에서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화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재활단계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해 재활 운동 및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복지관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을 통해 지도자 파견,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찾는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초기상담부터 장애인체육 특히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체육지도자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체육을 토론하고, 연구 할 수 있도록 복지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어울림 대회를 통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수체육 관련 교수들을 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장애인 건강 권법’에서 재활 운동 및 체육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지만 예산 부족, 관련 기관의 역할 모호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주무 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인 평생교육, 권익옹호, 장애인체육, 직업재활, 다양한 역할 등이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분리 확장되고 있지만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방향과 역할이 미비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안내서에 장애인복지관 체육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구체적으로 지침서화 하는 것도 필요하며 기관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관 체육에 생각하는 활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체육 관련 현황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무 부처의 장애인복지관 체육 현황에 관한 조사 및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활치료(물리치료 등), 재활 운동 및 체육,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방법은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이다. 정책적으로 장애인 건강 권법 제15조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재활 운동 및 체육에 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15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기보다,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업안내 등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체육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재활 운동 및 체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강동헌, 박지영, 호승희, 은선덕, 이금주, 임승진**(2020).**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8(1), 15-30.**

경기일보(2021. 8 .4)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 어디로.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0643

김권일, 유지곤, 한태룡, 최승권, 조재훈, 채재성, 용필성, 유홍율, 서은철**(2011)**. **장애인전용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대한장애인체육회.

김권일, 성문정, 임찬규, 강유석**(2010).** 장애인체육 행정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시군구 지부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3), 1-14.**

김권일, 박병도, 이철환**(2014).** 장애인 생활체육 문제점 분석 및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3), 103-118.**

김영천**(2012). 질적연구 방법론** 1**: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지태**(2016).**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1), 763-771.**

김창은**(2008). 장애인의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구.

대한장애인체육회**(2016). 공공 체육 시**설의 **정당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매뉴얼.**

대한장애인체육회**(2021). https://sports.koreanpc.kr/front/main/main.do**

문화체육관광부**(201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민솔희**(2016). 인권 패러다임 관점의 장애인 체육활동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천안.

박봉순**(2013). 모터스포츠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PolicyDelphi- 기법과 AHP를 이용-**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목포.

박종욱**(2017). 장애인복지관 체육종사자의 직무 불안 요인 해소 우선순위.**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천안.

배성우, 최귀정, 이현수**(2019).** 지체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생성 감과 상실감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2), 71-82.**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2017). 2017년 처우개선 현장 실무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서연태, 한희창, 김해미**(2009).** 재활 체육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 조성, 대 동작 운동기능 및 일상생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 17(2), **99-119.**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서울복지재단**(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서해정, 조재훈, 김재근(2017). 지역사회기반의 재활 체육 지원체계에 관한 독일과 일본 비교 연구. **재활복지, 21(3), 107-127.**

손인석, 이인경, 박병도**(2008).**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장애인체육 목표인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6(1), 71-93.**

용필성**(2013)**. **장애인체육 정책**에 **대한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2020)**. **장애인복지론 4판**

오준협**(2019).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역할 및 방안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천안.

임찬규, 박병도, 김대현**(2011).** 장애인체육행정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1), 69-8**

오화영**(2016).**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여성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9(1), 131-160.**

이슬기. **(2018. 11. 0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관도 탈바꿈**. 에이블뉴스.

조성훈**(2002)**. 한국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학술대회지

조용환**(2009)**. **고등학생의 학업 생활과 문화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재훈**(2003). 당사자주의 관점에 따른 지체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모형.**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재훈**(2006).** 장애인복지관 체육 및 운동 치료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487-496.**

조재훈**(2014).** 장애인 재활 체육의 딜레마와 생활체육과의 연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4), 75-86**

조재훈, 이재환**(2015).** 문화체육관광부 체제의 장애인 생활체육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3(4), 127-140.**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18)**.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 및 사회 경제적 효과(최종보고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21). http://www.hinet.or.kr/.**

Creswell,J.W.(2009).“**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3rd).”** Thousand Oaks. Ca: Sage.

A study for activation methods of sport services at reg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 Focusing o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

Oh, Jun Hyup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Doctoral Researchert
Cho, Jae Ho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roles, and activation methods of sport services at reg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ur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suggest the basic data to society to strengthen sport program contents and professionalism. The In-depth interview of this reasearch was applied to 15 physical activity leasers and/or administrators who are professionals in the field.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as implemented as the reasearch tool of this investigation. Inductive category analysis among qualitative reasearch was used to categorize the data.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blems of sport service at reg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disable factors of sport service, physical activity leaders, problems of program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service facilities. Second, plans of activation of adapted sport services at reg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improvement of initial approaches, developing role of physical activity leaders, promoting programs of sport services, stimulating sport service organization, and revitalizating spor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 key words : Reg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ocial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y, Health Ac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Adapted Sport, Rehabilitative Sport.

논문투고일 : 2021. 10. 15.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16.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75-192.

한국수어 사용 농인의 문화재 설명문 이해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과학기술원 박사후 연구원 **백현아****
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김지용**
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김태욱**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최원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농인들이 수어로 표현된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해설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이해도가 농인들이 언어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국립박물관에서 사용되는 설명문과 새로이 제작된 설명문을 수어로 번역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 농인 참가자들은 수어 영상을 보고 각 문장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고, 그 문장이 설명하는 문화재에 대한 참/거짓 문제에 응답하였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평균 문장 이해도는 보통 이상이었지만, 각 참가자들의 문장 이해도와 참/거짓 문제에 대한 응답 정확도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참가자 개개인의 문장 이해도는 그들의 수어 습득 나이, 수어 사용 나이, 수어의 수용적 유창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농인들이 박물관을 관람하며 전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언어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농인들이 보고 이해하기 쉬운 수어 해설문을 제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국수어, 박물관 수어 해설, 수어 습득 나이, 수어 사용 나이, 수어 유창성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컨텐츠진흥원의 2021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R2020060002)으로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wichoi@gist.ac.kr)

Ⅰ. 서 론

인간의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겨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권에 대한 선언은 문화 향유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Belver, Ullán, Avila, Moreno, & Hernández, 2018; Binnie, 2010). 예를 들어 Binnie(2010)의 조사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관람한 후 불안 수준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보고하였다.

문화 향유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화 향유 경험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신경인지장애 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문화 향유 경험이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Young, Camic, & Tischler, 2016). 예를 들어, Eekelaar, Camic, 그리고 Springham(2012)에 따르면, 공공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관람한 뒤 작품 제작 체험활동을 한 경우, 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의 일화 기억이 향상되고, 정서와 자신감이 고양되며, 고립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경우 역시 이러한 문화 향유 경험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 예를 들어 박현주(2010)는 직접적으로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12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후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진옥과 정무성(2013)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이 지적장애인들의 감수성과 인지적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문화 활동이 장애인들의 인지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제4조),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활동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8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8조). 이러한 기조 하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 경험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들이 개발 및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오선애, 2012; 오승하, 조성제, 2014; 이문화, 2014). 오승하와 조성제(2014)는 영월군 소재 21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의 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관람시스템 역시 장애인들에게 특화되어 구축된 것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수경과 구보경(2019)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지난 1년간 미술관, 전시회, 박물관, 동물원, 테마파크 등의 전시시설을 관람한 경험 여부에 대해 단지 12.8%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관람률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다행인 점은 이러한 전시시설에 대한 낮은 관람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의 박물관 관람을 위해서는 농인 수어해설가나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최상배, 홍성은, 허일, 이미혜, 안영희, 2015),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전시시설에 이러한 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들의 전시물 관람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Carrizosa, Sheehy, Rix, Seale, & Hayhoe, 2020). 예를 들어 Choi, Son, 그리고 Kim(2009)은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의 전시물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전시공간과 청각장애인들에게 적용하였다. 이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청각 정보를 시각이나 촉각 정보 등의 다른 감각 정보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들의 전시시설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이 전시물을 효과적으로 관람하도록 돕기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기기들 역시 사용되고 있다(Ruiz, Pajares, Utray, & Moreno, 2011).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의 박물관 경험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Baker, Baker, Zulkifli, 2018). 이러한 기술적 시도 이외에도 McMillen과 Alter(2017)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장애인들이 자신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박물관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들의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상배 등(2015)은 국내 농인들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응답 농인들의 과반 수 이상이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 동영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전시물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기기가 농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더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세 곳을 묻는 질문에서 유명 관광지, 영화관과 함께 박물관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최상배 등(2015)은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어 해설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농인 대상 서비스는 해외 박물관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arbosa, Amorim, & Leal Ferreira, 2019; Jankowska et al., 2017; Milicchio, & Prosperi, 2016). 예를 들어, Jankowska 등(2017)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박물관 관람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Open Art application을 개발하여 폴란드의 박물관에서 사용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청각 언어(폴란드어와 영어), 자막, 그림 자료, 폴란드 수어 등을 모두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전시물 접근성을 높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장애인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통해 박물관 방문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해외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인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고, 국내 박물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과 같은 전시시설에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한 해설문 자체가 얼마나 농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느냐이다. 최상배 등(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수어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수어 교육 기관이나 수어 교사의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한 해설문을 수어로 표현할 때는 이를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난이도나 표현 방식과 같은 언어학적 측면의 고려 역시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 해설문에 사용된 국어 어휘가 고유명사나 저빈도 어휘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이를 수어로 적절하게 변환하는 것은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들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구 개발을 위한 선결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청각장애인의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언어학적 측면의 경험적 기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인들이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수어 해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한국어로 기술된 실제 박물관 전시물의 해설문을 수어로 바꾸어 그 수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도가 농인 개개인의 수어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Ⅱ. 연구 방법

1. 실험 자료

실험은 크게 언어 배경 설문과 문장 이해도 평정 과제로 이루어졌다. 언어 배경 설문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나이, 청력을 잃기 시작한 나이, 수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시작한 나이, 수어 유창성에 대한 자기평가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실제 설문에 사용된 문항과 관련 변인들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수용적 유창성과 생산적 유창성의 경우 참가자들이 본인의 유창성을 7점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1: 전혀 유창하지 않음, 4: 보통, 7: 매우 유창함).

〈표 1〉 주요 언어 배경 변인과 설문 문항

언어 배경 변인	설문 문항
청력 손실 나이 (Age of hearing loss)	귀하가 듣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수어 습득 나이 (Age of acquisition)	수어를 처음 배웠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수어 사용 나이 (Age of use)	수어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수용적 유창성 (Receptive proficiency)	귀하는 수어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 스스로 얼마나 유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적 유창성 (Productive proficiency)	귀하는 수어로 표현하는 데에 스스로 얼마나 유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장 이해도 평정 과제에는 총 40개의 수어 영상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화기반시설 영역의 수어 해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세 곳의 국립박물관(광주, 나주, 공주)에서 사용되는 문화 해설문을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문화 해설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수집한 해설문을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지원팀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농인 번역가 3명과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어로 번역하였다. 먼저 농인 번역가 3명이 주어진 해설문을 수어로 표현한 후, 표현된 문장의 의미 및 수형에 대하여 수어 통역사가 교정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번역 스크립트를 토대로 문화해설문의 수어 번역 영상을 촬영하였다.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는 실제 유물의 사진과 한글 자막을 삽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총 40개의 영상은 각각 하나의 역사적 시대 또는 유물에 대한 설명

으로, 2-8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시 유물(세형동검) 사진을 포함한 설명문 영상 화면과 전체 설명문의 예시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만들어졌으며, 청천강 이남 지역에 분포한다. 검의 형태가 좁고 가늘어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한다. 칼끝과 등날, 등대, 슴베로 구성되며 2개의 마디 사이에 결입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파형동검처럼 검신과 자루를 따로 제작한다. 전국적으로 140여 점 발견되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6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 전시 유물(세형동검)에 대한 수어 설명문 영상 화면과 설명문 예시

수어 영상 중 25개의 영상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9개의 영상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6개의 영상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유물에 대한 설명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 자료에 포함된 문장의 개수는 총 187개였다.

2. 실험 절차

실험 장소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실험 내용,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약 10-20분 동안 수어 통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언어 배경 설문에 응답하였다.

문장 이해도 평정 과제에서는 참여자들이 40개의 설명문 영상에 포함된 총 187개의 문장 영상을 본 후, 각 문장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1: 전혀 이해할 수 없다, 4: 보통이다, 7: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자들의 설명 문장에 대한 실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40개의 영상 중 16개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묻는 간단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동의서 서명과 언어 배경 설문, 문장 이해도 평정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실험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실험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3. 실험 참여자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총 44명의 성인 농인이 실험에 참여하였다(남: 13, 여: 31). 실험 당시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SD=14.5)였다. 44명의 참가자들은 3–5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집단으로 나뉘었고, 각 집단의 참가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한 참가자는 모든 문장에 대해 가장 낮은 이해도 점수를 일관되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43명의 참가자 중 40명은 모두 10살 이전에 청력을 잃은 반면, 세 명은 청력 손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늦었다(각 24, 30, 40세). 타당한 통계 분석을 위하여 10살 이후에 청력을 손실한 세 명의 참여자가 추가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은 총 40명이었다(남: 11, 여: 29).

4. 분석 방법

언어 배경 설문을 통하여 〈표 1〉에 제시된 다섯 개의 배경 변인을 추출하였다. 청력 손실 나이, 수어 습득 나이, 수어 사용 나이는 해당 나이를 반영하는 연속 변인으로, 유창성에 대한 자기평가는 1–7점 사이의 서열 변인으로 코딩되었다. 문장 이해도 또한 1–7점 사이의 서열 변인으로 코딩되었으며, 참/거짓 문제에 대한 각 응답의 정확도는 0점(오답) 또는 1점(정답)의 범주 변인으로 코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version 4.0.3, R Core Team, 20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기술통계와 데이터 분포를 살펴본 후, Hmisc 패키지(version 4.5–0, Harrell Jr., 2021)의 rcorr() 함수를 사용하여 각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Pearson's r)와 그 유의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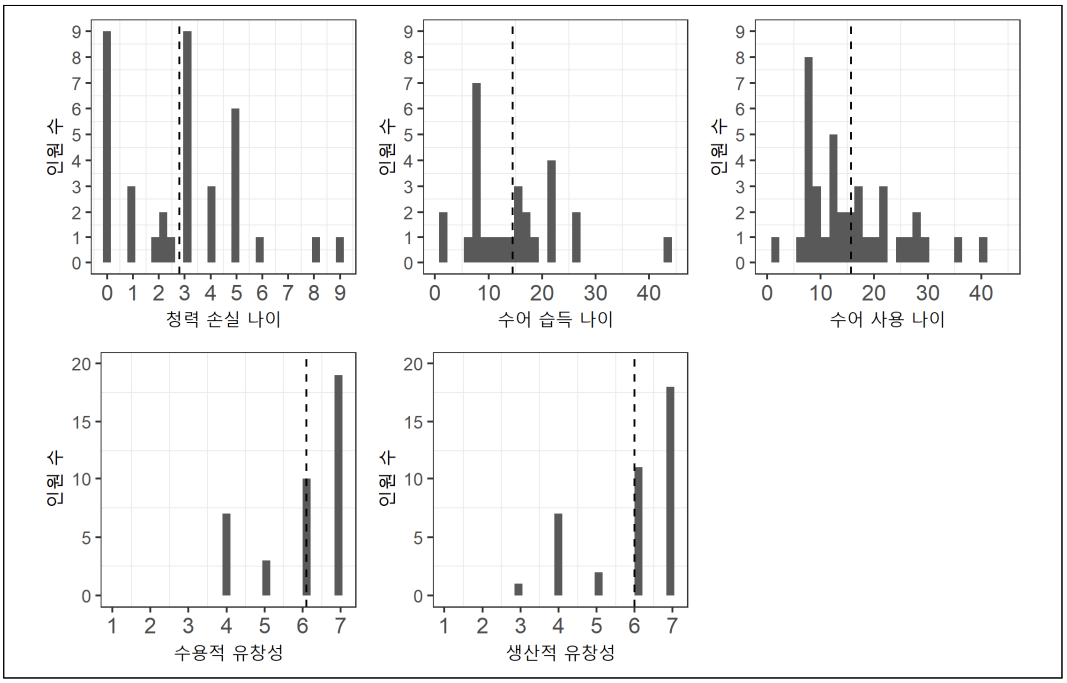
Ⅲ.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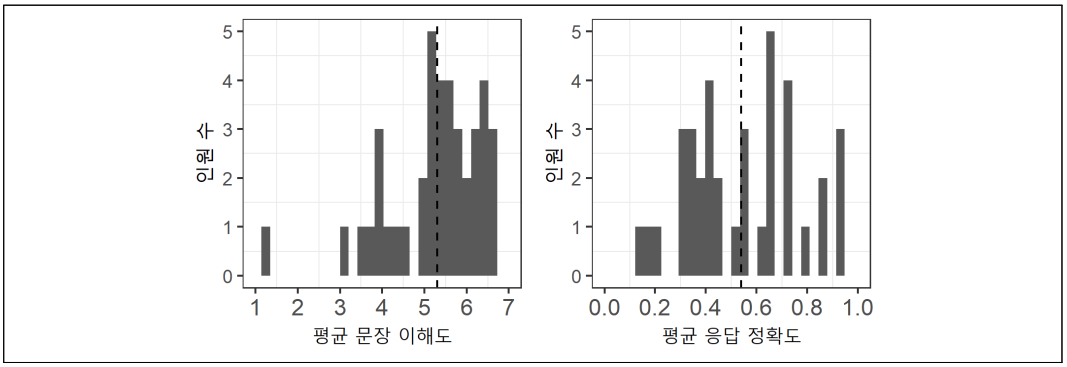
설문을 통해 얻은 다섯 개의 언어 배경 변인에 대한 응답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참가자들의 평균 청력 손실 나이는 2.8세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5세 또는 그 이전에 청력을 손실하였다고 답했다. 특히 9명은 출생 시점부터 듣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력 손실 나이가 가장 높은 참가자는 9세부터 청력을 손실하였다고 답했다. 반면 참가자들의 평균 수어 습득 나이는 14.5세로, 참가자들이 청력을 손실한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 중 절반(20명)은 20세 이전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0세 이후에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수어 사용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평균 15.7세로 평균 수어 습득 나이보다 조금 늦었으며, 2세와 40세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어 유창성의 경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스스로 보통 이상의 유창성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수어를 보고 이해하는 수용적 유창성은 평균 6.1점, 수어로 표현하는 생산적 유창성은 평균 6.0점으로 응답하였다.

문장 이해도 평정 과제를 통해 얻은 참가자들의 평균 문장 이해도와 참/거짓 문제에 대한 평균 응답 정확도는 [그림 3]과 같다. 수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5.3점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이 보통 정도 이상으로 문장을 이해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각 참가자들의 평균 이해도는 1.3점과 6.7점 사이에 넓게 분포되었으므로 참가자 간 이해도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참/거짓 문장에 대한 응답 정확도는 평균 0.54로, 참가자들이 약 50%의 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혔다. 그러나 문장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각 참가자들의 평균 응답 정확도 또한 0.15와 0.93 사이에 넓게 분포하여, 참가자 간 응답 정확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그림 2] 언어 배경 변인 분포. 점선은 평균값을 나타냄.



[그림 3] 문장 이해도와 응답 정확도 분포. 점선은 평균값을 나타냄.

3. 언어 배경과 문장 이해도 및 응답 정확도의 상관관계

각 언어 배경 변인과 문장 이해도 및 응답 정확도 사이의 상관관계와 유의도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청력 손실 나이는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농인들이 청력을 언제 잃었는지는 수어를 언제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하는지, 또는 수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사용하거나 이해하는지 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어 습득 나이는 수어 사용 나이 및 평균 문장 이해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림 4]). 이는 수어를 일찍 배운 참가자들이 수어를 늦게 배운 참가자들보다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를 더 일찍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수어를 일찍 배운 참가자일수록 박물관의 설명 문장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전반적으로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수어 사용 나이는 수용적 유창성, 생산적 유창성, 평균 문장 이해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그림 5]). 다시 말해, 어린 나이에 수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수용적, 생산적 유창성이 더 높았다. 또한 일찍 수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참가자들일수록 박물관의 설명 문장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어의 수용적 유창성은 수어의 생산적 유창성과 문장 이해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그림 6]). 수어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 유창한 참가자들일수록 수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더 유창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가 수어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 유창하다고 느끼는 참가자들일수록 박물관 설명 문장들을 더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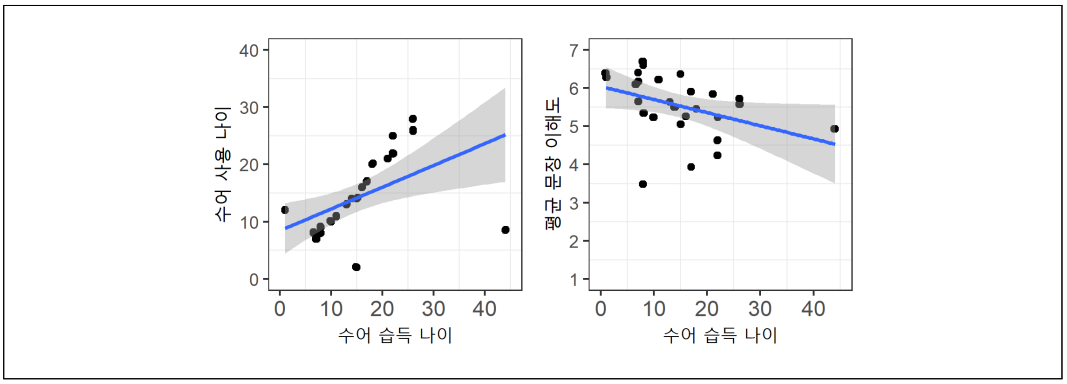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평균 문장 이해도는 평균 응답 정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그림 7]). 즉,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각 설명 문장이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문장 내용에 대한 참/거짓을 묻는 문제에도 실제로 더 정확한 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언어 배경 변인과 문장 이해도, 응답 정확도 사이의 상관관계(Pearson's r) 및 유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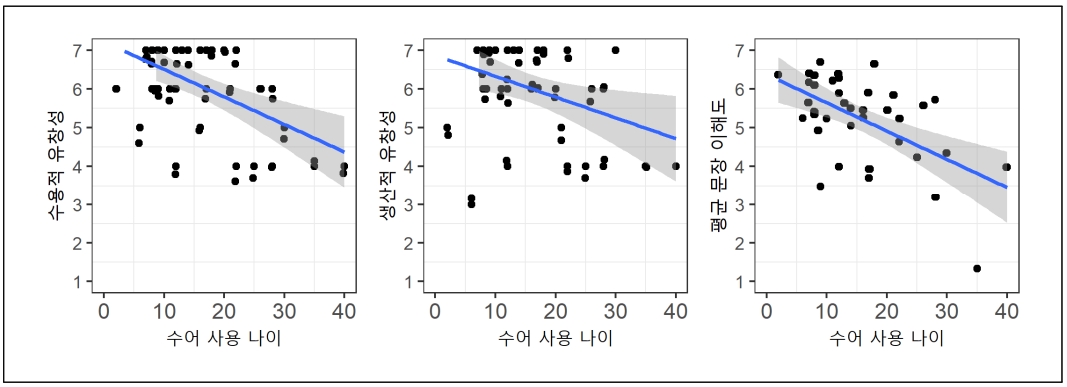
	수어 습득 나이	수어 사용 나이	수용적 유창성	생산적 유창성	평균 문장 이해도	평균 응답 정확도
청력 손실 나이	0.05	0.20	−0.06	−0.12	−0.18	−0.22
수어 습득 나이		0.51 **	−0.31	−0.32	−0.39 *	0.21
수어 사용 나이			−0.56 ***	−0.39 *	−0.56 ***	−0.24
수용적 유창성				0.86 ***	0.40 *	0.11
생산적 유창성					0.32	0.01
평균 문장 이해도						0.44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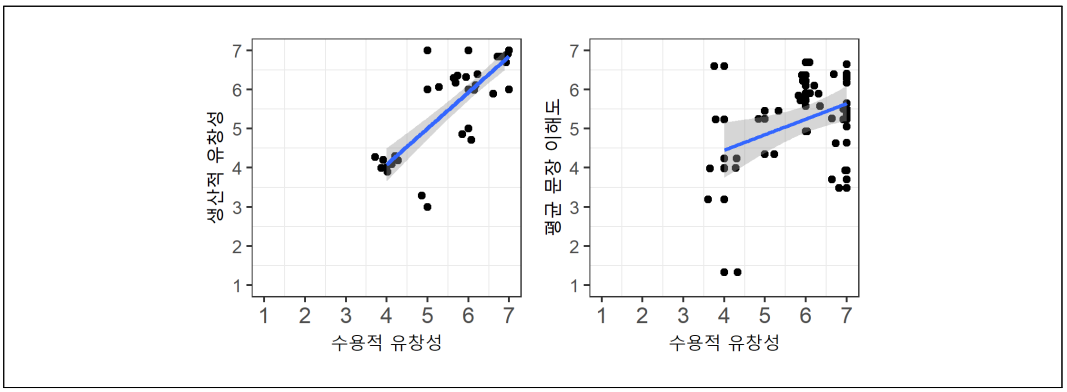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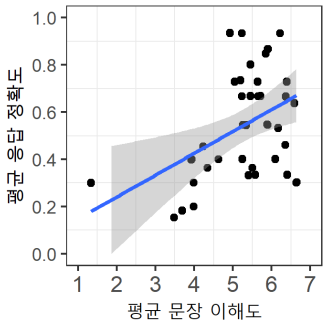
[그림 4] 수어 습득 나이와 수어 사용 나이 및 평균 문장 이해도와의 상관관계



[그림 5] 수어 사용 나이와 수용적 유창성, 생산적 유창성, 평균 문장 이해도와의 상관관계



[그림 6] 수용적 유창성과 생산적 유창성 및 평균 문장 이해도와의 상관관계



[그림 7] 평균 문장 이해도와 평균 응답 정확도의 상관관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인들이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수어 해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이해도가 농인들의 언어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가한 농인들이 수어로 표현된 박물관 설명 문장들의 이해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한 결과, 문장 이해도는 평균 5.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그러나 각 참가자들의 평균 문장 이해도는 1.3점과 6.7점 사이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보통 이상의 평균 점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인들 중에는 박물관의 설명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평균 문장 이해도는 참/거짓 문제에 대한 평균 응답 정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문장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실제로 문장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장 이해도는 40개의 설명문에 포함된 총 187개의 개별 문장에 대한 이해도 평정 결과인 반면, 응답 정확도는 40개의 설명문 중 16개 설명문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기 때문에 두 변인이 같은 문장들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변인 사이의 상관계수가 0.44에 그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언어 배경과 문장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참가자들의 문장 이해도는 그들의 수어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pi.or.kr

습득 나이, 수어 사용 나이, 수용적 유창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수어를 일찍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어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 스스로 유창하다고 느끼는 참가자들은 문장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던 반면, 수어를 늦게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하여 수용적 유창성이 낮은 농인들은 박물관 설명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이다. 이러한 참가자들에게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전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수어 능력의 개인차가 언어 이해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다. Meronen과 Ahonen(2008)에 따르면, 핀란드 수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수어 능력의 개인차는 농인 아동의 어린 시절 수어 유창성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어린 시절 수어 유창성이란 부모의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값인데, 아동이 처음 수어를 사용한 나이, 부모의 제 1 언어, 아동의 수어 학습 유창성 정도, 가족의 수어 학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도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설명문에 대한 이해도와 수어 사용 시작 나이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수어 능력의 개인차에 관한 외국의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시발점으로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수어 능력과 읽기 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추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세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농인들의 수어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언어 배경 설문을 실시하여 이 추정치들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한국 수어 능력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패널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를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예: 이준우 외, 2020).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사용자들의 수어 유창성에 대한 조사는 5점 척도를 사용한 자기평가에 그쳤다.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청각 언어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온 것과 같이 수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언어 능력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어가 유창한 농인들조차 박물관 설명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박물관 설명문 자체가 수어로 표현하거나 농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술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문에는 지역명이나 사람 이름과 같은 다양한 고유명사 뿐 아니라 '껴묻거리', '방대형', '평저선' 등 저빈도 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설명문을 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

설문이 담고 있는 전반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어휘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일반명사나 고빈도 어휘로 변환한다면 농인들의 문장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 설명문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농인들이 보고 이해하기 쉬운 수어 해설문을 제작하는 것은 이들의 박물관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수어 능력의 개인차가 언어 이해 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 농인들의 수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의 교육 및 교사 실태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수어의 교육과정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최상배 등, 2018)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어 능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최상배, 이종민, 이한나, 2016). 따라서 수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농학교 교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등 농인들의 수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적 청력을 일찍(10세 이전) 잃은 성인 농인들로 선정되었으며, 수어 유창성에 대한 자기평가 문항에 있어서는 스스로 보통 이상의 수어 유창성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인구의 80% 이상이 10세 이후에 발생한 후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성인 농인 인구의 20% 이상이 20세 이후에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이준우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험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교육정도나 생활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성인 농인들 중 본 연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두 시간 동안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풀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참고문헌

박현주 (2010).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 연구, 1**(1), 15-36.

오선애 (2012). 박물관의 정보 전달을 위한 촉각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1), 617-625.

오수경, 구보경 (2019).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현황 연구. **예술교육연구. 17**(4), 1-17.

오승하, 조성제 (2014).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의 실태 분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11), 6659-6668.

이문화 (2014).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67-274.

이준우, 정지웅, 오미애, 정희찬, 조정환, 오진영, 강이슬 (2020).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 국립국어원.

정진옥, 정무성 (2013).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349-369.

최상배, 윤석민, 황윤재, 이율하, 안석준, 김상화, 남미정 (2018).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9**(1), 117-134.

최상배, 이종민, 이한나 (2016).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어능력에 대한 인식과 수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119-144.

최상배, 홍성은, 허일, 이미혜, 안영희 (201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실태와 개선 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615-635.

Baker, E. J., Bakar, J. A. A., & Zulkifli, A. N. (2018, September). Mobile augmented reality for hearing impaired museum engagement (MARHIME): A conceptual model. In *AIP Conference Proceedings* (Vol. 2016, No. 1, p. 020031). AIP Publishing LLC.

Barbosa, P., Amorim, P., & Leal Ferreira, S. B. (2019, October). Augmented reality and museum accessibility: a case study to support hard of hearing people. In *Proceedings of the 18th Brazilian Symposium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10).

Belver, M. H., Ullán, A. M., Avila, N., Moreno, C., & Hernández, C. (2018). Art museums as a source of well-being for people with dementia: an experience in the Prado Museum. *Arts & Health, 10*(3), 213-226.

Binnie, J. (2010). Does viewing art in the museum reduce anxiety and improve wellbeing?. *Museums & Social Issues, 5*(2), 191-201.

Carrizosa, H. G., Sheehy, K., Rix, J., Seale, J., & Hayhoe, S. (2020). Designing technologies for museums: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issues. *Journal of Enabling Technologies, 14(*1), 31-39.

Choi, J., Son, H., & Kim, Y. (2009). A Study on an Experience Exhibition Space for the Hearing-disabled using Ubiquitous Technology. *한국콘텐츠학회 ICCC 논문집*, 187-192.

Eekelaar, C., Camic, P. M., & Springham, N. (2012). Art galleries, episodic memory and verbal fluency in dementia: An exploratory stud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6*(3), 262–272.

Harrell Jr., F. E. (2021). Hmisc: Harrell Miscellaneous. R package version 4.5-0. https://CRAN.R-project.org/package=Hmisc/.

Jankowska, A., Szarkowska, A., Krejtz, K., Fidyka, A., Kowalski, J., & Wichrowski, M. (2017). Smartphone app as a museum guide. Testing the Open Art application with blind, deaf, and sighted users. *Rivista internazionale di tecnica della traduzione, 19*, 113-130.

McMillen, R., & Alter, F. (2017). Social media, social inclusion, and museum disability access. *Museums & Social Issues, 12*(2), 115-125.

Milicchio, F., & Prosperi, M. (2016, June). Accessible tourism for the deaf via mobile apps. In *Proceedings of the 9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Technologies Related to Assistive Environments* (pp. 1-7).

Meronen, A., & Ahonen, T.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sign language abilities in deaf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2*(5), 495-504.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Ruiz, B., Pajares, J. L., Utray, F., & Moreno, L. (2011). Design for All in multimedia guides for museu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4), 1408-1415.

Young, R., Camic, P. M., & Tischler, V. (2016). The impact of community-based arts and health interventions on cognition in people with dementi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ging & mental health, 20*(4), 337-35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rehension of cultural heritage descriptions by deaf signers of Korean Sign Language

Baek, Hyun Ah
GIST, Postdoctoral Researcher
Kim, Ji Young
KCTI, Researcher
Kim, Tae Wook
KCTI, Researcher
Choi, Won Il
GIST,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rehension of museum guide in Korean Sign Language (KSL) for cultural heritage exhibitions by Korean signers and explored language-related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comprehension. To this end, a database of cultural heritage descriptions from national museums was created and translated into KSL, and sign guide videos were recorded. Forty-four adult deaf signers participated in a comprehensibility rating task, in which they were asked to rate the comprehensibility of each sentence on a 7-point scale and respond to True/False comprehension questions about the guides.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comprehensibility ratings were 5.3 on average, which is higher than the midpoint of the scale. However, there was a large variation both in individual participants' mean comprehensibility ratings and in their mean response accuracy to the True/False questions. In addition, individual participants' mean comprehensibility rating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age of KSL acquisition, age of initial KSL use, and receptive proficiency in KS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 number of signers would have difficulty visiting and appreciating museum exhibitions and suggest that a psycholinguistic approach must be taken to improve museum guide in KSL for better comprehensibility.

■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museum guide in sign language, age of sign language acquisition, age of sign language use, sign language proficiency

논문투고일 : 2021. 10. 15.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2, No. 2, 193-225.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on the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of Unemploy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er **Kim, Young Jun***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Professor **Kim, Wha Soo****

【국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on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of people with unemploye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were staying at home in the state of unemployment after graduating from a special school.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of shampoo rooms in hair salons including bathrooms in the home. In the study method,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among the main techniques of single subject research was used for the research design, and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composed of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effectively acquired and maintained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through the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Through this, this study discuss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key words : Contents in Workplaces, Convergence,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whasoolang@hanmail.net)

Ⅰ. Introduction

1. The Needs and Objectives of Research

The current education fiel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many limitations due to COVID-19. For example, there are many face-to-face difficul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cess schools and other daily life facilities in the area (Kim, 2015). Especially,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who live an isolated and dependent life in the state of unemployment at home or facility after graduation from school are more desperately experiencing the difficulties (Kim & Park, 2020). Nevertheless, the support of education should continue even for the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Considering the quality of life that mos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 not get a job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and are helped by parents at home and living in an uneconomical lif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greater (Han, Kim & Joo, 2020; Kim, 2020; Kim & Kang, 2013). Even if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is difficult due to COVID-19, it is essential to solve it.

General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ulthood cannot be guaranteed special educ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such as school age, so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guaranteeing the rights and achievements of education. The education field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adulthood can be referred to as lifelong education (Hong & Cho, 2018; Oh, 2003). Lifelong education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e main object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adulthood, even though it covers both school age and adulthood. In the current trend of education, the opportunities, qualitativ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re not satisfactory (Kim, 2017). Of course, in order to actively guarantee the right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laws at the national level or to establish lifelong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education centers using idle spaces in the region, but this is just satisfied with physical level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adulthood, lifelong education is not reflected as a support system for compulsory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tself is oper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it is not connected to practical achievements such as job linkage to the developmental disabled (Kim & Lee, 2020; Park, 2013). These limitations can b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curriculum of lifelong education itself is insufficient, including social situations such as COVID-19 discussed above.

What alternatives are needed to activate the foundation of the curriculu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is can be thought of in two main ways. The first is how specifically the contents, methods and procedures of educational programs organized and operated in the curriculum can be developed. This is the expertise of lifelong education itself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and the performance capacity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in charge of it.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ich institutions will operate the educational programs developed in this way (Kim, 2017). For example, it can be concentrated by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above two are discussed and emphasized in the research trend of lifelong education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but the cases that present or generalize specific methodology related to this are not greatly activated. In other words, it has been discussed to the extent that it looks a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at the policy level (Han, Kim, & Joo, 2020; Kim, Choi, & Lee, 2021; Kim & Kwon, 2021). Howeve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not just a welfare of service but a field of education in support, so performance management by cooperation between curriculum and related organizations can not be neglected (Kim, 2018; Kim, Kim, & Kwon, 2021; Kim & Lee, 2020; Lee & Heo, 2017).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verifying cases that can actively appl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unemployed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nline-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which converging contents of businesses, on job skills for beauty assistan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unemployed state. First, the reflection of online base as an execution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s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of COVID-19 (Kim & Shin, 2021). And the other main factor of independent variables is that they used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Generally, the part where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use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to cultivate their self-reliance ability is possible in order to approach the actual workplace, and the opportunity is also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on an online basis and to clarify the procedure of which infrastructure is possible through the infrastructure in the workplace where the expertis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data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special education research field that has been in charge of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the school age is also considering the contents such as beauty assistant job skills (Kim, 2017; Kim, Do, Lee, & Park, 2014).

2. Definition of Term

1)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The term of intervention program consisting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is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at converging workplace contents. The term of workplaces convergence was used because it was used as contents of audiovisual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for intervention program by taping the overall job environment, utilization tools and materials of the workplace, and job performance scenes as online videos. In particular, the employer of the workplace is a model as a instructor on the video screen, and includes a teaching and learning procedure that demonstrates job

www.k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performance. Through this, the instructor and the research subject effectively interacted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research subjects at home were mediated through online video tools by reflecting the environment of the workplace, various tools, materials, and job performance scenes as contents, a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involv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target behaviors in the corresponding job environment of the workplace that provided the contents of the home, so the convergence of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wa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the term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trend of previous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is somewhat different. In order to acquire job skill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ployers at workplaces become direct models rather than models, but experts who major in special education 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ecome direct models (Kim, 2017; Lee & Heo, 2017). And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of the workplace is being viewed i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as the case where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 directly approaches the field of the workplace and immediately guides the employer. Accordingly, there are few cases and theories of lifelong education methods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learn online at home by utilizing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The possibi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ess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the level of general case teaching centering on home and workplace sites is insufficient by major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online system, which is used as a major means in the composi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is mainly considered as a procedure for the instructor to operate audiovisual media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to watch video scenes (Kim, 2015; Hong & Cho, 2018). The difference of this research on the trend of previous studies is that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rectly watch video videos and it is valuable to realize some self-directed learning that corresponds to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Since COVID-19, which is a limitation of social

situation, is prevalent in the period when this study was applied, the process of using video modeling applied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previous studies was somewhat unreasonable.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structor does not face directly, the procedur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 raising the attention to the video scene at home and demonstrating the target behaviors by the video scene is part of reflect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cedure and context. In conclusion, the online-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convergence of workplac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y procedures and methods that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use the workplace contents at home by indirect reference level. The main base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to indirectly utilize the contents is the procedure that is helped by the zoom service called real-time video to the university experts, one of the local related organizations.

2)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The job skills of beauty assistants, which are composed of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can be defined as the performa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rectly wrapping the hair of customers in the beauty salon. In this study, the job skills of beauty assistants consisting of 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10 sub-skills through task analysis.

First,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that applied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st of the time, it is applied to hygienic management of personal head of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 or appearance management. As state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value and significance in that beauty assistant job skills are composed of adaptive skills that converging residential and vocational life by linking the mediation environment for dependent variables to home and workplace (Kim & Park, 2020; Kim & Lee, 2020). In particular, it promotes the effect of general case teaching as a target behavior that clearly recognizes that the materials of hair colds at home can be generalized and used in beauty salons. In addition, the beauty assistant job skills, which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are composed of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revious studies in that they actively include the linkage effect of self-management skills that has value as a pro-social position that cares for others such as clean management, tool management, and time management.

3)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Unemployment

In this study, the term for the study was used for the unemployed developmental disabled.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continues to live in an unindependent life while receiving the protection and help of the parents in the state of unemployed at home after graduation from school. The main purpose of their adult life is to prepare for employment and to link them. The beauty assistant job skills of this study were applied in terms of job preparation and linkage effect, so the terminology of unemployment was used with special emphasis. Overall, the terminology of unemployed people needs to be emphasized on the subject of research in order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the situation of unemployed people in adulthood.

Ⅱ. Method

1. Research Subj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special schools. They have been in a state of unemployment at home for two to three years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and are living in isolation at home or helping their parents sometimes. All subjects a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econdary autistic disorders are involved.

The subjects can be used in basic learning ability, b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plex sentences are often unnatural.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often find it difficult to calculate in complex monetary units. In addition, the subjects do not have any difficulty in the movement of the large and small muscles, but they are also observed to be careless in the clothes when they eat because they can not move their hands well.

The subjects of this study can show the attitude of interpreting and responding to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 of others in linguistic communication ability. However, when others communicate with complex contents and words, they lack the language ability to accept and express. In addi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lso show isolated behavior to communicate with others who prefer themselves or accept themselves well in terms of social interaction or social development. The educational basic information of the subjects is the same as 〈Table 1〉.

〈Table 1〉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s

Item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Age	21	22	21
Gender	Woman	Woman	Woman
Intelligence index	60	63	60
Sociality index	68	49	52
Nonverbal occupational interest test	Interpersonal services (Beauty)	Interpersonal services (Beauty)	Interpersonal services (Beauty)

Finally, this study was able to apply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For refer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graduate students who have completed major courses in lifelong education methodology for the disabled in graduate schools. It also reveals that the workplace was used as a cooperative agency. Incidentally, it is also revealed that mothers living together in the study subjects and families participated as a model for intervention.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 Research Design

This study used a single subject study for research design. This study is to apply the case studies that have not been developed before to the subjects of the study, so the single subject study was more suitable than the group experiment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used the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which is one of the main techniques of single subject research.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consisted of three steps: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1) Baseline

The baseline stage was conducted only as an evaluation procedure without providing intervention or help for the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of the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dependent variables before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provided. Accordingly, the starting point of intervention could be validated by the subjects of the study.

2) Intervention

The intervention of this study was applied sequentially to each subject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technique. First, intervention was provided before the study subjects participated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dependent variables. And when the study subject A showed the result ratio with a stable tendency about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at the baseline stage, intervention began to be applied. Next, when the effect of intervention application on the subject A was shown to be stable, intervention was also applied to the subject B.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same way.

This study ended the application of intervention when subjects showed more than 90% of positive response rate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three times in a row.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in the form of real-time video viewing through zoom service, and it was also done in the form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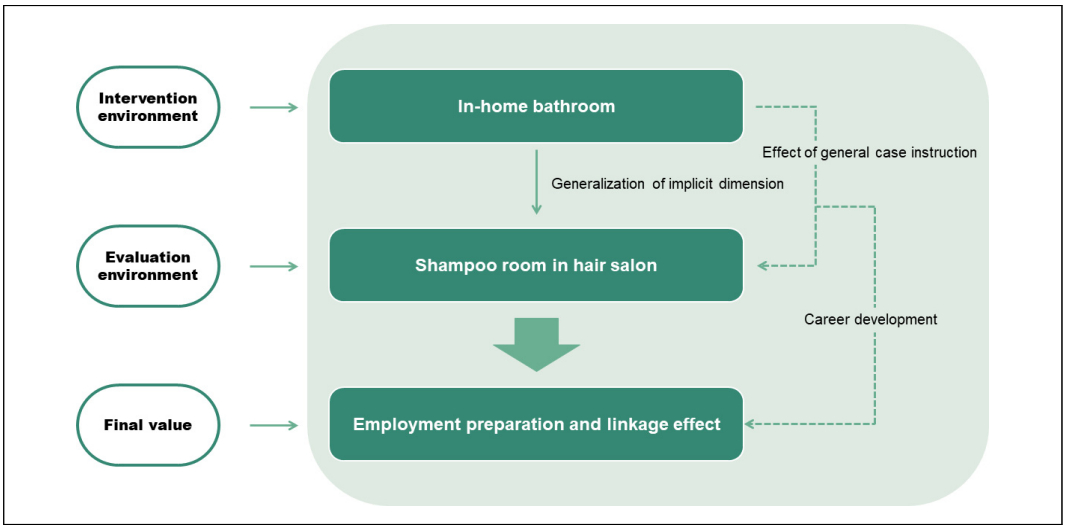
hour and 20 minutes.

3) Maintenance

The maintenance phase was carried out four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ende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maintenance step includes a procedure that does not provide assistance or promotion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subjects, such as the baseline stage. All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maintenance stage for three sessions.

3. Research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research environment is classified into intervention environment and evaluation environment. First, the intervention environment was done in the bathroom in the home where the subjects were living. Next, the evaluation environment was composed of beauty salons, which are the actual performance environment of the dependent variables performed by the subjects. The framework for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of this study has the same meaning as [Figure 1].



[Figure 1] Meaning of experimental environment composition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1) In-home Bathroom for Intervention

The bathrooms in the home where the subjects reside were composed of intervention environments, and the utilization procedure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reconstruction was not done separate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used washstands and shower booths in the bathroom and the portable massage chairs were placed in the bathroom, especially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lso, the subjects of the study provided materials such as shampoo and towels in the intervention process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2) The Shampoo Room in the Hair Salon for Evaluation

The evaluation environment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shampoo room in beauty salon,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approached the usual environment without going through a separate reconstruction procedure and utilized the environment. The shampoo room in the beauty salon corresponds to the job environment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s actually acquired by the research subjects are performed, so no separate reconstruction procedure was required. Inside the shampoo room were toiletries, shower booths, chairs, shampoos, towels, and other tools and materials.

3) Specific Point

The specific point is that the subjects did not approach the job environment of the beauty salon after they got a job, so they approached the beauty salon using the break time of the beauty sal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process of acquiring job, so it is inappropriate to perform dependent variables for actual customers who visited the beauty salon. Since the break time of the beauty salon is 4 hours in total, the approach time zone was different for each study subject considering COVID-19.

4. Dependent Variable: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beauty assistance skills, and it corresponds to the learning contents that the subjec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quire through lifelong education in the level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tivation and grounds of lear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ntents of job composition of dependent variables.

1) The Motivation and the Basis of Learning of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currently in the home of unemployed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The subjects were recommended to acquire their jobs from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higher education course of the special school where the subjects graduat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work in the beauty salon participating in this study in the form of a part-time system when they effectively acquir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this study. Among these agreement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cted as the learning motivation and basis of the subjects. The employers of the beauty salon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so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subjects and judg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subjects to employment.

2)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of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through Task Analysis

In this study, the task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was organized by the employer and the professor of the beauty salon together with the following 〈Table 2〉. The level of task analysis of the dependent variables acquired by the subjects is the same as the level that the employees usually perform in the beauty salon.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Table 2〉 Composition contents of beauty assistance job skills

Stage	Specific performance content
1	Tell guests to take a seat in a chair after guiding them to the shampoo room
2	Press the button to lay the chair on which the guest sits
3	Place a towel on the customer's face after making sure that the customer's neck is fully touching the pedestal
4	Turn on the water button of the shower booth, and make sure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is appropriate
5	Turn the water over the guest's hair with a shower booth and ask the guest if the water temperature is OK
6	Pulling the entire customer's hair back with water
7	Press the shampoo lid twice to remove shampoo from the palm of your hand and apply it all over the customer's hair
8	Rinse the entire customer's hair with water
9	Apply conditioner all over the customer's hair and rinse thoroughly with water
10	Wipe the water off the entire customer's hair with a towel and press the chair button to raise the cust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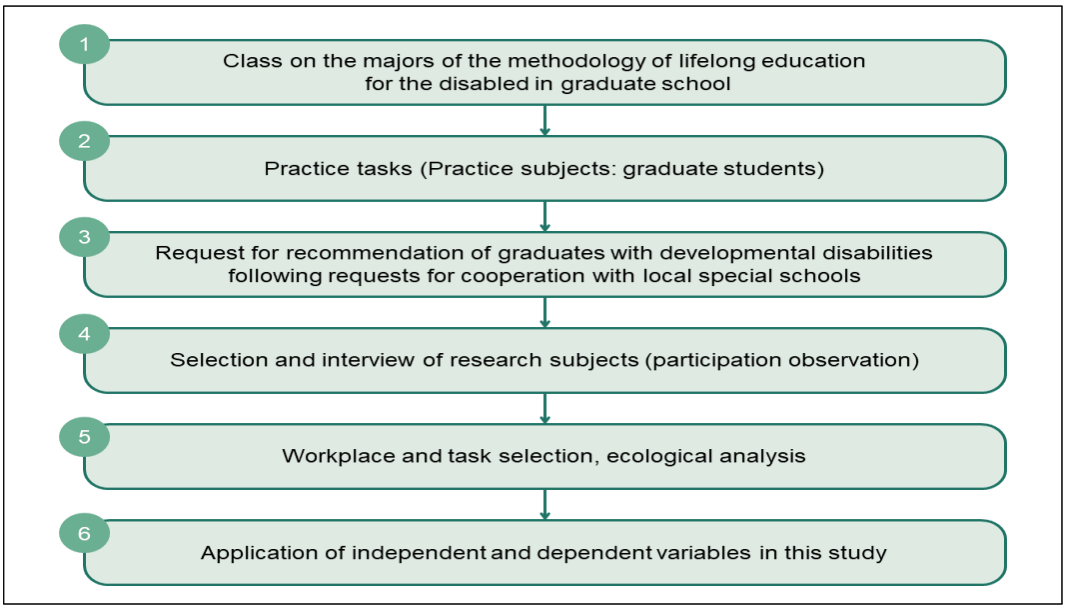
The contents of the task analysis for dependent variables were that the employer required the skills needed for the job linkage of the subjects, which was reflected in reality.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were recruited to guide the employer directly to the beauty care assistance skills.

5. Independent Variable: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1) The Configuration Background and Infrastructure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started in the class of major subjects on the methodolog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graduate school like [Figure 2]. Graduate students who took this class participated as instructor in the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d as instructor were provided with cooperation in the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from special schools in the

nearby area. And the ecological analysis of the overall job to construct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as conducted. Here, the definition of ecological analysis means environmental analysis of beauty assistant job skills performe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is, the procedure is to comprehensively assess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criteria such as the ease and possibility of accessing beauty salons corresponding to the job environment, the stability and suitability of materials and tool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application specificity of intervention programs in order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to link employment.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effect related to employment and job adaptation through field placement is the main standard of the situation after the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 effectively acquires beauty assistant job skills through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reference, there were several 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class, but only one of them participated as a instructor of this study. Cooperation related to this was also provided by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in charge of th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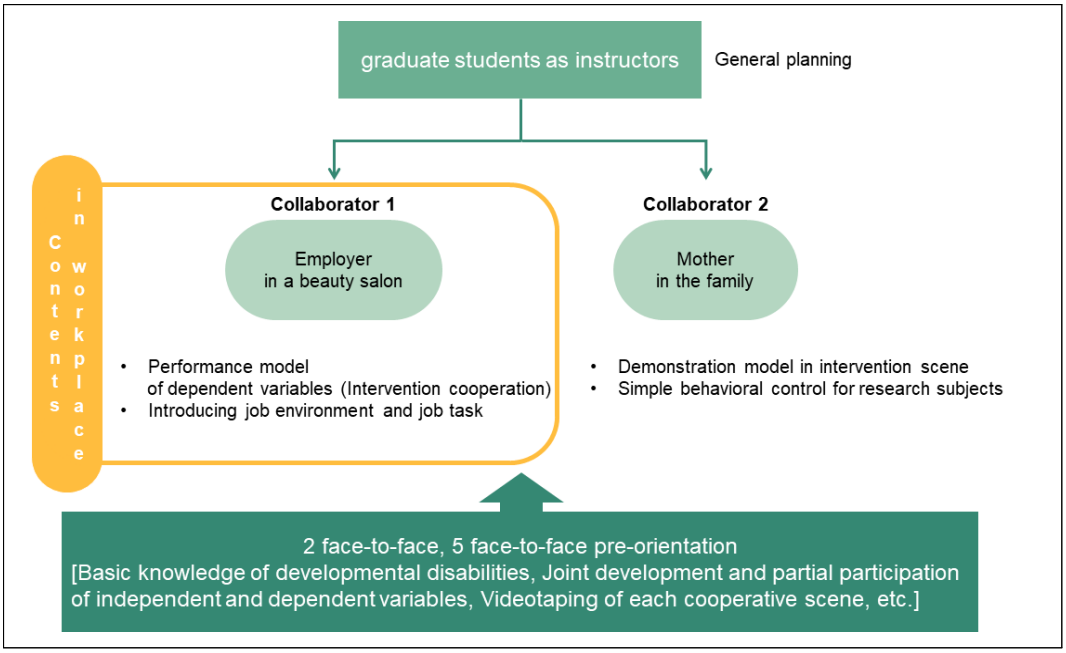


[Figure 2] A general procedure map for the performance of the instructor-related research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 Preparation for the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The subjects of the instructors who execut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graduate students, and the employers in the beauty salon and the mothers in the home participated as collaborators. Based on this, the pre-preparation procedure for the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as designed as [Figure 3].



[Figure 3] Preparation for the composition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First, the employers in the beauty salon cooperated with the pilot model for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because they were experts in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cquired by the subjects. Accordingly, the employers in the beauty salon guided the subjects to guide not only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dependent variables but also the environment, tools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job.

The mother who participated as the second collaborator cooperated with the demonstration model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in the intervention scene of the research subject, and cooperated to control the behavior in a brief form of linguistic attention when the research subject was not able to concentrate well in the intervention scene.

However, this study provided the pre-orientation procedure to two collaborators through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Basically, the focus was on allowing two collaborator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or the subjects while understanding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two collaborators videotaped the performance of the collaborators to demonstrate repeated exercises. This allowed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complete the preparatory process.

The important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mother who participated as a collaborator did not provide promotion or teaching activities for the demonstration of beauty assistant job skills in the intervention scene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lated precautions were emphasized to the mother through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pre-orientation. Since independent variables to be constructed and appli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hrough the zoom service of real-time images,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participation behavior of the subjects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aspect that the validity of independent variables is not secured if the subject of the study is applied to the help or promotion of the mother in addition to the main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acquire the performance of beauty assistant job skills while interacting with the university experts at an indirect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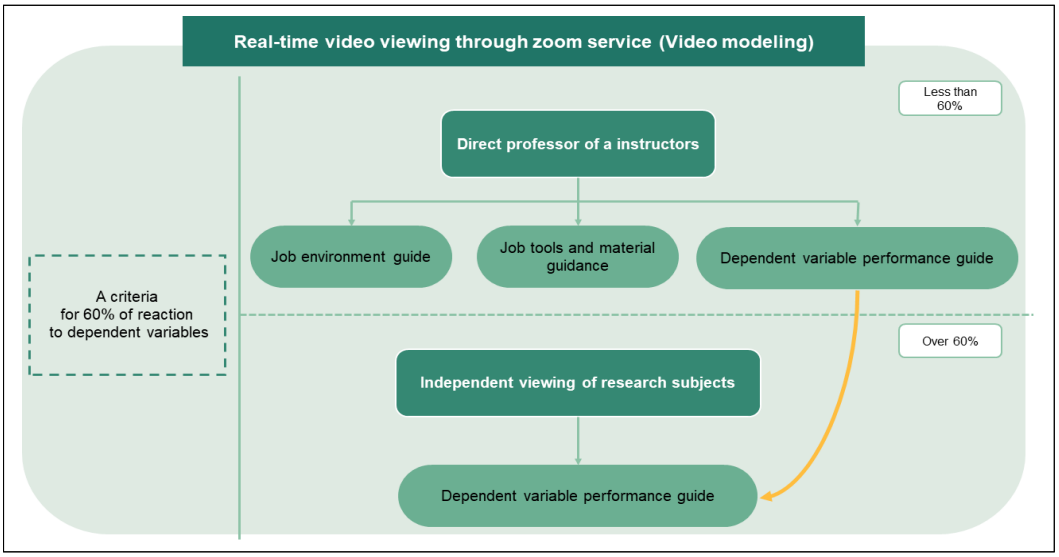
3) Actual Application to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In this study, the actual appl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was finally made like [Figure 4]. Even though two collaborators participated in producing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learning materials about dependent variables of the subjects, it was important to teach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refore, the instructor applied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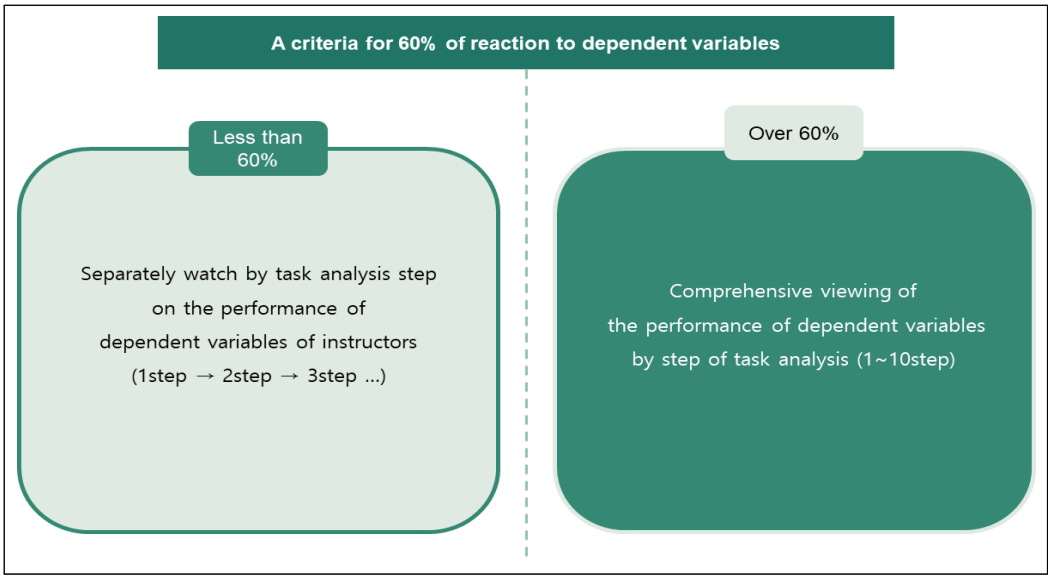
The instructors had a procedure to apply the independent variable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subjects showed less than 60% of the dependent variables and more than 60% of the dependent variables. When the subjects were subject to less than 60% of dependent variables, the instructor repeatedly applied the direct teaching-level verbal promotion through video materials produced with cooperation from the employer in the beauty salon. And if the subjects showed more than 60% of positive responses to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the subjects were allowed to lead the intervention scene while watching the video independently.



[Figure 4] Applying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to reality

As the subjects showed more than 60% of the results on the positive response of the 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iewing of the video

provided was conducted at a interval of about 10 seconds in each stage of the task analysis. The detailed criteria related to this were set up as [Figure 5].



[Figure 5] Separation methods for performance guide of dependent variables in application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verging contents in workplaces

6. Data Measurement

In this study, data measurement was conducted to manipulate the positive and misresponsive responses to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se positive and false responses are whether the subject of the study performed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precise procedures and methods in each step of task analysis without the help or promotion of the instructor. And the study subjects show the beginning of the correct method within 5 seconds for each task analysis step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formula of data measurement is to divide the number of steps of task analysis performed by positive reaction among the number of steps of overall task analysis for dependent variables and convert them into percentages. Data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were measured by the employers in the hair salon who participated in the composition of 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link the subjects to employment and prepare for the subjects. The employer in the beauty salon checked whether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reaction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the task analysis by observing the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scenes of the subjects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7. Interobserver Reliability

To verify how reliable the data measurement of this study is, the measurement procedure of reliability between observers was reflected in the research method. The employer and the instructor in the beauty salon participated in the measurement of the reliability between the observers. The instructor and the employers in the beauty salon participated in the measurement of the reliability between actual observers when the data measurement results were more than 98%.

Measurements of reliability between observers were carried out at the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stages. The measurement formula is a percentage of the number of matches divided from the sum of the number of matches and the number of mismatches. The instructor and the employer in the beauty salon were the subjects of the dependent variables, so it was appropriat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articipate in the reliability measurement between the observers. The results of reliability between observers measured by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the same as 〈Table 3〉.

〈Table 3〉 Reliability measurement result by subjects

Item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core (Range)	99.5%	100%	100%

8. Intervention Fidelity

This study measured the fidelity of intervention to verify the fidelity of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to the subjects. Accordingly, the professors of this study and graduate students who take the same major course at graduate school participated as partners. The 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faithfulness checked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 composition procedure was applied while accompanying the intervention scene through the zoom service of the instructor. The instructor gave a detailed guide to the graduate students about the process and method of organizing independent variables in advance. The items for measuring the fidelity of intervention are the same as 〈Table 4〉.

The questions of 〈Table 4〉 are the main principles in the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The formulation of measurement of intervention fidelity is a percentage of the number applied and the number not applied, divided by the number applied. The results of intervention fidelity were commonly calculated as 100%.

〈Table 4〉 The configuration questions for measuring the intervention fidelity

Item	Specific measurement content
1	Did the instructor provide all the procedures for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subjects?
2	Did the instructor refer to 60% of the standard of positive response to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when applying the independent variable to the subject of the study?
3	Did the instructor provide enough guidance or facilitation for the study subjects to watch videos independently in the bathroom at home?
4	Did the instructor provide enough feedback on the results of the mother's cooperation in the home that cooperated for the intervention of the subjects?
5	Did the instructor give appropriate feedback to the subjects again on the demonstr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guided to the subjects by the employer in the hair salon?

The measurement questions of intervention fidelity presented in 〈Table 4〉 are composed of the procedure and context that measured intervention fidelity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learners through a single subject research in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existing related preceding studies. The study was composed of five questions based on the main component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applied in this study, and the items of the intervention fidelity measurement were composed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s and trend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this study tried to secure the validity and quality of the composition questions by promoting the composition of the measurement items of the fidelity of the intervention with the professors who majored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faculty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item composition helped to form a foundation for clear monitor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intervention program by the measurement items of the intervention fidelity. In conclusion, it is revealed that the constructive questions of the fidelity of intervention in this study are not constructed and utilized by itself, but are based on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existing previous studies.

9. Social Validity

In order to verify how universal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pplied in this study can be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ocial validity was measured. Five professors who majored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participated in the measurement of social validity, and the instructor guided the five professors to the information on the composition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s handouts. The composition questions for measuring social validity are the same as 〈Table 5〉.

Social validity was calculated by using the Likert 5-point scale, and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measured with a focus on how much they can contribute to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measurement questions of social validity in this study were similarly reflected in the procedure and context of existing related preceding studies. The measurement of social validity is basically meaningful in verifying the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verif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generalized in related academic and fields, so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trends of existing precedent studie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cial validity by constructing measurement questions focusing on determining whether each variable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cluding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developed a compositional question with one professor who majored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ho did not participate in social validity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al question for measuring social validity.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estions to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e actual measurement procedure before measuring the social validity and conducted the actual measurement.

〈Table 5〉 Questions and results of social validity measu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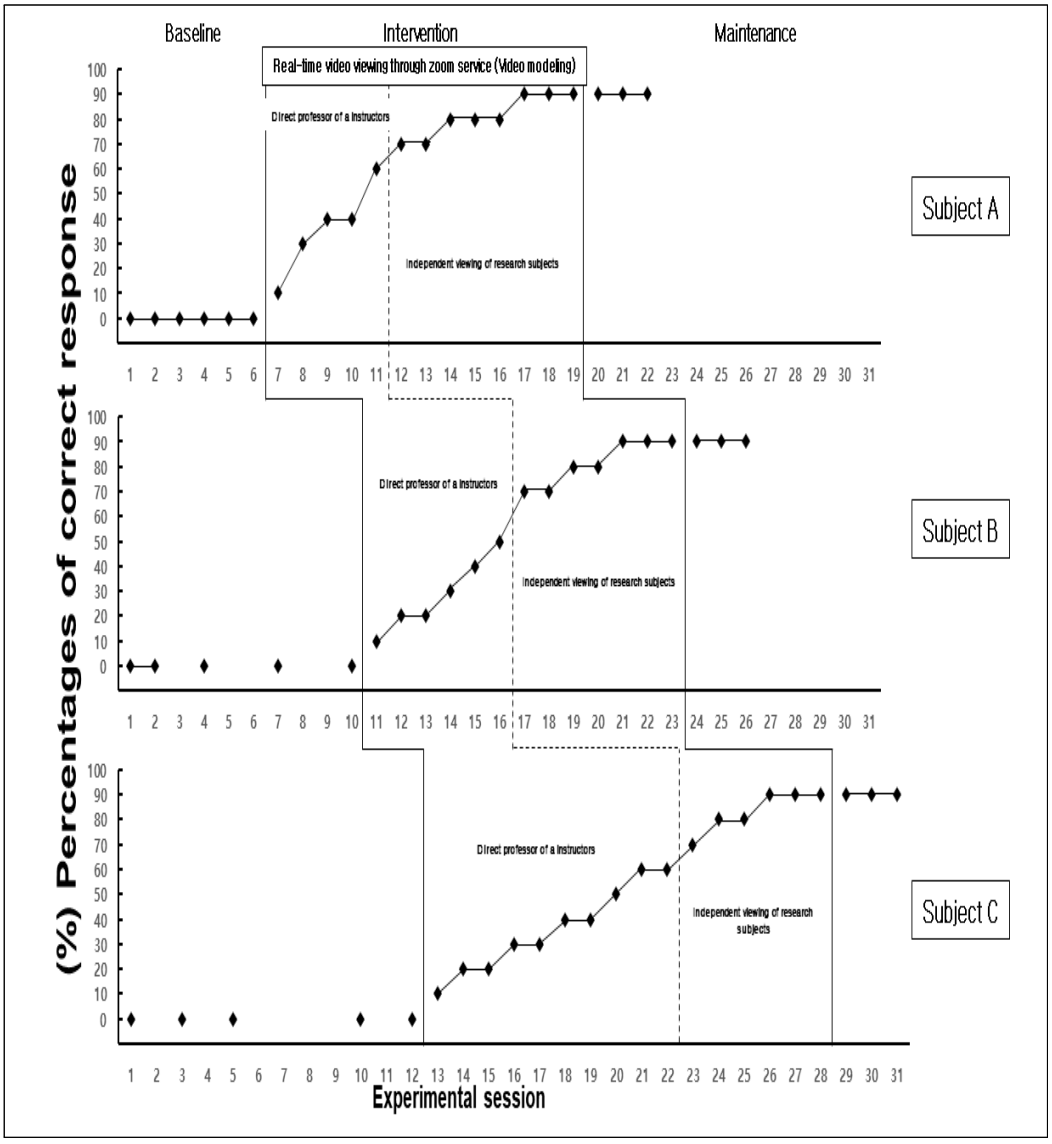
Item	Specific measurement content	Score (Range)
1	Is it possible to generalize the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in this study a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4.95 (4.9~5)
2	Did the independent variables applied in this study provide the developmental disabled with sufficient use of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4.95 (4.9~5)
3	Is the independent variable applied in this study sufficient for the training course to train the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in graduate school?	4.95 (4.9~5)
4	Does the dependent variable applied in this study help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repare and connect to employment?	4.95 (4.9~5)
5	Is there a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fully recogniz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ubjects?	4.95 (4.9~5)

Ⅲ. Result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applying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subjects were finally shown as [Figure 6]. The subjects showed very poor results on the performance of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dependent variables at the baseline stage before the intervention, but since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s was improved to a relatively stable tendency.



[Figure 6] The result of the beauty assistant job skills performance by subjects

In the baseline stage, the subjects showed little recogni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 fact, 0% of the results were found. Although the subjects were required to perform dependent variables, they often showed careless misreactions such as touching the shampoo containers in the bathroom at home or looking at the faucet repeatedly. The subjects also showed misresponse such as telling the mother to get up in the chair to perform the dependent variable or expressing the word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 situation to the mother. As a result,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ntly showed 0% results at the baseline stage and began to be subject to intervention.

Since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the subjects of the study improved the rate of positive response with a stable tendency to perform dependent variab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ound to recognize what behavior they should take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after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Therefore, the subjects expressed the desire to sit down with the guest in the first stage of task analysis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showed careful behavior waiting until the guest finally sat down in the chair. In addition, the subjects showed no behavioral problems expressing inappropriate words to their mothers despite the fact that their mothers demonstrated the role of guests in shampoo rooms in beauty salons. As a result, the subjects of the study showed improvement in the stable tendency ratio of 10~20% to 60% of the results of the positive respons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learning cognitive effect was achieved according to the step by step order of the task analysis of the dependent variables. In other words, the subjects did not show any cases of skipping the previous stage of task analysis and acquiring the next stag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the positive response acquisi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subjects of the study led the intervention scene by independently watching video images when they showed more than 60% of the results of the positive respons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scene, minimizing the verbal promotion of the instructor and omitting the explanation of the performance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environment and materials of the dependent variables that had been promoted before. Nevertheless, the subjects regularly achieved the results of positive response to dependent variables at an improved rate of about 10%. For example, the subjects of the study often delayed the reaction start time or reaction time in performing dependent variables, and often omitted some steps of task analysis. In fact, the subjects often had misresponses such as not putting enough water on the head of the customer while washing the head of the customer, or applying only shampoo and not applying rinse. However, the subjec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intervention repeatedly minimizes the misreactions shown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leted the application of intervention by showing 90% of the performance ratio for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ree consecutive sessions.

In the maintenance stage after the intervention was completed, the subjects showed the same result as the final application effect of the intervention. The subjects were aware of all 10 task analysis stage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dependent variables, but some of the steps showed delayed reaction time or performed too quickly and were treated as misreaction. Through this, it was judged that post-support is needed for the misresponse shown in some stages of the task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Ⅳ. Discussion and Conclusion

1.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everal issues focusing on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analysis. Ecological analysis can be explained as a procedure of

analyzing the needs of design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job environment and ability to be learne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2017). This ecological analysis is understood as a fragmentary preliminary investigation, but it is essentially a major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at can achieve job preparation and linkag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is stud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the region were developed and operated through the major curriculum classes of graduate schools. The central role of this study is ecological analysis. And this ecological analysis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easy clues from experts who plan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because it has the function of guiding them to design the intervention methods and procedures of applicable contexts within the job environment and ability (Lee & Heo, 2017). In addition, ecological analysis includes the advantage of seeing the specificity of which subjects can participate and cooperate as mediators or professor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and operated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Oh, 2003; Park, 2013).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e procedures for ecological analysis need to be manualized into a clearer and more valid system than the current research trends (Kim & Kwon, 2021). The convergence of workplace conte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this study is the concrete basis and result of ecological analysis.

Seco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reflect the advantages of considering the learning style of the subjects. This study is because the intervention procedures and elements composed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fferentiated from the subjects of the study without repetitive application during the entire session of the intervention. In fact, this study applied real-time video viewing through zoom service to the subjects for the entire period of intervention as part of video modeling, and the application procedure was flexed differently. In other wor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actively applied and minimized the direct teaching of the instructor according to whether the results of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ore than 60% and less. This is because the subjects of the study intended not only to achieve the positive response perform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mor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but also to control the application procedur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efficiently. As verified in the case of this study, video modeling reflecting the direct instructor of the instructor in the intervention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subjects was reflected as a basic learning dimension for video modeling based on independent viewing of the subjects. If the video modeling based on the direct teaching of the instructor was primarily omitted or neglected in this study,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subjects to improve the easiness of using video modeling independently and self-directedly (Hong & Cho, 2018; Kim & Park, 2020). Therefore, the manuals that evaluate the learning style should be generalized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particular, this study applied the online-bas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to the subjects, so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cess of the subjects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assessment of the learning style is an important means in the procedural process for this. In conclusion, the learning style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which intervention factors ultimately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 proces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Third, this study raised the aspect that various collaborators can be considered in the composition of mediator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which are composed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regard, the collaborator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employers in beauty salons and mothers in the home. Although they are not experts in lifelong education, they can be regarded as collaborators who can contribute to acquiring dependent variables. This aspect is also possible through the ecological analysis discussed above, and ultimately guarantees the excellence of the role of lifelong education experts such as

instructors (Kim, 2018). In particular, since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hich consists of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online basis, the role of the collaborator is important, and the preliminary training process for the collaborator is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pplied interventions for subjec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applying pre-training for collaborators.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employers who make decisions on job expertise and employment linkage are essential for intervention of research subjec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t it is also necessary for collaborators to participate in the guarantee of excellence in online-based program application. Subsequently, a manual that has a generalized training procedure and demonstration procedure for cooperation with a partner centered on lifelong education expert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improved t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ization effect between the family and the business. The generalization effect between the home and the business can be recognized because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actual business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home. The advantages of applying these dependent variable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ecological analysis discussed above. Since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based on online, generalization of the generalization between home and business is required (Kim, 2017; Kim & Park, 2020). In other word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the expected effect of general case instruction between family and business by the dependent variable applied. In addition to the case of this study, if ecological analysis is conducted again, general case studies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be applied in various ways. This study not only reflects the nature of online, which is the main base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composed of independent variables, but also encourages the use of contents of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businesses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disabilities should appro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contents of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workplaces by analyzing ecologically various lists of dependent variables that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acquire in the dimens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is can also be considered as the main significance and value of this stud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o the whol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y applying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o thre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e intervention procedure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not the result of activation in the research trends of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for the disabled, so it includes limitations that are inevitably applied to a small number of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However, the group experiment study that can further expand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siz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on the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of this study should be flexed by other procedures and methods.

This study measured social validity to verify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pplied in this study are not onl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t also special education fields centered on school a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terminology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reflect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because it was targeted at the developmental disabled in adulthood who completed special education in school age. Looking at the special education field centered on school age, it can focus on the field of transition education as a detailed area. The area of transition education can be defined a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links schools and communities so that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about to graduate from school can achieve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viewpoint of transition education. For thi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experts from local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to jointly develop and operate transition education programs through linkage betwee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Kim & Lee, 2020). In this regard, the process of organizing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pplied in this study is a basic data that can be usefully referred to. Subsequently, studies should be activated to devise procedures and methods to apply the intervention program of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school-aged transition education, and it should be fully considered how the specialized cooperation support system between special schools and workplaces can be integrated with existing education programs such as support employment in terms of school-aged transition education.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First, since the number of subjects in the study consisted of thre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Accordingly, follow-up studies that apply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in terms of group experimental research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since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three,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have been more reliable and meaningful if other performance factors were reflected not only by performance evaluation of target behaviors (subordinate variables) but also by direct participation observation. This, too, should be considered in subsequent studies. Next, although related experts did not participate as instructors because the beauty assistance technology applied in this study had relatively less expertise in beauty, the procedure for related experts to participate as instructor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subsequent studies. This will further enhance the social validity of this study.

2. Conclu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at converging workplace contents on job skills of beauty assistants for the unemployed and developmental disabled.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in two aspects and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First, the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at converging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was effective in acquiring the job skills of beauty assistants for the unemployed and developmental disabled.

Second, the online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at converging the contents of the workplace was effective in maintaining the job skills of beauty assistants for the unemployed and developmental disabled.

Through the above conclusions, the study emphasizes the aspect that the mutual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can be established. And the conclusion of the application result of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can be suggested as basic data that many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in the region can actively receive lifelong education program using contents of various institutions online. In addition, it can be suggested as a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practical course or program for learners who want to qualify as a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in graduate school.

■ References

Han, K. K., Kim, W. H., & Joo, K. Y. (2020).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utur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FGI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5*(1), 135-157.

Hong, S. D., & Cho, E. H. (2018). Research trend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3), 95-113.

Kim, H. I. (2017). A literature review of vocational intervention for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and autism disord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3), 95-111.

Kim, H. J., & Shin, H. K. (2021).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distance learning for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5*(4), 1-33.

Kim, J. H., & Park., H. O. (2020). A research trend on the studies related to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4*(4), 1-26.

Kim, K. Y., Choi, J. H., & Lee, H. S. (2021). Research trend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key words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697-710.

Kim, M. D. (2015). A study on evidence-base standard of single subject research: Focused 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4), 29-49.

Kim, W. H. (2020).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transitional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special teachers and subject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2*(3), 141-170.

Kim, W. H., & Lee, Y. W. (2020). A study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y subject: Focused on the six major area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623-649.

Kim, Y. J. (2017).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2), 173-198.

Kim, Y. J.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extracurricular based talent donation activities of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on the cooking skills for high school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8*(1), 81-94.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Kim, Y. J., & Kang, K. S. (2013). A participant observation study on adult residential life of unemployed graduat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necessity of transitio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1), 71-101.

Kim, Y. J., Kim, W. S., & Kwon, R. H. (2021).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Kore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feasibility view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4), 95-104.

Kim, Y. J., & Kwon, R. H. (2021).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f convergence major in lifelong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ies on restaurant employment skill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7), 136-144.

Lee, S. J., & Heo, J. (2017).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4), 61-90.

Oh, K. S. (2003). The problems and a reform measure in vocational education at the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vocational rehabilitatio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3), 99-132.

Park, J. S. (2013). The effects of transition activities to promote daily living in higher education setting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ION SCIENCE, 52*(3), 23-44.

논문투고일 : 2021. 09. 17.
논문심사일 : 2021. 11. 30.
게재확정일 : 2021. 12. 09.

「장애인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 행 일 :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0463
홈페이지 : www.koddi.or.kr
인 쇄 처 : 누보